시로 읽는 성보순례
푸르게 일렁이는 하늘
국보제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화를 경계하라
몸을 간수하라
몸으로 짓는 죄업을 떨치고
그대의 몸으로 선행을 닦으라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1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875호 2012년 2월 15일 수요일

경전 과도 최초 공개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능엄경' 한글과도집 발표

선사들은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주장자와 가사 등을 징표로 전한다. 강사들은 전강 때 제자에게 과도를 전한다. 과도의 과(科)는 구역, 도(圖)는 그림을 뜻하며, 경전을 조목조목 분류별로 나눈 것이다.

강사와 강사에게 출가자 사이에서만 전하던 과도가 누구나 알기 쉽게 한글로 풀이돼 한국불교사 최초로 재가불자에게 공개됐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정수)는 2월 7일 청풍루에서 〈능엄경〉 한글과도 발표대법회를 봉행했다.

한글과도는 역경보살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이 제작 · 공개했다. 스님은 〈능엄경〉의 큰 단말과(경전의 최소 구분단위) 159개 항을 추려 〈수능엄경 한글과도집〉이라고 이름 붙였다.

월운 스님은 "〈능엄경〉을 접하는 불자들에게 가닥을 잡아 정리해주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출 · 재가를 막론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경전공부에 흥미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과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2011년 가을부터 우리말 〈능엄경〉 강설법회를 매주 화요일 봉선사에서 열고 있다. 〈능엄경〉이 한글번역은 돼 있어 대중이 낱말 뜻은 알아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글과도집을 펴낸 것이다.

스님은 "경에 과목(科目)이 있는 것은 마치 도로에 이정표가 있는 것과 같다"며 "이는 범부로부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방향과 거리와 그 구간구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일러줘 경을 보는 이로서는 꼭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참고서 〈과도〉한글 번역
재가자 경전공부에 큰 도움
"경전해석, 스님 전유물 아닌
재가불자에 확장될 사건"

월운 스님은 "과도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도 말했다.

선사가 주장자 전하듯, 강사는 과도를 전하는데 스님과 스님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지던 것을 재가자에게 알리기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욕을 먹어도 크게 욕먹을 일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쉽게 경전을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경전공부에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과도집을 만들어 공개한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우리나라 땅이 시 · 도-군-면-읍-리-자연부락 등으로 구성돼 있듯 경전도 구분되며, 땅의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경전의 최소 구분 단위가 단말과(端末科)라고 설명했다. 경전을 구분해 알고 나면 앞 내용으로 뒤가 이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경전 보는 재미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월운 스님이 수개월간 골방에서 컴퓨터만 바라보더니 〈한글과도집〉을 내놓았다. 스님이 마지막 강의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능엄경〉 공부에 정성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글과도집〉 발간은 불교사에 없던 일로 교학을 더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한글과도 공개는 한국불교 교학의 트렌드를 바꿀 것이다. 경전 해석이 더 이상 스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재가불자에게로 확장되는 사건이다. 한글과도를 보급을 계기로 경전공부가 크게 유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미마쉐,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이사 퇴휴)와 티베트 독립 지지단체인 랑짼, 티베트하우스코리아(대표 남카)가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중국의 유혈진압 규탄 집회를 2월 8일 열었다.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뜻의 티베트어 '미마쉐'를 외치며 중국정부를 규탄했다. 집회 후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시민사회연대(대표 퇴휴)가 추모법회를 열고 희생된 티베트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글=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종정 추대법회서 종교평화선언 공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예방 때 밝혀
민족화해 · 평화통일 · 생명평화 염원 천일기도 입재도

'종교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인선언(종교평화선언)'이 조계종 종정예하 추대법회에서 발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8일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예방을 맞아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자승 스님과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이 각각 참석했다.

송석구 위원장은 "7대 종단 평화유지를 위해 불교가 중심이 되어 선언문을 작성하고 천주교와 기독교도 참여했다고 들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만 스님은 "3월 28일 종정예하 추대법회에서 종교평화선언을 발표하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염원하는 천일기도 입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도 "종정예하 추대식과 더불어 종교평화선언을 진행하고 천일기도는 종정예하께서 먼저 입재해 주실 것이다"라며 송 위원장의 동참을 권유했다. 스님은 또 최근 청와대에 청원한 용산참사 관련자 사면과 관련해서도 사회통합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최근 용산문제와 관련해 구속자 사면을 청원했다. 구속자들에게 영치금과 책 선물도 했고 조만간 사무실도 방문할 예정이다. 3 · 1절이건 부처님오신날이건 반드시 특별사면이 이뤄져 이분들이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구 위원장은 "신문을 보고 청원 사실을 알았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시면 간곡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평화선언문은 아직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문구를 정리하는 중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875호 CONTENTS

종단 2
자승 스님 용산참사 대책위 방문
화쟁위, 한진重 사법처리 반대
범어사 3.25 주지 선출키로
법주사 차기 주지 합의추대 무산

종합 3
동국대 김희옥 총장
남북 불교의례 통합 추진

시방세계 5
신흥사 동안거 해제 법회



해외 14
美, '명상 식사'에 푹 빠지다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2012 한마음아버지마당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수강생 모집
| 대 상 | 아버지면 누구나
| 일 정 | 2012년3월10일(토)~4월4일(토)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 1주차와 6주차는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
| 인 원 | 선착순 40명(선착순 마감)
| 수강료 | 10만원
| 마 감 | 2012년3월4일(일)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031-471-6926~7
※자세한 참가방법 및 절차는 www.hansi.org에서 확인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17일 법정 스님 2주기 추모재

길상사 설법전서

길상사와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가 법정 스님의 원적 2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추모법회는 2월 17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되며 법정 스님의 생전 뜻에 따라 조촐하고 간소하게 진행된다.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들의 헌화와 영상상영, 추모 법문, 추모사, 합창단 음성공양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길상사 관계자는 "무소유를 통해 맑고 향기로운 삶의 지혜를 가지라고 생애를 통해 가르치셨던 스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다. 여전히 이 시대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천년 명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국가브랜드위 보고회의서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국내 주요 사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보고회의에서 "전통 사찰을 201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가브랜드, 문화로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브랜드위원회는 2012년도 계획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속 추진 ▷지역문화유산 등 지역브랜드 발굴 및 육성 ▷문화관광 명품 해설가 양성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2005년 한국잡지협회 우수잡지 선정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전문잡지 선정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월간「불광」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월간「불광」을 새롭게 리뉴얼해 세상에 내놓은 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다행히 독자, 필자, 광고주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 덕분에, 감히 「불광」이 세계 방방곡곡을
부처님빛으로 환히 비추는 꿈을 꾸어봅니다. 당신의 행복이 「불광」의 행복입니다.

다 큰 자식 길들이기가 더 어려운 법인데…. 너무나 멋진 변신입니다. 「불광」 덕에 불교계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 안희경 님

2월호가 도착하였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 조영훈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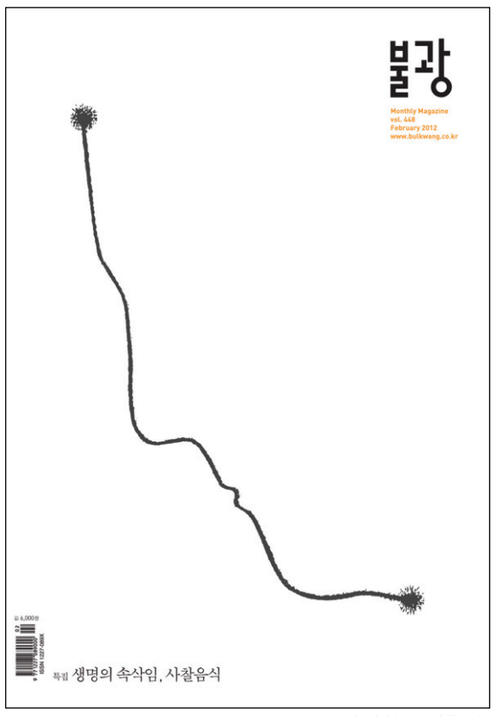
10년 넘게 구독하고 있는데, 이처럼 들뜬 마음은 처음이에요.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 잡지입니다. - 이동연 님

어려운 시기에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광고 잘 만들어줘 정말 고맙습니다. - 아제여행사

특집 _ 생명의 속삭임, 사찰음식-우리 시대 사찰음식의 본 모습 집중 조명. • 내가 만난 불교 _ 불교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 오태양 씨의 시대와 동행하는 불교 이야기. • 강원일기 _ 학인스님들의 구도정신과 정진을 통한 삶의 진지한 성찰. • 우리 절에 안기다 _ 화운사-어린이 전문 템플스테이 '놀아봐! 꿈꿔봐!' • Art & Heart _ 불교와 현대 예술의 통섭을 모색하는 현장미술가 최병수 작가 • 명장의 고집불통(佛通) _ 청자 도공 1인자 김세용 명장 • 고전 산책 _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소설가 장정일 • 병 주고 약 주기 _ 박노해의 시에서 붓다의 속울음을 듣다 • 불교, 정확하고 명쾌하고 자유롭게 _ 중도(中道) • 선불장을 찾아서 _ 실상사 재가불자 겨울학림 • 부처님의 참모습 _ 사리불과 목건련의 이름을 아시나요? • 살아있는 명법문 _ 삶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진다.

월간「불광」 구독 문의 Tel. (02) 420-3200 www.bulkwang.co.kr
1년 정기 구독료: 60,000원 1권: 6,000원(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월호





표지: 최병수 作, 〈화택(火宅)〉.
불붙은 도화선(반가사유상)으로 삼계화택(三界火宅)을 형상화.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제10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푸르게 일렁이는 하늘

이 시 연

즈믄 해를 씻어내며 다스려온
절절한 그리움의 표상이었으리라
순수의 기원을 피워
정끌 한 번 내려쪼을 적마다
아승지겁을 향한 불꽃 튀는 사랑을
그토록 오롯하게 새겼으리라

지리산 천왕봉 마주하여 서 있는
백장암 돌탑을 돌고 또 돌면
묵묵히 도량을 지키는 신장들과
잔잔하게 풍악을 연주하는 하늘사람과
온유한 보살님과 늠름한 천왕들이랑
우리 서원은 하나 되어 어우러지고

소졸한 듯 우아하게
담백한 듯 눈부시게
그리하여 산골 가득 차오르는
노래와 춤으로 당초무늬에 새긴 사랑이여

돌탑 앞에 두 손을 모으면
석수장이 눈빛 뜨겁게 타오르고
지붕돌에 핀 연꽃들 송이 버는데

한 천년쯤 다시
간절한 염원을 사르고 또 사르면
덕지덕지 낀 번뇌를 지우고 또 지우면
저 탑 꼭대기 보개 위에 올라
사랑 일렁이는 하늘 우러르지 않으려나.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시연 시인은… 1946년 전북 임실 출생. 1982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금시내 안마을에 부는 사람〉, 〈참 좋은 날〉 등.

조계종,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자승 스님, 사면 청원 이어 용산참사 대책위 방문 '위로'
화쟁위, 한진 重 희망버스 구속 사법처리 중단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우측 가운데)이 용산 참사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조계종이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희망버스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도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재판 중이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도 불구속 기소 중이다. 이 밖에도 희망버스 관련자 4명이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화쟁위원회는 2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한진중공업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화쟁위원회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적자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노동자 가장들이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사법적 조처만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화쟁위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면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고 이미 이뤄놓은 사회적 발전도 물거품이 된다. 가장 커다란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에 두고 집행돼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사법 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멈추고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길 바란다. 희망버스 불교계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특별사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최근 청와대에 용산사태 관계자들의 특별 사면을 요청했으며 청원서 전달에 앞서 구속된 철거민을 위한 위로 편지와 영치금, 책, 단주를 전달한 바 있다.

자승 스님은 9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용산참사 대책위(공동대표 조희주) 사무실을 방문해 10여명의 유가족 및 관계자들을 만났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최근 조계종이 청와대에 청원한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조희주 공동대표는 "사면을 청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3월 1일에 구속자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유가족은 자승 스님이 전달한 편지와 영치금을 잘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종교지도자 모임 등에서도 함께 노력해 청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용산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도 "사회통합위원회에도 강력히 요구했으며, 대통령에게 심각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대책위는 이날 자승 스님에게 용산관련 서적 4권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도 대책위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범어사 3월 25일 주지선출키로

중앙선관위 · 교구선관위 연석회의서 합의

조계종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관위는 교구선관위와 함께 제249차 회의를 2월 7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교구 선관위는 4월 7일 現 주지 스님 임기 만료 전에 범어사 후임 주지가 선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결과 중앙선관위와 교구 선관위는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를 3월 25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구선관위는 3월 2일 예정인 산중총회를 취소하고 3월 25일 산중총회를 개회할 것을 결의 후 중앙선관위에 보고키로 했다.

박기범 기자

조계종, 노스님 입원치료비 첫 지급

승려복지법 의거 태화 스님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

승려노후복지 제도 시행 후 첫 입원치료비 수혜자가 나왔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영담 · 총무원 총무부장)는 지난해 12월 입원치료비를 신청한 태화 스님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했다. 태화 스님은 법납 48년, 세납 83세로 해인사 산내암자인 삼선암 반야선원에서 동안거 결재 중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승려복지제도에 의거 입원치료비를 신청했다.

이에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스님의 진료비 523만원 가운데 의료보험관리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226만원의 50%인 113만원을 지원했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차기주지 합의 추대 무산

24일 차기회의서 주지후보 재조정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의 차기 주지 선출이 합의 추대되려다 무산됐다.

법주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설조)는 2월 8일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 선출의 건을 논의했다.

차기 주지 예비 후보로는 노현 스님(現 주지), 현조 스님(前 국제선센터 주지), 성일 스님(대원사 회주) 등이 1월 11일 등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예비 후보스님들은 정견 발표 후 스님들은 단일후보 조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법주사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주지후보 단일화를 재시도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이웃 종단으로는 최초 "논산군법당 위해"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 사진 오른쪽)이 이웃 종단 최초로 조계종에 기금을 전달했다.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 사진 가운데)에 논산 군법당 건립기금 1000만 원을 2월 8일 기탁했다. 홍파 스님은 "종단협 신년총회 때 다른 종단의 후원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10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예불. 도량석. 종성.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과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 작법(무용)과정 : 오후 1시 ~ 오후 3시 / 범패 소리과정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3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신년기자 감담회에서 올해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동국대 김희옥 총장

“불교인재 양성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취임 2년차 앞둔 동국대 김희옥 총장

고통분담위해 등록금 2.2% 인하
공직생활 이상으로 총장직 임해
사회요구 부응하는 인재 양성
제2 건학기금 200억 모연 목표

“건학이념의 구현과 함께 취임에 맞춰 선언한 ‘리스타트 프로젝트(RE-START PROJECT)’가 실현되면 동국대는 미래가치 선도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2월 7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학교운영 계획을 밝혔다.

동국대는 올해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 ▷국고사업의 전략적 수주 ▷연구경쟁력 강화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 ▷제2건학기금 모금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희옥 총장은 “지난해 불교학술원이 대형 국책사업인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ABC사업)을 수주해 동국대 건학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케 됐다. 동국대가 세계적 수준의 불교학 연구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학교의 크고 작은 성과가 최근 재정악화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전기료 인상 등 모든 대학이 함께 겪고 있는 난관이지만 고통분담을 위해 등록금 2.2%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을 2.2%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시켰다.

등록금 인하 결정에 따라 연간 인문·사회계열은 15만8000원, 이학·체육계열은 18만2000원, 공학·예능은 20만8000원, 약학계열은 25만6000원의 등록금이 인하됐다. 2008~2011년 4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5.2%인 점을 감안하면 동국대의 실질 등록금 인하율은 더 크다.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계종립 대학의 수장으로 불자다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등 공직생활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자타의 평가이다.

김희옥 총장은 “불자·동문들이 우리 대학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공직생활 이상의 긴장감·열정·투명성을 갖고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소통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학부구조개편 등으로 총장실이 점거되고 기물 등이 파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도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희옥 총장은 “소통은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 대화·회의 때 자기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통이 안됐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올해 (가칭)인재동국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교육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동국 프로젝트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학생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교과목 개편 및 장학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강화, 인재동국포럼 개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학생들의 취업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동국 프레쉬맨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의 ABC사업 같은 국고사업을 각 단과대·전공별로 전략적으로 수주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승진 및 재임용시 국고사업 수주 실적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삼고, 신규교원에게 부교수급 이상 1억원까지 연구정착금을 지급하고, 교내 최우수 연구업적 교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또, 바이오메디캠퍼스 조성사업을 비롯해 신공학관 준공, 혜화문 일대·충무로관 개발 등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연 중인 제2건학기금의 목표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기업대상 모금 등을 강화키로 했다. 동국대의 제2건학기금 모금액은 2010년 112억원이던 것이 2011년 182억원(입금액 기준)으로 160% 늘어났다.

김 총장은 “불자는 부처님과 같은 생각·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동국대는 이를 건학이념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교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불교시민사회, 사업 노하우 ‘공유’

공모사업 결과 보고회
2012년 공모 2월 20일 시작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가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결과보고회’를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련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후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모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평화의집’은 원폭 피해 희생자 추모제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를 추진했다. 추모제는 70만 원폭 피해자 중 한국 출신 피폭자 7만 명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다. 조계종의 지원으로 유족,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는 ‘2011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교육 훈련 경과 보고’를 발표했다.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대상의 주민 중심 교육은 이번이 최초다. 이들은 5강에 걸쳐 주제교육과 현장방문 워크샵, 활동가 포럼, 비전 워크샵 등을 추진했다. 후속 활동으로는 활동가 네트워크, 협동조합 연구 등도 계획 중이다.

‘위드아시아’는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를 지난 해 5월 부산 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었다. 이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해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함께하는 세상’은 ‘한몽골 불교 네트워크 체험순례’를 진행했다. 몽골 스님들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뒤 조계사 봉은사 해인사 선본사 동화사 등을 방문했다. ‘사찰생태연구소’는 한글대장경을 토대로 10개월 간 연구한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목록 기초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보고 후 간담회에서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종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찬 함께하는세상 사무처장도 “인력이 원력을 세울 수 있는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혜경 스님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자”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사회부는 2012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2월 20일~3월 16일 사이에 접수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들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5대 결사의 각 분야별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남북불교의례 통합 추진된다

민추본, 이사회서 올해사업 확정
조불련과 구체적 방안 논의키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올해 남북불교의례통합과 불교통일교육 등을 추진한다.

민추본은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추본은 올해 주요 사업방향을 ‘남북불교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경색 해소’, ‘남북불교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불교 공존과 상생’, ‘불교계 통일활동의 대중적 저변 확대’로 설정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남북 불교 교류사업과 통일의식 확산사업으로 분류된다.

남북불교 교류사업으로는 ▷남북불교의례통합 ▷봉축행사 조불련대표단 초청 ▷금강산 신계사 낙성 5주년기념 성지순례 및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북녘불교문화재 보존보수 등이 추진된다.

남북 불교의례 통합은 반야심경 한글화 남북 공동사용과 남측의 불교의례를 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추본은 이를 위해 2월 조불련과 협의를 시작해 5월 봉축법요식에서 한글 반야심경 남북공동사용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북녘불교문화재 보존보수 사업에서는 금강산 신계사의 기와보수 작업과 내금강 서산대사비 보존보수 작업이 추진된다. 민추본과 조불련은 공동으로 3월 경 금강산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해 사업을 시행한다.

통일의식 확산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불교통일교육 〈불교와 통일〉 특강 ▷통일정토를 찾아서 떠나는 2012 평화기원성지순례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이 추진된다.

찾아가는 불교통일교육은 〈불교와 통일〉교재를 활용해 연중 8회 가량 실시될 예정이다. 민추본은 불교통일교육강사진을 구성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찰 불교대학에 특강을 제안할 방침이다.

통일정토를 찾아서 떠나는 2012 평화기원성지순례는 강화, 파주, 철원, 고성, 양구, 연천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8회 실시된다.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토론회는 연중 2회, 상·하반기에 실시될 계획이다.

민추본 관계자는 “올해는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통해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간절한 바람이 전해져 남북 간 대화가 하루 빨리 복원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감로수로 복 지으세요”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조계종이 판매하고 있는 생수 ‘감로수’ 홍보에 조계총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나섰다. 스님은 2월 9일 감로수가 판매되고 있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봉은사 신도 100여 명의 쇼핑카트에 직접 감로수를 넣어주며 구입을 권유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방문을 계기로 신도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수 판매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지만 승려노후복지제도 정착을 통해 종단 안정과 발전의 기틀이 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교계 밖 시민단체도 지원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가 올해부터 교계 밖 일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한다.

조계종은 그동안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불교시민사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공동선 예산을 통해 ‘시민단체연대회의’ 워크샵을 지원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 자체 예산 편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종단 공동선 예산 중 1500만원이 사회부 일반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고, 공동선 예산도 작년 3800만원에서 올해 4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사회부는 이를 통해 일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 9일 용산참사 대책위 방문시 자승 스님이 전달한 금일봉도 이 예산에서 지원됐으며 올해 첫 지원이다.

박기범 기자



일 주 문



파라미타 2012 지도자 연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2월 18~19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정기총회 및 지도자 연수를 개최한다.



실천승가회 2012 총회

실천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2월 16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실천승가회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불교환경연대 2012 정기총회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은 2월 23일 전법회관 4층 불교인재원 교육장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명예졸업식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2월 15일 '2012 지정평생학습관 카네이션학교 명예졸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국제포교사회 제17기 연수모집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2월 29일까지 제17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 교육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2월 15일~4월 1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과 하나 됨 3' 교육을 실시한다.

"무문관에 있으면 잠시도 방일 못해"

신흥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

무문관(無門關)은 문이 없다. 스님들이 화두를 안고 닫힌 공간에서 안거 기간 동안 '홀로수행'을 하는 곳이 무문관이다. 90일 간의 안거가 끝나는 날, 문 없던 무문관의 문이 열렸다.

한국의 무문관 선원은 근현대 무문관의 효시였던 도봉산 천축사와 갑사 대자암, 제주 남국선원, 백담사 무금선원, 감포 관음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안거에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에는 11명의 수좌스님들이 정진했다.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은 "해제는 공부를 놓는 것이 아니라 결제 중 일어난 경계를 선지식을 찾아 점검 받고 담금질 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영진 스님은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 무문관이 있는 무금선원, 향성선원 모두 새벽 3시 기상해 저녁 9시 방선까지 용맹정진 해왔다. 향성선원은 하루 4차례 10시간 입선하고, 아침·저녁 예불을 올린다. 두 곳 모두 입선 하거나 하루 세끼 먹는 게 일과의 전부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무문관에서는 공양물이 매일 들어가는 것 외의 출입은 없다. 입선·방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영진 스님은 "무문관에 들어오면 무엇 하나 나갈 수도 내보낼 수도 없다. 들어앉아만 있는데도 어김없이 공양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공양물이 들어올 때 파리 한 마리가 함께 들어왔는데, 파리가 절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삶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문관에 든 어느 날, 공양이 아주 늦게 도착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폭설을 헤치고 사미스님이 행여나 공양이 잘못될까 조심스레 머리에 이고 와서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읍소했던 모습,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공양이 늦었던 것은 당시 조실이던 숭산 스님의 열반 때문이었다는 것.

영진 스님은 "내가 무엇이라고 저 눈 속을 뚫고 공양을 전하는 지, 큰스님이 돌아가셔 경황이 없는데도 잊지 않고 공양을 챙겨주는지 울컥했다"며



"무문관에 앉아있으면 잠시도 방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진 스님은 이번 안거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입을 열면 수행을 그르칠까 걱정된다. 무엇을 얻었다고 입을 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꽃 한 송이를 꺾으면 그 영향이 달나라까지 미친다고 한다. 수좌들이 (자신의)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 무문관까지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은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일이며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진 스님은 "대승불교의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다(上求菩理下化衆生)'는 이념은 위대한 원력이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타인에 회향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올곧은 수행자 한 명이 나오면 세상의 목탁과 소금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돈봉투 파문에 대해 영진 스님은 "해제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범어사 일을 들었다. 선거제도는 개선하고 보완할 문제라고 평소부터 느껴왔다"며 "제도가 잘못됐다면 종법을 보완해야 한다. 불교계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총선·대선 관련 공청회 열기로

불기협 정기총회 열어 부회장단 감사 등 선출

불교계 기자들이 4월 총선·12월 대선 등을 앞두고 정당 관계자·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 정책을 듣는 행사를 마련한다. 또, 불교기자협회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추진 중이다.

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 이하 불기협)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외에도 불기협은 3월 24일 관악산 연주암 등반대회, 9월 중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 회원간 친목 도모에 힘쓰기로 했다. 신규회원사로 불교플러스 가입을 승인했다.

수석부회장에 홍진호 PD(불교tv), 차석부회장에 김현태 기자(법보신문), 내부감사에 김형규 기자(법보신문)를 선출했다. 외부감사는 차후에 선출키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인사〉

진각종 회당학원 인사 추천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은 2월 1일 서울 총인원 내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298회 원의회와 진각대학원 운영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위덕대학교 정교실장 무외 정사의 후임으로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 범주(불정심인당 주교) 정사,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에는 향덕(지정심인당 주교) 정사를 각각 선임했다.

선임된 인사는 학교법인 회당학원 측에 추천 양식으로 진행돼 인사발령된다.

신임 심인중고 정교실장 향덕 정사는 진기51(1997)년 여래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정제심인당과 옥정심인당 주교, 통리원 문화사회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밀교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원의회는 2012년도 제12기 심학과정 교육대상자로 능원(대명심인당 주교) 정사 등 10명과 제9기 교학과정 교육대상자로 효광(성진심인당 주교) 정사 등 6명을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외국인 참가자 5000명 늘릴 것"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 2012년 주요사업계획 발표

"올해는 내·외국인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전년에 비해 투자를 집중시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가 2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2012년에 외국인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년에 비해 외국인은 5000명, 내국인은 1만 명 이상 참가인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법정 스님은 ▷휴식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영어로 진행하는 담마클라스 등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600만원의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호텔 공항 여행사 대학 관공서 등에 홍보물 비치, 지하철 홍보영상, 항공사 책자 홍보, 전체 매뉴얼과 리플릿 제작, 배너광고, 모바일 웹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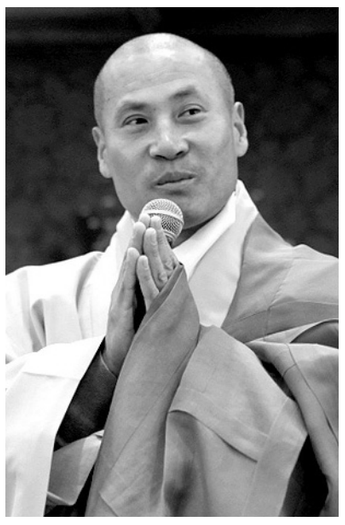
법정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이들의 지속적 소식과 결속을 위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정 스님은 국제선센터가 지역의 거점사찰로서 확고히 자리하기 위해 핵심신도 양성과 조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법회와 기도의 활성화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양시키고,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종단의 핵심신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문화·포교 프로그램, 직능법회, 어린이·청소년 법회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법정 스님은 "불교사상과 교리에 근거한 다양한 문화강좌 교육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면 국제선센터는 행복한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선센터 국제차장에 명법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명법 스님은 1994년 성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수지했으며, 운문사 승가대학과 운문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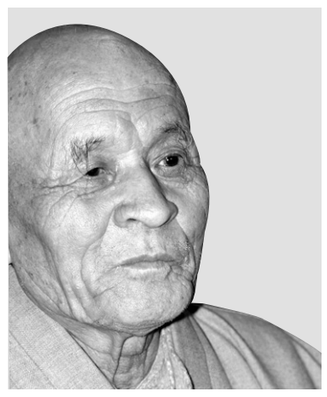
만월정사 조실 성공 스님 입적

세수 87세·법랍 72세…10일 통도사서 다비식 엄수

염불 독송 문화를 대중화시킨 부산 만월정사 조실 성공 스님이 2월 6일 오전 5시 입적했다. 법호는 만월, 세수 87세, 법랍 72세. 스님의 장례는 문도장으로 5일간 치러져 다비식은 10일 통도사 다비장에서 엄수됐다.

성공 스님은 1973년 한국 불교 최초로 〈금강경〉 독송 테이프를 제작·보급했다. 이후 〈천수경〉 〈아미타경〉 〈부모은중경〉 등 독송 테이프를 내며 불자들의 신행문화를 견인한 바 있다.

성공 스님은 1926년 경남 양산에서 출생했다. 1941년 선산 도리사에서 운암 스님을 계사로 출가해 같은 해 운봉 스님에게 사미계 수지, 194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48년 통도사불교대학에서 대교과를 마친 스님은 1949년 동래 포교당 법륜사에서 화엄산림 법사로 추대돼 전국 각 포교당에서 화엄·법화·금강 등 여러 경전 산림에서 법사로 활동했다.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하는 등 수행에도 빈틈이 없었던 스님은 충무포교당·충무 용화사·울산 포교당·진주 연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또, 1971년 부산 안양사에 주석하면서는 경전 독송 테이프를 제작·보급을 시작했다.

성공 스님은 2003년 부산 관음사에 주석하면서 사회복지법인 관음원을 설립하고, 무량수노인요양원을 건립했다.

조동섭 기자

본원종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7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교육기간
▣ **입 교 식 :** 2012년 3월 2일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청게, 요잡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종 총무원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3-6340

테라와다 법석(法席)

◈ **개설 취지**

테라와다불교는 2555년의 역사와 함께 스리랑카·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인도·유럽 미국·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부처님의 정법에 기반하여 올바른 삶을 지향하고 있는 전통적 근본불교 교단입니다. 2009년 10월 한국테라와다불교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금구(金口)로 설하신 근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테라와다 법석』을 개설합니다.

◈ **법석 내용**

① 테라와다(근본불교) 교리강좌
② 수행의 이론과 실제 : 실수행 및 면담지도
③ 초대설법 - 테라와다 고승 초청 법문 (예정)

◈ **법회시간 및 장소**

① 2012년 3월 9일(입재법회) ~ 12월 14일(해재법회)
② 교리강좌 : 매월 <1,3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③ 수행의 이론과 실제 : 매월 <2,4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④ 초대설법 : <5주째 금요일> (6월, 8월, 11월)
⑤ 법회장소 : 서울 남산 (재단법인)대원정사

◈ **동참 대상**

테라와다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모든 출·재가자 및 일반인

◈ **접 수**

① 동참금은 없습니다.
② 동참하실 분은 미리 전화접수 바랍니다.
③ 접수전화 : 010-4546-2840 / 011-9135-8277
④ 홈페이지 : http://www.theravada.kr(한국테라와다불교) 참조하세요.

한국테라와다불교
Theravada Buddhasāsana in Korea



범부가 부처, 그들의 삶이 경전

신묘년 동안거 해제 현장을 가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 해제 법문



2월 6일 신묘년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조계종 전국 100여 선원에서 2500여 수좌스님들이 세상을 만났다. 중국에서 심인(心印)을 얻어 양양 진전사에 처음 선법을 펼친 조계종조 도의 국사 선풍이 조계종 종정이던 고암 스님과 성준 스님을 거쳐 現 조실 오현 스님에게로 올곧이 살아있는 백담사 무금선원과 신흥사 향성선원의 70여 수좌스님들도 선방 문을 열었다. 이번 동안거에는 무금선원 무문관에 11명, 향성선원에 14명, 기본선원에 46명의 스님들이 정진했다.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이 2월 5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린 신묘년 동안거 해제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스님은 평소 법문대신 격외도리를 말했으나, 이날은 오랜 시간 대중을 위해 법문 했다. 특히 이번 법문은 무산 스님이 2011년 8월 하안거 해제법회때 조실로 추대된 이후 첫 법문이다. 신흥사는 다른 사찰과 달리 매 해제 전일 해제법회를 열고 있다.

"스님, 살아가는 의미가 뭡니까?

무산 스님은 한 스님이 포교당을 개원법회라고 불러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간 일이 있다며 한 노파와의 대화를 소개했다.

"한 늙은 할망구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더니 나를 빼꼼빼꼼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스님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스님도 파삭파삭 늙었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사는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사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스님은 그 질문 끝에 바로 말문이 막혔다고 회고 했다.

"80년을 살면서도 어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 나는 몰랐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는가?" (좌중이 고요했다.)

무산 스님은 "여러분도 모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는 이가 한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쫓겨날 뻔 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무문관서 개구멍으로 밥 한술 넣어주는 것만으로 3개월 징역살이를 하거나, 40~50이 선원 큰방서 매일 같은 반찬을 먹으며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돈·명예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를 구하려 앉아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오늘이 해제인데, 해제는 해방이 아니다. 산중에 가부좌 틀고 앉아있던 것보다 더 큰 고행이 기다리는 것이 해제이다"라며 "해제하면 53선지식 친견을 위해 길을 나섰던 선재동자처럼 여러분도 산문을 나가 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 선지식에게서 내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산 스님은 "나도 젊었을 때는 선지식이 명산대찰, 천년고찰, 산중 수행처, 백운유수처에 있는 줄 알았다. 공자는 '50세면 안다(知天命)' 고 했는데 나는 50세 까지도 몰랐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스님은 "(80의) 내가 보는 세상과 (젊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다르다. 나는 대학도 안나왔고, 운전도 못한다. 여러분이 나보다

수행은 생사문제 해결 위함
해제는 수행 쉼 아닌 점검
'내가 모르는 세상 있다' 알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구하라

더 잘하는 게 많다. 나는 할 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만은 안다. 여러분도 자신이 아는 세계 보다 모르는 세계가 무진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옥·극락이 있기는 합니까?"

스님은 예전에 만난 늙은 염장이와의 대화로 법문을 이어갔다. 스님은 "그 염장이 영감은 시신을 자기 마누라 다루듯 소중히 염을 했다. 마지막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살다가도 죽으면 무섭다며 곁에도 안가는데 저 염장이는 어찌 저럴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염장이 영감에게 물어봤다. 얼마나 염을 했냐고 물으니 40년 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정성을 들여 하느냐고 물었다."

염장이영감은 스님의 질문에 "산사람은 남녀노소 등 구별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남녀노소·지위고하 구분 없이 시비가 끊어진다. 산사람이 무섭지 죽은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시신을 보면 마치 내 자신의 지신을 보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스님에게 되묻기를,

"스님들이 죽은 사람에게 먼 곳에 불국토가 있다며 그 곳에 나라고 기도하던데 참말로 지옥·극락이 있습니까?"

무산 스님은 "염장이영감의 질문 끝에 동서남북 사방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법문하면서 10만억 유순 떨어진 저 멀리 극락정토가 있다고도 했고, 마음이 극락이라고도 했다. 그 질문에는 명하니 은산철벽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염장이영감은 스님에게 시신을 보면 세상을 후덕하게 살았는지, 남에게 못할 짓을 하며 살았는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잘 살다 죽은 시신은 대충 염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다. 잘 살지 못했던 시신과 대화해보면 '남들처럼 내 가족 호강시켜 주려고 했다. 다른사람 자꾸 울리면 내 울화통 터져 극락못갑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 내 자신·엄마·형제·친구 같은 그들에게 정성을 쏟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염장이영감은 "나는 내 마음이 편하려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염을 해왔는데 스님 눈에는 시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니 부끄럽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했다.

무산 스님은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는 염장이영감의 말에 내가 더 부끄러웠다. 염장이영감이 선지식이고 그의 이야기가 대장경이다. 생노병사·제행무상·화엄·법화·조사문답과 어록 등이 모두 염장이영감의 말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골동품 아닌 살아있는 경전을 찾아라"

무산 스님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골동품일 뿐이다. 좋게 말해야 문화재이다. 대장경 속에 억만 창생이 빠져 죽었다. 그 속에서는 건질 것이 없다. 건져도 건져내도 견져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500년 불교사에서 대장경을 읽고 그 속에 빠져 죽은 중생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진리이다. 대장경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고, 어떻고…. 도대체 부처님이 어떻다는 것이냐. 이것을 버리는 날이 해제날이다."

스님은 "법회가 끝나면 여러분은 선지식을 찾아 나선다. 세상 속 중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 선지식을 찾고 가르침을 구하라.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살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상 속에서 문수의 지혜를 배우고 보현의 행원을 배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선지식은 내 주변에 있어
공양주 보살부터 선지식으로
무無자 화두 등은 조사의 그물
옭죈 고삐 풀고 대자유인 돼라

무산 스님은 당장 스님들과 가까이 있는 공양주보살·부목처사부터 선지식 대하듯 하라고 했다.

"절간에 부처가 있나? 절간은 스님들 숙소이지 부처는 한 놈도 없다.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공양주가 하고, 처사가 한다. 그들을 선지식으로 받들어 모셔라.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그들이 문수고 보현이야."

스님은 "전강 스님은 30대에 깨달음을 얻었다. 경허 스님은 한 철 만에 깨달았고, 만해는 선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깨달았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천 년 전 중국의 육조·조주·백장·남전 등 할 일 없는 늙은이들의 넋두리에 코가 꿰어 사는가?"라고 물었다.

무산 스님은 "'차나 한잔 들고 가게나(喫茶去)'를 비롯해 법이 있느냐·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無)'라고 답한 것 모두 조주 늙은이가 친 그물이다. 삼처전심 분반좌 어쩌고 하는데 지금은 초고속인터넷 세상이고,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다. 자신을 옭죈 고삐를 풀고 대자유인이 돼라"고 말했다.

"더 솔직하게 진정성 키워라"

스님은 수행자의 덕목으로 대신심(大信心) 대의정(大疑情) 대분심(大憤心)을 강조했다.

스님은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설하면 삿된 법도 정법처럼 되고, 삿된 사람이 정법을 설하면 정법은 모두 삿된 법이 된다(正人說邪法 邪法悉歸正 邪人說正法 正法悉歸邪)"는 〈금강경오가해〉 중 야부송을 소개하며, "좀 더 솔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문에 앞선 4일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안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신흥사 조실 설악무산 스님은… 어릴 때 절간 소머슴으로 입산해 1959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0~1966년 밀양 금오산 토굴에서 정진한 뒤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신흥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신흥사 선원장으로 주석하며 신흥사 향성선원, 백담사 기초선원 및 무금선원(무문관) 등을 개원했다. 스님이 개원한 백담사 무금선원과 기초선원에서는 문경 봉암사 다음으로 많은 수좌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도의 국사가 중국에서 선법을 도입해 창건한 조계종 종찰 진전사를 복원했다.

스님은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심우도〉 〈절간 이야기〉 등 작품집이 다수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통해 만해 스님의 뜻을 기려왔다.

이같은 공적으로 조계종은 2011년 10월 무산 스님에게 제23회 포교대상을 수여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 /방수등표大 판매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22㎝
• 100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공단등(6㎝) @2,5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0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5,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0,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6㎝) @2,5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0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5,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0,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 @80,000원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비 단 접 등(10.5㎝) 340,000원(100개)
• 비 단 접 등(12㎝) 350,000원(100개)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방수전선(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65,000원 | 50㎝ 1m / 2m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A형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LED전구 B형 160,000원 1BOX : 10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5W/8W) @45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교구별 법인 모아 불교사회 복지 확산

조계종 복지재단, 2012 신년 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종단 교구본사 복지법인 연합회'를 조직해 불교 사회복지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재단은 교구본사 기반의 불교사회복지 성장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재단 조직 시스템 개편 통한 영역별 산하시설 집중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비나눔 확산,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심성계발, 해외개발구호사업, 불교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종선 스님은 "25개 교구본사 중 복지법인이 설립된 11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교구본사 법인 연합회를 구성해 종단 차원의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운영 중심축을 구성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 방문, 교류, 상담을 통해 교구본사 기반의 불교 사회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 및 법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재단은 조직 시스템을 ▷복지경영부 ▷복지지원부 ▷기획관리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개편해 한 부서에서 운영하던 150여 산하시설을 영역별로 세분화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종선 스님은 "분과별 집중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 개편 및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사회적 동향 및 지역 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최근 자살·왕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고심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재단은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복지 전담인력 부족 사찰 지원
150 산하시설 영역별 관리
청소년·다문화가족 돕기도 확대

2012년 주5일제 수업 전면 도입에 따른 토요일 체험활동 강화한다. 또한 재단 산하시설과 연계해 청소년 심성계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2월 21일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도 준비 중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재단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정 결연후원과 다문화가족대축제를 실시, 사회·정서적 지원을 도모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 중 '나눔 결사'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2년에도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사진은 2009년 여주 신륵사에서 진행된 의지나눔 캠프

자비나눔 확산 캠페인 '만행'을 활성화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3000배 철야정진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나눔결사를 해외로도 지속·확산 시켜 동국대의료원, 소방방재청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재단은 이를 통해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의 조직을 전문화하고 긴급 재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불제자로서의 자비행 실천도 중점 추진된다. 복지재단은 강원도 교구본사 중심의 불교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을 연계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파견할 계획이다.

불교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정신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자비명상, 마음챙김에 기반한 불교 수행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제시와 불교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논하는 미래복지포럼과 불교사회복지포럼도 각각 연 2회씩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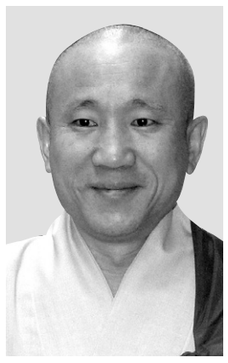
종선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올해 조계종 핵심 과제인 '국민의 행복과 평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동선 실천에 주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재단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내적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올해 모금 목표액 100억원

2012년 주요사업계획 발표
정기후원자 1만명 모집 목표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2012년 주요사업 및 목표'를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 총무원장 혜일 스님(사진)은 창립 4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보다 많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월 10일 인사동 템플스테이 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정기 후원자 1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님오신 날 일주일 전부터 거리 모금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불자들에게 자비와 나눔 정신을 고취시키고 정기 후원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 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청소년 문화교육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별해 한국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를 돌며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해외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견학 추진을 준비 중이다. 문화재 견학에는 삼성그룹이 2억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 해외지역 지원에도 나선다. 아름다운동행은 지금까지 해외 지원을 유니세프 등 타 단체를 통해 지원해왔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프리카 등 먼 나라의 지원이 미흡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 원조를 다른 자선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도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 온난화 방지 등 환경보전사업도 실행할 예정이다.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환경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종단 먼저 차량이용자제하기, 사무실 온도 낮추기, 환경 보호 연구단체 후원하기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미혼모·새터민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북한 어린이 돕기 지원 사업도 꾸준히 실행할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내 도움은 물론 각 분야의 전담인력 확충과 기업들의 참여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원자 모집이 절실하다. 부처님의 자비심과 원력에 의지해 추진해가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ARS후원 : 060-700-0011
후원 문의 : 02-737-9595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천태종 명락사, 다문화가정 윷놀이

대보름 맞아 내국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

천태종 명락사(주지 김무원)가 다문화가정과 내국인들의 화합을 위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대보름 맞이 윷놀이'를 2월 5일 실시했다.

명락사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윷놀이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고유 세시 풍속을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명락사와 다문화 가족 자립시설 명락빌리지, 천태종, 금강신문, 글로벌문화교류포럼이 함께 마련했다.

명락사 관계자는 "글로벌 사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립 시설인 명락빌리지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락사는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제2대 종정 대충대조사가 낙점한 관악산 끝자락 도심에 위치한 사찰이다. 승속일체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재가신도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기도 도량으로 24시간 법당을 개방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명락사에서 2월 5일 내국인과 다문화가족간에 진행된 윷놀이 풍경

자비나눔 실천하는 '진각복지'

사랑의 헌혈릴레이 올해도 개최
노인복지기금 마련 바자회 예정

진각복지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 정사)은 설립 14주년을 맞아 '제2회 진각복지 사랑의 헌혈릴레이'를 2월 17일 진각복지센터 1층 물리치료실에서 개최한다.

헌혈문화확산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랑의 헌혈릴레이는 2011년 처음 실시됐으며 당시 130장의 헌혈증을 모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나석원)는 3월 12~16일 진각종 주차장에서 노인복지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실시한다.

바자회에서는 백화점과 동대문종합쇼핑몰에서 기부 받은 다양한 브랜드 의류와 먹거리가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함께 참여해 금융컨설팅도 무료로 진행한다.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2)911-1086 **이나은 기자**

지구촌공생회-올레그룹 협약 체결

리조트 상품 수익 1% 지원
국제개발구호사업 활성화 기대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가 올레그룹(회장 최석군)과 후원협약양해각서(MOU)를 2월 10일 체결했다. 후원 체결에 따라 지구촌공생회의 국제개발구호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과 올레그룹 최석군 회장, 김민준 이사 등이 참석했다. 리조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올레그룹은 자체 리조트 상품 '로얄패밀리'의 판매 수익금 1%를 지구촌공생회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석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를 껴안는 자비실천을 지구촌공생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국내 최초 불교명상학 박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서…서현희 · 이춘호 · 정순영 등 3인

최근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명상의 효용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최초 불교명상학 박사가 배출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명상학을 전공한 서현희(60), 이춘호(67), 정순영(57) 등으로 이들은 2월 졸업식에서 불교명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지도교수 정준영 교수는 "국내 최초 명상학 박사학위 수여자"라며 "단순 문헌연구에 그치지 않고 임상 등을 가미한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서현희 박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불교학을 공부했다. 논문을 통해 답을 찾으려 했고, 깨달음은 '남김 없는 번뇌 제거' 라는 것이 그가 구한 해답이었다.

빨리 문헌에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이다.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 아라한이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할 많은 번뇌들이 전제된다. 이 가운데 열 가지 족쇄는 사성인의 과위(果位)를 구분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서 박사는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 · 의식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의 탐욕과 악의 ▷감각적 욕망의 탐욕과 악의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명 제거 등 열 가지 족쇄를 제거한 사성인(四聖人)을 집중 분석했다.

이춘호 박사는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정법회 거사림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학위청구논문 '한국 명상가들의 절정체험과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를 통해 25년간 각종 명상을 수행해 온 그는 자신의 수행과정을 논문에 담았다.

이 박사는 논문을 통해 용타 스님, 이원규, 이승우, 이구상, 혜봉, 이여명, 수연당, 김경식, 민형기, 묘원, 나병성, 김연수 등 간화선 동사섭, 마음수련, 아봐타 등 한국 대표 명상전문가들을 분석했다.

이춘호 박사는 "많은 수행자가 인생 고에 직면해 명상처를 찾게 된다. 깊은 명상 중에 경험하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 · 공간을 잊고 무아를 경험하거나 공을 체득하는 것에서부터, 정묘한 빛과 소리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춘호 박사는 절정은 영적 존재를 친견하는 축복과 깊은 이완과 전생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보거나, 꿈속에서 꿈꾸는 자기를 의식하는 자각몽, 신체의 원초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로 폭발해 승화하는 쿤달리니 체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했다.

이춘호 박사는 "요즘 정년이 빠른 시대라고들 하지만 공부를 하며 세월을 잊고 살았다. 이모작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학업에 매진해 성과를 얻었으니, 이제 후학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회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간호사인 정순영 박사는 '정신분열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상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정 박사는 명상 시도에 많은 주의를 요하는 정신분열병 환자에 주목해 이들을 임상실험했다. 정순영 박사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명상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증상 완화, 불안 ·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명상을 통한 정신분열 환자 치료를 위해 프로그램을 정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희 · 이춘호 · 정순영 박사는 (가칭) 명상학회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명상학개론〉 집필 등을 통해 공동연구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불교명상학 1호인 서현희 · 이춘호 · 정순영 박사(왼쪽부터)

'인생 이모작' 만학 결실
학회 구성 · 개론 집필 계획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금속활자 12~13세기 초 한국서 처음 만들었다

김성수 교수, 금속활자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지난해 '증도가자(證道歌字)' 발견 이후 '증도가자' 가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1337)보다 앞선 금속활자라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에 이어 증도가자의 '최고' 를 주장한 이는 김성수 청주대 교수이다.

김성수 교수는 2월 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려의 금속활자와 세계 인쇄사의 재조명' 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 금속활자 주조의 시원 시기는 고려의 동전 '해동통보' 가 주조된 1102년부터 '증도가자' 가 주조돼 인출된 13세기 초기 사이의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김 교수는 지난해 공개된 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주목했다. 탄소연대 측정결과 증도가자의 글자 획 사이에 잔존하는 먹의 생산연대는 1160~1280년이었다.

김성수 교수는 "증도가자가 13세기 초기의 진품(眞品) 금속활자라는 가정 하에 시원을 규명한 결과 국내에서 금속활자가 처음 주조된 시기는 12~13세기 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고려 시대 문인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 증도가자로 인쇄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교수는 "〈동국이상국집〉은 당시 무신최고권력이던 최이의 명령에 의해 간행돼 관주활자인 증도가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사찰도 세계문화유산 될까?

16일, 사찰조경硏 학술조명

한국 전통사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이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무엇이 필요한가' 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요건과 한국의 불교사찰' ▷문동규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연구원이 '지리산의 불교유산-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문제' ▷허준 우석대 교수가 '지리산 사찰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등을 주제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정중(靜中) 아닌 동중(動中)이어야"

이평래 명예교수, '불교와 요가' 워크숍서 주장

"동중(動中) 수행이 정중(靜中) 수행보다 최고의 지혜 구현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다."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2월 3일 한국불교학회와 불교학연구회가 공동주최한 동계 불교학 공동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日 임제종 하꾸인(白隱; 1685~1768) 선사의 활력선(活力禪) 수행사례를 소개하며 건강과 정신의 청정성을 일체화시키는 수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평래 명예교수는 "조신(調身) · 조식(調息) · 조심(調心) 세가지 요소를 하나로 통일해 조화의 극치를 형성하는 것이 진리해탈을 향한 수행의 요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80세까지 전법활동을 했던 부처님은 지혜 · 건강의 상징이다. 정토구현을 위해서는 사회현상까지 탈바꿈시켜야 하는데 정중수행만으로 진정한 삼매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요가 실수' 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강사로 나선 소휴 스님(조계종 가사원 국장)은 "신체는 훌륭한 사원이고 이 사원이 무너지면 정신세계로의 소통이 막힌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 기후변화 대비 절실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정책학회는 2월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유산과 기후변화' 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시자키 다케시 日 도쿄문화재연구소 부소장, 다이안 더글러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위기관리대응위원회 위원, 이동흡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보존연구실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다이안 더글러스 위원은 주제발표 '문화유산 안전관리의 경험에 대한 교훈과 도전' 을 통해 "문화유산 자원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책팀에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자키 부소장은 주제발표 '기후변화가 아시아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 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등이 심해지고 있다. 강우에 의한 탄산염 결석 등 문화유산 훼손을 막으려면 환경적인 요소들을 주시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흡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보존연구실장은 목조문화재에 치명적인 흰개미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서식 북방한계선을 매년 북쪽으로 끌어올리며 그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을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봉암사 일주문 문화재 지정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월 9일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의 일주문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봉암사 일주문은 19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포계 맞배지붕 형식의 건물로 '궁(弓)자' 형태의 보조기둥 등이 제대로 보존돼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조동섭 기자

2013년 문화유산 한 곳서 만난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통합서비스 사이트 구축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 곳서 만나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사진 · 동영상 콘텐츠, 학술자료 등)의 생산?관리?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 일원화해 누구나 문화유산 정보를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정립, 시스템과 서비스 기획을 진행했다. 올해는 기록정보 통합 디지털 저장소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통합정보제공 시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기록정보는 문화재 관련 기본정보 습득, 수리 · 복원,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문화적 측면에서 영구보존가치를 지닌 국가자산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 문화유산 기록정보를 분산 · 관리해 정보의 품질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랐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영구보존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와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53)581-0232 / 053)581-0233
054)974-2605 / 011-544-2605



영 남 전 통 범 음 · 범 패 교 육 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0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2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지역불교 일꾼들에 작은 정성 전합니다”

금선사 · 비전사 등 십시일반 지역 불교계 단체 등 지원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요.”

광주지역 사찰들이 입춘기도 때 부처님 전에 올린 쌀을 지역 불교단체를 통한 자비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금선사(주지 일명)는 입춘기도를 맞이해 신도들이 올린 찹쌀 1000kg과 동전을 모은 자비의 저금통 200여 개를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불교계 단체에 2월 4일 전달했다.

자비의 쌀과 동전은 자비신행회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외국인근자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 등에 전달됐다. 각 단체들은 사업을 통해 이웃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명 스님은 전달식에서 “정월과 입춘은 예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 이번 기도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교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계 사회단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찰과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선사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등 불교의 자비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사랑의 밥차’ 운동은 2009년부터 일명 스님과 신도 등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으며 지역 재래시장 노점상인 등에게 도시락을 제공했다.

비전사(주지 보혜)도 입춘을 맞아 신도들이 공양올린 자비의 쌀 1900kg을 불교계 단체와 인근지역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또한 스리랑카에서 유학 온 딧사 스님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남을 돕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이다. 비록 많지 않은 양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밥상에 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용아지역아동센터, 하나효사랑노인복지센터, 드림스타트, 효사랑케어, 월곡2동주민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등은 외국인 근로자, 독거노인에게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비전사는 2011년에도 자비의 쌀을 두암동 지역아동보호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2010년에도 월곡2동 주민 센터 등 지역 내 기관에 자비의 쌀을 전달하는 10여 년 간 1만 3000kg의 쌀을 지역사회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지역 주민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는 일명 스님

속초노인복지관, 복지사업에 날개 달다

한화호텔&리조트 지원 선정 부럼 나눔 행사도 ‘인기’

속초시 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이 한화호텔&리조트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에 선정됐다고 2월 6일 발표했다.

한화호텔&리조트의 사회공헌사업 선정으로 속초노인복지관은 올해 2월~12월까지 매달 50만원씩 5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한지공예, 정보화 강좌 등에 사용된다.

또한 한화호텔&리조트에서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정기적으로 직원이 직접 복지관으로 찾아와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호텔&리조트의 워터피아에서 목욕서비스도 실시된다.

한화호텔&리조트는 지난해에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속초 복지관의 클레이아트 수업을 지원한 바 있다.

속초 노인복지관은 또 정월대보름을 맞아 무사태평한 한 해를 비는 부럼 나눔 행사를 6일 복지관 1층 경로식당에서 실시했다.

부럼 나눔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곡밥과 나물 등의 점심메뉴도 선보였다.

어르신들은 식사 후 부럼을 깨물며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했다.

속초노인복지관 관장 묘근 스님은 “이번 부럼 나눔 행사를 통해 2012년 어르신들의 무사태평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대보름을 맞아 속초시 노인복지관 봉사자들이 지역 노인들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대접하고 있다.

“법음 더 멀리 퍼지길” 방송포교기금 100만원

대구 운불련 대구BBS에 전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가 방송포교기금 100만원을 대구불교방송에 기탁했다.

대구 운불련 김주본 회장은 2월 9일 대구불교방송을 방문해 방송포교를 위해 써달라며 김종천 방송부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1986년 창립한 대구 운불련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기치로 내걸며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대구지역 최대 직능 불교 신행단체이다.

대구 운불련은 그동안 시각장애인 차량봉사지원은 물론,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복지기금 및 노인 경로잔치 후원, 수재민 돕기 등 자비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곡학원 법인 설립 후 두 번째 졸업식



동곡학원 선화여고가 2월 9일 졸업식을 마련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 “큰 꿈 펼치길”

재단법인 동곡학원(이사장 돈관)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교장 이대웅)가 2011학년도 제24회 졸업식을 동곡관에서 2월 9일 실시했다. 동곡학원 설립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졸업식이다.

졸업식에는 법인을 설립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의 스님들과 영천 지역 기관 · 단체장,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됐다. 식순에 따라 졸업장, 상장, 장학증서 수여에 이어 학교장 회고사, 재단 이사장 겸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돈관 스님은 “학생들이 큰 꿈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멋진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그 때까지 아낌없이 후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졸업식에서는 학교장상 6개 부문, 재단 이사장상 , 총동창회상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려운 이웃과 함께… 쌀 152포 기부

대구 달서구 하정국 불자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문정세무법인의 하정국 대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20kg 쌀 152포를 전달했다.

평소 신심이 깊은 하정국 대표는 취임식에서 축하화환 대신 쌀을 기증 받은 뒤 아름다운동행에 2월 9일 전달해 왔다.

하정국 대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아름다운동행이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팔공산 동화사 문화재 방재 소방훈련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문)가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동화사는 2월 10일 경내 곳곳에서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박기범 기자

지역단신

금산사 입춘기도 입재

전북 금산사(주지 원행)는 입춘기도법회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4일 봉행했다. 입춘기도법회에서 원행 스님은 “염불은 큰 공덕이다. 항상 지니고 익히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염불을 열심히 행하면서 마음을 항상 정갈하게 하고 선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은해사 차 문화 강좌반 모집

대구 은해사(주지 돈관)에서는 차 문화를 이해하며 마음공부를 함께 하는 차 문화 강좌반을 모집 중이다. 차 문화 강좌반은 다도 공부와 함께 사찰 행사 봉사활동, 초파일 및 개산대재 육법공양 시연의 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수시로 접수 중이며 행다실습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은해사 경내에서 실시된다. (054)335-3318

통도사 제8회 작은 전시회

경남 통도사(주지 도명)가 통도사에 전래되는 떡살을 주제로 제8회 작은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회는 성보박물관 2층에서 2월 7일~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떡 하나에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했던 통도사의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3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 북 교 구 종 무 원

무명종자 습기 제거 위해서는 꾸준히 닦아야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⑤

견성체험

깨달음, 견성(見性)이란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보조국사는 성품을 텅 비고 고요하며, 신령한 앎[空寂靈知]로 정의한다.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성품을 반드시 초월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는 않는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이나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특정한 행동양식도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수심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법이 있다.

범부가 시작도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윤회의 길에서 태어나 오고 죽어 가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고 잘못된 생각에 넘어지는 무명(無明) 종자의 습기를 오랫동안 성품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자기의 성품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다. 팥을 심으면 팥이 생겨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팥은 팥의 성품이 있고, 콩은 콩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성품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무명종자의 습기[無明種習]을 자기 성품으로 삼아왔다는 구절이 보인다. 무명이란 깨어있음의 결여를 말한다. 알아차림이 없고, 지혜가 없는 집착된 상태이다. 종자란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8식 알라야식의 종자를 말한다. 종자는 과거의 반복된 행위의 결과로서 앞으로도 역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잠재적인 기운, 습기(習氣)을 말한다.

종자는 크게 분류해 업(業)종자와 불(佛)종자로 나눈다. 업종자는 무명의 습기에 기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의 윤회에 빠져들게 한다. 이것은 본래의 성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자기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삼아왔다. 반대로 부처의 종자는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이끌고, 궁극의 깨달음에로 이끌고, 해탈의 세계로 이끈다.

우리가 견성이라고 했을 때, 이때 본다고 하는 성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업종자인가? 아니면 부처의 종자인가? 일단 이들 양자를 모두 말한다. 업종자를 보면 부처의 종자를 함께 본다. 그러나 이점은 매우 미묘한 차이점이 있고, 또한 여기에 결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먼저 업종자를 보면, 그곳에서 발생되는 고통과 원인을 본다. 고통과 그 원인을 보면 고통의 소멸을 경험하면서 부처의 종자가 드러난다.

일반상담의 경우에도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을 발생시키는 행동패턴을 먼저 보게 하고,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선명하게 통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고통의 소멸이 그대로 영적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반상담은 영적 · 초월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인 적응을 강조한다. 반면에 영성에 기반한 명상상담은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체험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 않으면 영성체험이나 깨달음은 일종의 지식이 되거나, 사회적인 또 다른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회광반조

무명의 업종자와 부처의 종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 기준점은 회광반조(廻光返照)에 있다. 아래의 문답은 좋은 사례이다.

"까마귀가 울고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듣습니다."

"그대는 듣는 바로 그 성품[汝聞性]을 돌이켜 들어 보아라[返聞]. 거기에도 또한 다른 많은 소리가 있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이 모두 없습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이것이 바로 소리를 관하여[觀音]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 모두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미 없다면 허공이 아닌가?"

"원래 공(空)하지 않고, 밝고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무엇이 공하지 않은 바탕인가?"

"모습(相)이 없으니, 말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모든 부처와 조사의 목숨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여기의 반조(返照)를 통해서 내담자는 지금까지의 회피와 저항을 벗고 진정으로 자기 내면에서 경험적인 수준으로 영성을 체험한다. 이것은 신령한 본성을 체험하는 네 번째 깨달음의 단계이다. 일체의 분별이 없고 고요하니, 공적(空寂)이 아닌가? 또한 텅 빈 가운데 밝고 밝으니 신령한 앎의 영지(靈知)가 아닌가? 그러니 다시 의심하지 말라.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결과이다. 물론 마조와 무업의 문답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내담자가 영성을 극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는 상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은 '듣는 바를 돌이켜서 들어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반조이다. 새소리의 분별은 의식이 밖으로 향한다. '저것은 까마귀소리이다' 이것은 일상의 적응적 수준이기도 하고, 충분하게 깨어있는 신령한 앎이기도 하다.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저것은 까마귀 소리이다'라는 분별은 업종자에 의한 언어적인 판단이다. 이것은 일차적인 대상 분별이다. 이 판단은 옳은가? 그른가? 일상에서 이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능력을 반복하여 검증하고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이점은 매우 적응적이고 일상적이면서 세속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대는 듣는 바로 그 성품[汝聞性]을 돌이켜 들어 보아라[返聞]'고 한 점이다. 이것은 언어적인 분별과는 다른 영역이다. 귀의 성품은 듣는 일이다.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귀의 성품은 듣는 일이다. 이때 '그것은 까마귀소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내용이다. 성품 자체를 돌이켜서 보는 견성(見性)의 행위는 아니다. 새소리를 듣는 것을 듣는 것은,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으로서 신령한 앎을 깨닫는 견성체험이다. 이곳에는 어떤 분별도 없고, 깨어있는 의식만이 존재한다. 이 깨어있는 의식을 불성이라 부르고, 본래면목이라 부르고, 영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부처의 종자이다. 이것은 물들지 않는 본래면목이다.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서로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성, 영성, 불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상의 중생에게 적고 성인에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평등한 지혜로서 질문하고 듣는 그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된다. 알고 모른다 하는, 이 마음이 부처이다. 이것을 떠나서 별도로 부처가 없다.

사후점검

제5단계는 점수로서 사후점검의 영역이다. 견성체험으로 돈오를 했다지만 오랜 세월 무명업의 종자로 살았기에 부처와 다르지 않지만 여전히 번뇌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온전하게 부처의 종자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돈오 이후에도 여전히 점수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분별은 업종자에 의한 언어판단
돈오해도 불성 드러나지 않아
사후점검으로 점수 필요
자기통찰의 지혜 공부가 관건

범부가 시작도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윤회의 길에서 태어나 오고 죽어 가면서, 나라는 생각에 굳게 집착하고 잘못된 생각에 넘어지는 무명(無明) 종자의 습기를 오랫동안 성품으로 삼아왔다. 비록 오늘에 와서 자성을 돈오하여 본래 텅 비고 고요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는 줄을 알지만, 단박에 제거하기 어려워서, 순(順)경계와 역(逆)경계를 만나서 성을 내고 기뻐하고 옳다 하고 그르다고 번뇌가 치열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은 돈오점수를 주장한 이유이다. 돈오했지만 업종자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더욱 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부처의 종자를 가진 까닭에 이곳에서는 분명하게 곧 마음의 평화[定]와 내적인 통찰[慧]이 본래로 갖추어져 있다. 정혜는 영적인 지표인 공적(空寂)과 영지(靈知)와 동의어이다. 단지 경험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공적과 영지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영성을 체험하는 수행과정을 말할 때는 정혜란 용어를 더 잘 사용한다.

여기서 보조국사는 정혜를 자성정혜(自性定慧)와 수상정혜(隨相定慧)를 구별한다. 자성정혜는 새롭게 개발되는 측면보다는 본래 내재된 인간의 보편적 자질로서 자성에 갖추어진 특질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일상의 삶에서 대상에 작용을 할 때는 수상정혜란 용어를 사용한다. 곧 대상을 따르지만 본래의 정혜를 잃지 않는다.

일반상담에서 보면, 사후점검이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통찰해 큰 번뇌는 사라졌지만, 일상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고통과 번뇌가 생겨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스승과 함께 내적인 자기 통찰에 의지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먼저 〈수심결〉에서 보여주는 명상상담은 간화선의 화두에 의해서 촉발된 회광반조에 의해서 불성을 자각하고 깨닫는 과정이다. 둘째로 이 과정은 '문제제기 → 회피 → 회광반조 → 깨달음 → 사후점검'이란 5단계로 이뤄졌다. 셋째로, 이 상담과정을 일반화시켜서 '영성에 기초한 명상상담의 모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것은 명상과 간화선에 의한 명상상담의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사례이다.



명상상담연구원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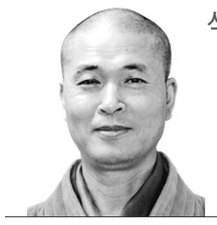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범음범패 학인모집

부처님의 말씀이나 게송을 노래(천보음악)로 만들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 가득찬 환희심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도를 이룬것과 같다(법화 3부경 제1권 방편품 제2장 39절), 옛날부터 전래되는 범음범패의식을 초급, 중급, 고급 수련과정을 통해 능숙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자 격 : 스님 및 삭발 염의하실 예비스님
◇ 예비소집 : 2556(2012)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개 강 일 : 응화북전 3039년 남전열반 2556년(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지장사 2층 범패의식교육원
◇ 수 업 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핵심경전 집중강의(초발심자경문부터), 중식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론 및 소리실기 + 작법 2시간실기
◇ 과 목 :
◆바 라 작 법 = 천수, 사다라니, 관욕화의재, 요잡, 츰부다라니(예수재전점안시 바라작법)
◆착복무작법 = 도량게, 향화게, 다게, 옴남, 귀경이, 운심게, 오공양, 법고무
◆사물장단은 기본 국악관악기 : 산조대금, 소금, 단소, 향피리, 태평소, 퉁소다루기 (착어, 영가축원, 생축시 배경음) 의향 있으신 학인에게만 전수
◆법당북연주타법 : 송주성타법 3가지의 에드립타법 7가지 합10가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산사음악회용 찬불국악리듬
◆재 의 식 반 : 49재, 천도재, 기재, 상용영반, 산신재, 해상용왕재, 시다림 등
◆대재의식반 : 영산대재, 생전예수대재, 무차수륙대재, 국가적위령대재 등
◆이운의식반 : 삼신이운, 불,사리이운, 고승사리이운, 대종사이운, 설주이운 등
◆각종 점안의식반 : 각종불상, 보살상, 신장, 나한, 탱화, 가사, 전 점안의식, 복장의식 등
◆핵 심 경 전 강 의 : 의식집에 있는 경전의 핵심인 열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의 사구게를 영가와 산자에게 들려줘야 함에 이들 경전의 핵심만을 추려서 학인의 이해를 도와 지식을 증장해야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강 주 : 교육원장 홍인 스님 010-5325-8123, 053-632-0078
문의전화 : 지장사 대구 포교당주 학장 범성 스님 010-9243-0113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학승이 물었다.
"장육(丈六)의 금신(金身)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겨드랑이 밑 옷깃을 재어 보라."
학승이 물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모르겠으면 사람에게 부탁하여 재어 보아라."

問 如何是丈六金身 師云 腋下打領 云 學人不會 師云 不會請人裁

석가모니의 키는 1장 6척(丈六)이라는 설이 있다. 1장은 10자를 말하니 요즘의 계산으로 말하자면 거의 5m가 넘는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키가 5m 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자(尺)의 길이는 요즘 자의 길이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옛날식 길이로 석가모니의 키는 1장 6척이고 앉은키는 8자라고 한다.

석가모니 키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도 있는데, 팔상록에서는 키가 9자(약 2m70cm)라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의 키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고, 또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지 7일 만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난산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이가 남보다 유달리 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되므로 이 모든 것이 일반 사람보다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키도 크고 몸집도 유달리 컸으므로 걸어갈 때 마치 코끼리가 걸어가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또한 몸은 금색을 띠었다.

학인은 부처님의 몸이 장육금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어디서인가 듣고 정확히 장육금신이 어느 정도인가 선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너의 겨드랑이 밑을 자로 재봐라, 그러면 장육금신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것이다"라고 간단히 말해준 것이다.

이 대화에서 영리한 납자라면 장육금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챌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육금신을 간파하지 못한 납자라면, 지금 당장 자기의 키를 정확히 재어보라. 그 숫치가 장육이고, 그대의 몸이 금신이다. 알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학인이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의(大宜)인가, 소의(小宜)인가."
학승이 말했다.
"대의(大疑)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의(大宜)는 동북각(東北角)이고 소의(小宜)는 승당 뒤쪽이다."

問 學人有疑時如何 師云 大宜小宜 學云大疑 師云 大宜東北角 小宜僧堂後

의(宜)자와 의(義)자는 비슷한 글자이다. 의(宜)는 '당연한 옳음' 이라 뜻이고, 의(義)는 단순히 '옳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다 '뜻'으로도 통한다. 의(疑)자는 '의심'이라는 뜻이다. 조주 스님이 살고 있는 관음원 동북쪽은 터가 좀 넓게 드러나는 곳이었던 모양이다. 따라서 대중의 공개적인 행사, 예를 들어 부처님오신날 행사나, 대중설법이나 모임 등과 같은 의미가 큰 것은 여기서 치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승당 뒤쪽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작은 행사나 빨래 등 사적인 일이 행해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무릇 수행자라면 인생에 대해 큰 뜻을 의심해야 한다. 무엇이 큰 의심인가? 생노병사를 면할 길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어떻게 생멸하는가, 끝없는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심이다. 만일 학인이 이 의심을 놓치면 그것은 출가 본분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신심(信心)과 함께 의심(疑心)을 수행자의 생명을 이어주는 끈으로 생각했다.

학인이 평상시 의심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큰스님에게 점검해 보려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대의(大宜: 큰 뜻)라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소의(小宜: 작은 뜻)에 대한 의심이라면 단지 사적인 일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대의(大宜)가 좋고 소의(小宜)가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대의를 생각할 때가 있고 소의를 생각할 때가 있다. 큰일은 대의를 사용하고 작은 일은 소의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대의는 단지 대의이고 소의는 단지 소의일 뿐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마라.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 기자의
기초 교리 〈1〉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야만 불자

삼보(三寶)와 삼귀의(三歸依)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歸依佛兩足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歸依法離欲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歸依僧衆中尊]

한국의 모든 법회의식은 '삼보(三寶)에 귀의[三歸依]' 하는 삼귀의례로 시작한다. 그만큼 불교에서 삼보는 중요하다. 따라서 불자라면 삼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불교 교단이 있는 곳엔 반드시 삼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지역의 불교에서도 대소승을 망라한 모든 교단은 삼보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고, 신행의 시작이다. 즉, 삼보에 귀의 해야만 불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삼보는 부처님을 뜻하는 불(佛; Buddha),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法; dharma), 불법으로 대중들을 교화시키는 승(僧; saṅgha) 세 가지를 가리킨다.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세속의 보배와 같기 때문에 세 가지 보배라고 한다. 하지만 불교역사 2500여 년 동안 원시불교-부파불교-대승불교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삼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현전삼보(現前三寶), 주지삼보(住持三寶), 일체삼보(一體三寶)이다.

현전삼보는 역사적 실존인물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의 삼보를 가리킨다. 현전(現前)이라는 말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부처님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시대의 삼보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부처님 자신이 불보이며, 부처님이 설하시는 가르침이 법보이고,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비구니들이 승보가 된다.

주지삼보는 부처님 열반 후, 각 시대 별로 불교에서 삼보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온 삼보의 개념이다. 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한 후에도 오래도록 삼보를 지킬 의무가 있었고, 부처님의 형상을 대신하기 위해 금속·목재·돌 등을 재료로 불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 불보로서 받들기 시작했다. 후세에도 불보가 전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이 등에 기록했거나 인쇄된 경전을 말한다.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경전 기록물을 법보로 정하고 '주지' 하기 위해서였다. 승보는 비구, 비구니로 구성된 시대별 각 종파의 출가교단을 가리킨다.

일체삼보는 동체삼보(同體三寶)라고도 하는데, 불법승 삼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체라고 해석한 것이다. 법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설한 것이므로 부처님에 의존한다. 또 부처님은 법을 발견하고 체득했기 때문에 깨닫게 됐으므로 법을 떠나서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처님은 법을 본질로 하고 있다. 게다가 승은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민중에게 법을 설하는 존재이므로 부처님과 법을 떠나서 승 역시 있을 수 없다. 이처럼 불·법·승 삼보는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체삼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와 상관없이 불보(佛寶)는 불교의 개조이자 교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 법보(法寶)는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교법이며, 승보(僧寶)는 부처님 대신에 민중들에게 불교 이론과 실천을 전하고 민중을 지도 교화하는 출가자 단체라는 큰 줄기에는 변함이 없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주성원 기자는… 일본 류코쿠(龍谷) 대학 불교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구사론과 고전 파니니(Pāṇini) 문법을 연구했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

내게도 꿈이 있거늘 〈테라가타〉

꿈! 꿈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 가슴이 뛴다. 꿈은 미래의 상징어(象徵語)다. 꿈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내일은 결코 수평선 저 너머에 있지 않다. 저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어디메쯤 걸려 있다. 그렇기에 꿈은 저 하늘로 올라가서 날아가는 색색깔 풍선과 같다. 그 풍선 같은 것이 바구니를 달고 있으면 너끈히 우리를 태워서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꿈을 말하는 자는 청춘이다. 꿈을 말하는 자는 내일이 있는 자이고, 내일이 있는 자는 청춘일 것이기 때문이다. 좀 과장스런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100세 시대' 라고 한다. 100세가 될 때까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꿈꾸라는 말이 아닌가. 그때까지는 청춘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닌가. 아니, 100세가 되어서 죽는다 한들 우리의 꿈꿀 권리를 어느 누군들 가로막겠는가. 왕생에의 꿈이 있고, 정토에의 그리움이 있는 한 말이다.

꿈은 자다가 꾸는 꿈, 그래서 깨고 나면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생리적 현상에 대한 이름을 그 시원(始源)으로 갖는다. 그렇기에 달려가도 달려가도 잡을 수 없는 파랑새 같은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누구나 꿈을 갖고 있지만,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늘 손에 잡는 것은 빈 허공일 뿐이리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늘 허탈하지만, 그렇게 채워지지 않기에 다시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꿈 없는 삶을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불교는 이 '꿈'에 대해서는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말해온 것 같기도 하다. 꿈을 꾸는 자의 편이라기보다는 꿈을 깨는 자의 편에서 말이다. 저 유명한 〈금강경〉의 한 구절, "모든 이루어진 것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꿈을 꾸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몽유병(夢遊病)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향해서 천천히 걸음하시면서, 우리들의 꿈을 깨뜨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살까?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그렇기에 〈장로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매우 예외적으로 들린다. 또 그만큼 우리들, 아직 꿈꾸는 범부(凡夫)를 감싸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다. "꿈을 안고 밭을 갈았고, 꿈을 안고 씨를 뿌렸습니다. 상인들은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게도 꿈이 있거늘, 부디 저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민족사, 114~115쪽) 칼루다인 비구의 노래이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를 초빙하러 파견됐다고 한다. 그 길이 곧 출가의 길이기도 했지만, 고향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뜻만은 잘 전달했다.

자, 여기서 나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칼루다인 비구로부터 "부디 저의 꿈을 이루어 주



소서"라고 하는 청(請)을 받으신 분이다. 붓다는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받는 분이시다. 실제로 그렇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는 〈관음경〉의 관세음보살로 되살아난다.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붓다는 꿈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는 하셨을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의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는 주셨을 것이다. 이 관심, 이 물음·배려만으로도, 아, 칼루다인 비구는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그런 사랑, 그런 관심, 그런 배려를 베푸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다. "내게도 꿈이 있다." 그러니 제발 내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나 봐달라고 말이다. 그게 사랑이 아닌가, 그게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관심이라도 가져달라. 그대의 꿈에 나 역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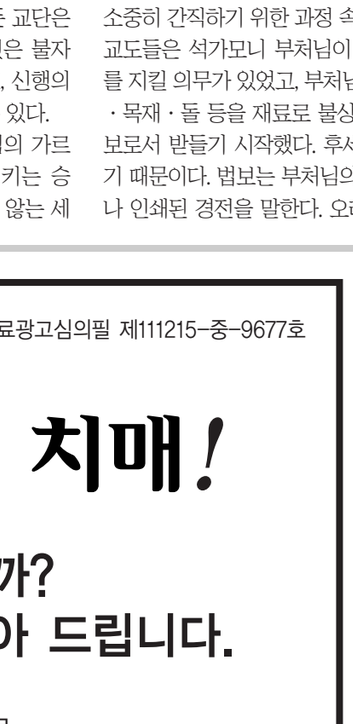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데 저희 한의원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명 지 한 의 원

예약 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 의 사 원장스님 흥화 (권대일)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350만원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극락정토에는 못 마다 연꽃이 가득

연지(상)

연지는 연을 심은 못을 말한다. 연지에 심어진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연지에 관련된 문화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후에 형성됐다. 그도 그럴 것이 연은 우리나라 토종식물이 아닌 수입종이며 불교와 더불어 전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연꽃의 종류를 빠드마(Padma, 홍련화), 웃뜨빨라(Utpala, 청련화), 니로뜨빨라(Nilotpala, 청련), 꾸무다(Kumuda, 황련화), 뿐다리까(Pundarika, 백련화)의 5종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인도에서는 경사스러운 때나 제사에 연꽃을 장식용으로 사용했다. 불교교단이 성립되면서부터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됐다. 연꽃이 불교의 상징화가 된 것은 연꽃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 때문이다.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두되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난다. 마치 사바세계에 있으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 부처가 되는 것과 비유된다. 꽃송이가 크지만 몇 개의 꽃잎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중심을 향해 겹겹이 붙어있으니 이것은 불상을 연상시킨다. 모든 꽃들은 꽃이 진 뒤에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힌다. 이는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지를 말한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 이른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꽃이다.

연꽃은 불교교단이 성립된 초기단계부터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으로 대접을 받는다. 룸비니동산에서는 갓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니 떼어놓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영취산(靈鷲山, 영축산으로도 읽는다) 영산회상에서는 마하가섭이 부처님이 들어 올린 연꽃 한 송이를 보고 염화시중의 미소를 짓는다. 더구나 경전이 가진 결백하고 미묘한 뜻을 연꽃에 비유한 〈묘법연화경〉은 불교적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양산 통도사 대웅전 계단 소맷돌의 연화문양


인도 산치대탑토라나에 새겨진 연화


인도 사찰에 조각된 연화 문양

연지 문화, 우리나라에 불교 전래된 후 형성
연꽃은 불교교단 성립 초기부터 부처님 상징
〈묘법연화경〉 불교적 상징성 함축적으로 제시
연지 도입 연유 경전에서 근거 찾을 수 있어
〈관무량수경〉 극락정토의 못과 연꽃 구체적 설명
'관경변상도'는 연꽃 가득한 연지로 정토왕생 표현

불교가 인도로부터 여러 시대와 장소를 거치며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후에도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으로 널리 인식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 송이의 연꽃처럼 꾸며진 법당을 비롯하여 부처님이 앉아있는 연화좌(蓮花座), 법당의 천장, 대들보, 불단, 석단이나 계단의 소맷돌, 탑 · 부도 · 석등의 대석에서 볼 수 있는 연꽃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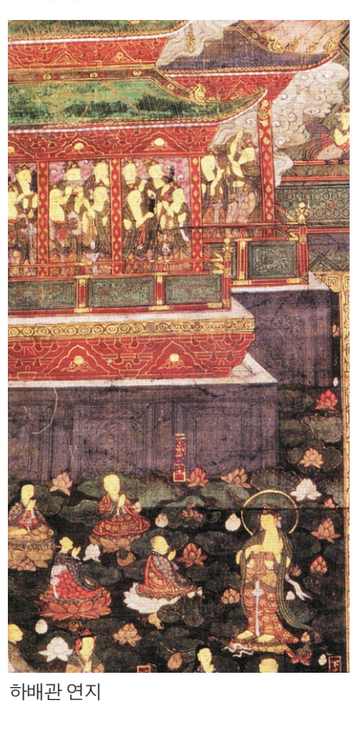
사찰에 연꽃을 심은 연지가 도입된 연유는 경전에 근거한다. 정토삼부경 가운데 〈관무량수경〉에는 '못물을 생각하는 관(寶池觀)'에서 극락정토에 있는 보배로운 못과 그 못에 심어진 연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극락국토에는 여덟 가지 공덕의 물이 있고 각각의 못에 담긴 물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보배로운 물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여의주왕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것이 나뉘어 열 네 갈래로 흐르는데, 하나하나의 갈래는 칠보의 색으로 된 황금의 개울로 되어 있다. 개울 밑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금강의 모래가 깔리고 낱낱의 물 가운데에는 육십억가지 칠보의 연꽃이 피어 있다. 그 연꽃들은 둥글고 탐스러워 한 결 같이 십이유순이나 된다. 그곳 마니의 물은 연꽃 사이로 흐르며 나무를 따라 오르내린다. 그 소리는 미묘하여 고(苦), 공(空),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 모든 법을 설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한다. 여의주왕으로부터 금색의 미묘한 광명이 솟아나와 그 광명이 변하여 백가지 보배색으로 된 새가 되어 평화롭고 그윽이 노래하는데, 항상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는 공덕을 찬탄한다.


일본 지온인(知恩院)에 소장된 관경십육관변상도

관상을 통한 정토왕생은 관경변상도라는 주제의 불화로 그려졌다. 관경변상도에 그려진 보배 못은 연꽃이 가득 피어있는 연지이다. 이러한 연지의 모습은 일본 지온인(知恩院)에 소장된 고려시대(1323년 제작)의 '관경십육관변상도'에서 확연히 관찰된다. 이 변상도에서는 상부 누각 위에 하나, 상부삼존상 좌우에 하나씩 2개, 중앙삼존상 좌우에 하나씩 2개 그리고 하부 아미타불과 협시보살 하단에 3개의 연지가 그려져 있다. 하단에 그려진 연지는 중앙의 것이 상배관 연지이고, 향우측이 중배관 연지, 향좌측이 하배관 연지로 각각 그림의 내용이 다르다. 즉, 중앙의 상배관 연지는 아미타삼존이 상배왕생자를 맞이하고 있고, 향우측 중배관 연지는 두 보살이, 향좌측 하배관 연지는 한 보살이 각각 중배 왕생자와 하배 왕생자를 맞이하고 있어 왕생의 등급에 따라 내용이 틀려짐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연지의 형태인데, 대체로 관경변상도에 그려진 연지들은 방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아미다지(阿彌陀寺)에 소장된 13C 가마쿠라 시대 작품인 '관경십육관변상도'에서도 연지를 볼 수 있다. 아미다지 소장 변상도에는 화면 중앙부와 하단부에 연꽃이 활짝 핀 연지가 보인다. 연꽃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크기 또한 매우 커서 연꽃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배관 연지

하배관 연지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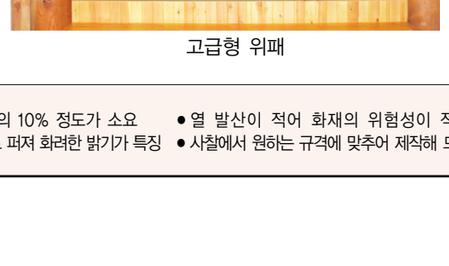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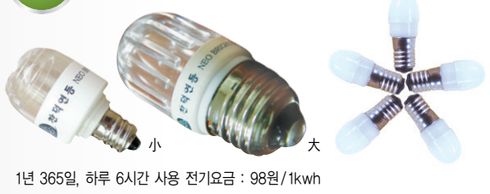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참 사람’의 가풍 천년 세월 머금고 세상을 향기롭게!



세상에 빛 보내는 백양사

백양사 계곡으로 접어들면 문득 눈앞을 가리는 백학봉의 결 고운 기상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흰 바위 병풍이 시린 하늘을 이고 선 겨울 아침, 꽁꽁 얼어붙은 계곡과 눈을 뒤집어 쓴 나무들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하늘도 길도 산봉우리도 다 얼어 있는 정월 초순의 백양사 가는 길, 성보박물관을 지나 100여 미터를 걷다가 오른쪽에 서 있는 키 낮은 안내판을 만납니다. 부도밭을 알리는 안내판인데, 조계종 종정과 고불총림 방장을 지낸 서옹(西翁, 1912~2003) 스님의 ‘열반송’이 적혀 있습니다.

운문의 해는 긴데 찾아오는 이 아무도 없고
아직 남은 봄에 꽃은 반쯤 떨어졌네.
백학이 한 번 날으니 천년동안 고요하고
솔솔 부는 솔바람이 붉은 노을을 보내는 구나.

안내판 위쪽을 바라보니 아담한 배알문이 서 있습니다. 눈이 덮여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양사 부도밭은 온통 눈으로 덮여 겨울 아침 나절의 고요를 머금고 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경내의 대웅전과 극락보전 등을 먼저 다녀오기로 합니다.

쌍계루(雙溪樓). 근래 말끔하게 중건된 이 누각의 뒤는 백학봉이고 앞은 연못입니다. 못은 얼어 있고 산은 눈으로 덮였으며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말이 없습니다. 문득, 혼자여서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홀로 가는 길이지만, 수많은 반연(絆緣)이 있어 혼자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대끼는 삶의 한 순간 이렇게 고요한 공간에 홀로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삽살개 눈썹에 검은 누더기의 한 어리석은 중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시내를 따라 걸음이 스스로 능숙하도다.
운연(雲煙)을 관망하니 깨고 또 취하고
신변을 놀려 희롱하니 어긋남이 도리어 더하도다.



백양사 진영각에 모셔진 여환, 중연, 각진 스님 진영

금풍(金風)이 가만히 단풍을 처음 붉음으로 바꾸고
가을달이 바야흐로 밝으니 물이 더욱 맑도다.
범(凡)과 성(聖)을 모두 잊어버리고 한가히 젓대를 불며
거꾸로 수미산을 타고 자유자재히 오르도다.

쌍계루 앞에 세워진 기다란 비석에 서옹 스님의 시 ‘쌍계루차운’이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번역은 〈서옹선사법어집〉 제1권에서 수록돼 있습니다. 경내에 이르는 길에서 만나는 서옹 스님의 임종게와 시 한 편이 백양사의 역사와 수행가풍을 짐작하게 하고 남습니다. 임제종의 선풍을 누구보다 역력하게 선양시킨 서옹 스님의 ‘참사람 결사’ 운동은 해를 거듭하며 그 자양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의 유지(有志)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 수행자다운 수행자를 배출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심정입니다.

대웅전과 극락보전에서 조용히 삼배를 하고 난 뒤 진영각으로 들어섭니다. 사방 벽에 역대 조사들의 진영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정면에는 개산주인 여환 조사와 중창주 중연 선사, 각진 국사의 진영이 걸려 있고, 좌우로 여러 선지식들의 진영이 서로의 가풍을 머금고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즐비한 액자 속의 인물들이야 말로 한국불교와 백양사의 법맥(法脈)을 끊임없이 이어 온 인맥(人脈)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진영을 살피는데, 발이 빠져나갈 듯이 시려 견딜 수 없습니다. 마룻바닥의 냉기는 발바닥에 그대로 전달되는데 조사들의 법열(法悅)은 가슴을 덥혀주지 못합니다. 엉거주춤 살아온 미욱한 중생의 가슴에는 아직도 번뇌뿐인 탓이겠습니다.

눈 쌓인 마당을 나와 다시 부도밭으로 향합니다. 백설이 곱게도 덮인 부도밭. 아직 누구도 발자국을 내지 않은 그 말끔한 눈밭에는 부도와 비들이 머리에 눈을 덮어쓴 채 서 있습니다. 배알문을 들어서면 중앙에 ‘대종정만암대종사사리탑비명’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탑비는 근래에 새로 조성한 것이고 만암 스님의 부도는 부도밭 뒤쪽에 서 있습니다.

만암(曼庵, 1876~1956) 스님의 법명은 종헌(宗憲)이며 만암은 법호입니다. 조계종 종정과 백양사의 제 48대와 50대 주지를 역임했으며 오늘날 백양사의 사격(寺格)을 일군 장본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11세에 백양사 취운도진(翠雲道珍)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환응 스님과 영호 스님 등에게 교학을 배우고 운문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하며 장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만암 스님의 시대는 일제의 검은 구름이 한반도를 덮는 때였습니다. 스님은 백양사에 스님들의 교육기관이 광성의숙(廣成義熟)과 일반인을 위한 보통교육기관인 ‘심상학교’를 세워 교육 불사에 나섰습니다. 나라는 잃었어도 출가자로서의 본질과 민족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스님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념이었기에 조선불교선교양종 중앙종무원 설립, 불교전수학교(동국대학교 전신) 초대교장, 정광중학교 설립, 전남여객, 전남



백양사 부도밭에서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의 부도를 배알할 수 있다.

고려 말 각진국사에서 서옹스님까지 법등 꺼뜨리지 않은 투철한 수행 계승 소요태능 등 조선 선승들의 부도 즐비 ‘고불총림’ 수행가풍 고스란히 전해

베어링공장, 동광유지회사 설립, 청량원 설립, 호남고불총림결성 등 동분서주한 삶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여 기의 비와 40여 기의 부도가 즐비한 백양사 부도밭에서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의 부도를 배알 할 수 있습니다. 서산대사 청허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 소요태능 선사를 비롯한 선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산과 사명 대사가 백양사에 주석했던 것은 아닌 듯하지만, 소요태능 선사는 서산대사의 선맥을 이은 대표적인 스님입니다. 따라서 백양사는 서산의 법맥이 흐르는 선종사찰의 면모를 간직한 것입니다. 서산대사와 소요태능 선사의 만남은 〈동사열전〉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능은 또 휴정이 묘향산에서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조사서래의’를 묻는다. 휴정은 한 번 보매 태능을 법기라 여기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태능은 휴정의 회상에서 3년여 선을 참구한 끝에 스승의 명에 따라 당을 열고 법화를 편다. 이때의 나이가 20이었다. 태능은 어느 날 휴정에게 받은 게송을 가지고 제방의 종장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으나 아무도 그 뜻을 모르자 다시 휴정을 찾아가 물어 비로소 무생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휴정이 태능에게 내려준 게송은 다음과 같다.

그림자 없는 나무를 패다가
물거품을 태우나니
어허, 우습도다. 소를 탄 사람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눈 덮인 백양사 부도밭에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도 찾아도 찾을 것이 많은 게 중생계를 살아가는 중생의 하루하루입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번민하는 시간 속에서 미혹의 그림자를 껴안고 살면서 자유를 말하고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 자가당착의 터널 안에서 밝은 빛이 쏟아지는 출구로 뛰쳐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대자유와 절대행복을 품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소요태능 선사의 임종게는 열반도 고향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니 그 부정을 넘어선 긍정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해탈이 해탈 아니어니
열반을 어찌 고향이라 하랴.
취모검 서슬 푸르른데
입으로 칼날을 부딪침이여.

근래에 새로 조성한 듯한 비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각진 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 1270~1355) 스님의 비입니다. 각진 국사는 고려 말의 스님으로 당시의 수선사, 오늘날의 송광사로 출가해 제13세 조사가 된 분입니다. 이는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13번째 국사라는 의미입니다.

각진 국사는 송광사와 백양사 불갑사 등지를 다니며 수행했으며 현재 백양사에는 그의 진영이 남아 있습니다. 각진국사진영(전남도유형문화재 제290호)은 1825년(순조 25) 선운사 내원암에서 조성해 백양사로 옮겨졌는데 그림을 그린 화승은 장유입니다. 공민왕의 왕사였던 각진 국사의 생애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양사에는 그가 꽂아 둔 지팡이가 움을 틔워 자랐다는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팝나무인 이 나무는 백양사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려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승들의 자취가 서려 있는 백양사 부도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결같이 지켜온 진리의 등불은 오늘도 그 밝고 따뜻한 빛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화 신은 발이 다시 꽁꽁 얼었습니다. 나그네는 서둘러 부도밭을 나와 세상으로 향합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그 꼬락서니 그대로입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New 신제품 흑룡초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크기 ∮7.5 × 29cm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육각초 7.0∮× 34



연화 大 9.5∮× 11㎝, 연화 中 9∮× 10㎝, 연화 小 7∮× 6.5㎝

밀납연화 小 7∮× 6.5㎝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향수림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대학문화 따라 대불련도 변화

⑤ 2000년대 – 인터넷 포교, 그리고 디지털 활동

온라인 문화로 오프라인 위축
조직력 약화는 시대 흐름
멘토링 · 리더쉽 함양 교육 필요
얻어가는 활동으로 중흥 도모

2000년대 들어서 대불련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적응이다.

2000년대 재가불자들과 청년 불자들이 종단 내부나 사회 속에서 역량발휘에 한계를 느낀 것과 비례해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활발히 전개된다.

특히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토론사이트 등을 통해 불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불련 또한 조직운동 자체가 인터넷을 배제하고서는 전개될 수 없을 정도로 2000년대 인터넷에 기반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대불련 홈페이지(www.ikbuf.org), 인터넷 방송국(www.ikbuf.net) 공식사이트가 구축됐고 2003~2005년 사이 불교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붐이 일며 대불련 부산지부, 대구경북지부 등 각 지역 홈페이지를 비롯해 충남대 · 성균관대 · 건국대 · 중앙대 · 한양대 등에서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 형식을 비롯한 다양한 홈페이지가 선보였다.

직장을 비롯해 가정, 현장에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점은 커뮤니티의 강화를 의미했다. 이는 대불련 활동이 대불련의 틀을 벗어나 불교연합운동으로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1980년대 이후 불교연합운동은 대불련을 기반으로 해 전개됐으며 때로는 불교연합운동에 대불련이 지도를 받는 관계로 진행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돕기운동과 재가연대의 틀에서 시작된 연대운동은 대불련 사회활동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며 불교환경연대, 불교인권위, 여성단체 등과도 활발한 연대활동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 활동은 대불련이 중심이 아니었으며 대불련 역시 불교연대운동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대불련은 2000년대부터 한국종교대학생연대를 구성하고 이웃종교 이해와 연대라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점은 대학 사회의 변화로 인해 대불련의 활동이 불교계와 종단, 사회에 맞춰진 데서 대학 단위로 축소 된 것을 의미했다.

현재 대불련에 등록된 지회는 144곳. 하지만 활동을 하는 곳은 절반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많은 학생회는 회원이 10명 미만이라 언제 문을 닫을지 위태로운 상황이다. 불교학생회에서 각 대학 불교학생회 신입회원의 숫자는 한손으로 꼽을 정도에 처했다.


2011년 충주 석종사에서 진행된 KBUF템플스테이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취업 준비, 개인주의의 만연, 또 거기에 더해 인터넷 동호회의 활성화로 대학 내 동아리들이 역으로 위축된 것이다. 특히 취업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아리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경제적인 이득이나 말초적인 재미와는 거리가 먼 불교학생회는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대학생 포교를 위해 조계종 차원의 존문 포교조직이 출범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2010년 각 대학별 지도법사를 맡을 15명의 스님들을 포함해 대학생 전법단을 위촉했다. 포교원은 별도예산과 함께 대불련과 연계활동으로 취약포교분야인 대학생 포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불련은 학생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만큼 대불련이 다시금 한국불교 청년불자들의 대표이자 미래불자의 양성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성 주체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선배, 법사, 스님, 종단 차원의 이끎이 필수적이다. 대불련이 새 시대에 다시금 활발한 젊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세대의 변화로 인해 대불련 활동에 참석한 이들이 '감동과 위로', 또는 '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얻어가는 활동이 돼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불련 활동만의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회 지부간 네트워크 회복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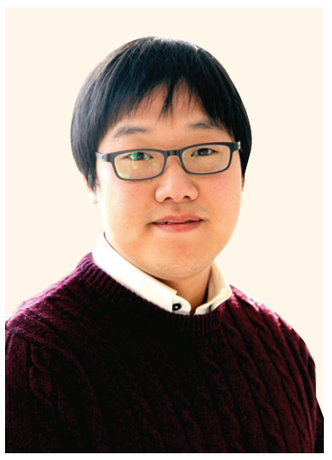
"대학생 문화가 이미 변화했습니다. 선후배 관계를 비롯해 조직문화 자체가 변한 만큼 대불련 회원들이 서로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1년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 Young Buddhist Camp

"SNS 등 도입 조직 정비할 터"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0대 회장



불교지도자양성 요람으로
조직 강화의 원년 삼아
50주년 맞아 힘찬 도약
대학생 눈높이 맞춘 활동

"열정과 패기를 갖춘 불교계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50대 회장은 대불련 위상 강화를 위해 회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불련 활동을 하기 위해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상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임원진 임기는 1년이다. 취업경쟁이 치열한 요즘 시대에 불교활동을 위해 1년이란 시간을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홍포에 뜻을 세운 최 회장에게는 한양대 화학공학과 3학년을 휴학한 이 시간은 대불련 활동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최경환 회장은 군 복무 중 불교에 대한 마음이 공고해졌다. 전역 후 한양대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대불련 활동을 시작지만 대불련 연희단과 제1회 '영 부디스트 캠프(Young Buddhist Camp)' 준비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경환 회장은 최근들어 침체된 대불련 활동에 대해 "과거 지식인으로 대접받았던 대학생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스스로 사회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불련을 비롯한 학생조직 위상이 예전보다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역사가 오래된 조직이지만 대학문화의 변화로 선후배간 연계가 원만치 않다. 또 사무실 이전을 6차례 겪으며 중앙조직 또한 각 지부 · 지회를 총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불련의 2013년 50주년을 맞아 희망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최 회장은 "다행이 전법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조직안정화의 계기를 맞았다"며 "지부 · 지회 중앙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회장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포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신입생 모집, 조직 활동 등을 펼 것을 밝혔다.

최 회장은 "사회문제에 있어 불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열린 공간에서 토론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대불련이 담당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최 회장은 대불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리더가 될 수 있는 멘토링과 불자 리더쉽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불련이 한국 불교계를 발전적으로 이끌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는 단체로 다시금 자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단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불교 각계의 따듯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美, '명상 식사'에 푹 빠지다

뉴욕타임즈 보도…먹는 행위 집중, 건강 식사법으로 각광

건포도 3알을 먹는 데 20여 분이나 소요되는 식탁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뉴욕타임즈(NewYork Times)는 2월 7일 '명상식사(mindful eating)'를 주제로 기사를 게재하고, "(명상 식사가)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건강한 식사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명상 식사에서 강조되는 점은 "씹고 먹는 동안 무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명상식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일종의 관법(灌法)이다. 명상 식사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스테이크나 치즈버거를 먹으며 명상 식사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상 식사법을 단지 다이어트 식사법으로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명상식사법은 잔 쵸젠 베이즈(Jan Chozen Bays) 스님이 2011년 〈명상식사: 음식과 즐겁고 건강한 관계의 재발견 안내서 (Mindful Eating: A Guide to Rediscovering a Healthy and Joyful Relationship with Food)〉를 펴낸 이후 블로그와 유튜브(youtube.com),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잔 쵸젠 베이즈 스님은 이 책에서 "명상 식사법은 식재료의 질감 · 맛 · 향기 · 색깔 등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의 욕망까지 돌아보게 하는 방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식사하는 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내 몸에 이 음식이 필요한 가?' '왜 먹어야 하는 가?' '내가 (지금 먹는 것은) 단지 스트레스 받고 슬프기 때문인가?' 등을 떠올려야 한다"며 그 방법을 설명했다.

명상 식사법은 구글 직원들의 중요 스케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이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를 방문해 명상 식사법을 설파한 후, 직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구글은 회사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짜고 침묵 속에 식사하는 점심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사원에서 운영하는 '명상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 허드슨 강 인근에 있는 블루 클리프(Blue Cliff) 사원에서는 바른 자세로 앉아 음식을 떠서 입에 넣고는 포크를 식탁에 내려놓고, 25~30번 가량 꼭꼭 씹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입 안의 음식을 다 삼킬 때까지 포크를 집지 않는다.

또, 식사 중 TV를 보거나 컴퓨터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삼간다.


'명상 식사 캠프'에서 식사법을 교육받고 있는 참가자들

조용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음식에 대해 생각하며, '어디에서 누구의 손을 거쳐서 내게 왔는지', '내가 왜 이 음식을 먹고 있으며 내 몸에 진정 이 음식이 필요한지' 등을 떠올리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이처럼 명상을 하며 천천히 먹는 식사법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먹는 즐거움을 되찾아 주는 건강 식사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명상식사법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음식을 먹어치우는 현대 식문화에 대한 반성에서 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사 때는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식사법은 평소 자신의 식습관이나 욕망까지 돌아볼 수 있고, 과식과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유산 보존 VS 자원개발

아프간 아이나크 딜레마…중국 대규모 투자로 광산개발 가속

기원전 3세기경 불교의 꽃이 만발했던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메스 아이나크(Mes Aynak, 이하 '아이나크'). 온라인 매체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www.rferl.org)는 2월 8일 "아프간 아이나크에서 '구리 광산 개발'과 '불교 유산 보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고 보도했다.

아이나크는 수도 카불에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불교유적과 유물이 9800에이커에 걸쳐 산재된 불교문화 보고이자, 약 20억톤의 구리가 매장된 지역이다. 구리 매장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간에 GDP 10%에 달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국부를 매년 안겨줄 수 있다.

문제는 아이나크의 광산 개발은 불교유적과 매장유물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나크에서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야금과공집단공사(China Metallurgical Group Corporation)가 30억 달러를 투자, 광산 개발권을 허가받고 2009년부터 착굴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맞서 아이나크의 불교유물과 유적을 지키려는 노력도 2009년부터 시작됐다. 고고학자들이 지표조사를 실시해 유적 지도를 제작하는 한편 매장유물 발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 · 은 · 청동 주화와 석조 및 목조 조각품 100여 점을 발굴해 카불박물관으로 이송했고, 인근 지역의 광산 개발도 잠정 중지시켰다.


아이나크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불교사원 유적

오종욱 편집위원

스리랑카, 7일 야간 불교축제 열려



보름인 지난 7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연례 '야간 불교축제'가 마련된 가운데 불의 무용수들이 재주를 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스님들과 나란히 장엄된 코끼리도 선보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유식학唯識學의 정점의 서다

세계의 불교학자(7)

람베르트 슈미트하우젠

(Lambert Schmithausen) 前 함브르크대 교수



불교 유식학(唯識學)은 4~6세기에 걸쳐 인도에서 형성된 유가행파(瑜伽行派; yogācāra)의 핵심 사상이다. 유가행파는 세상을 허구로 규정하고, 이 세계는 마음의 아집(我執)이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을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며 현실 세계를 부정했다.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허구로 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은 '무상(無常)'하고 '공(空)'하다고 설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식사상을 오랜 세월에 걸쳐 정리해 방대한 문헌을 남겼고, 현재까지 불교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유식학의 대가를 꼽으라면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람베르트 슈미트하우젠(73) 전 함부르크대학 교수를 꼽는다. 유식학을 전공하는 학자는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저서와 논문을 피하고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고전 텍스트를 정밀히 번역해 본래의 뜻에 가장 가깝게 재구성하는 문헌학 연구 방식을 철저히 따랐다. 이러한 고전 연구방법은 19세기 이후 유럽과 일본 학계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기초해서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1967년 〈유식이십론과 유식삼십송에 있어 경량부적 전제(Sautrāntika-Voraussetzungen in Viṃśatikā und Triṃśkā)〉, 1969년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의 열반장(Der Nirvāṇa-Abschnitt in der Viṅcaya-saṃgrahaṇī der Yogācāra-bhūmiḥ)〉등의 논문을 발표해 일본의 유식연구에까지 영향을 줬고, 초기 유식학파의 중심개념들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를 발표한다.

1987년에는 〈알라야식(ālayavijñāna)〉이라는 대저를 출판, 유식의 핵심 개념인 알라야식의 성립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유식학의 정점에 섰다.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이러한 업적은 철저한 고전 해석 능력에서 나왔다. 1939년 독일 쾰른에서 태어난 그는 12세의 어린 나이부터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Gymnasium)에서 고전 산스크리트어를 배울 정도로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 19세에 쾰른대학에 입학한 후, 인도철학과 티베트어 · 고전한문 등을 배웠고, 석사를 마친 뒤에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으로 유학해 후라우발너(Frauwallner) 교수의 지도 아래 1963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다시 독일로 돌아와 1973년 이래 함부르크대학 인도학과 불교학담당 정교수로 활동했고 2005년 은퇴했다.

뛰어난 학자이자 계율 지키는 불자
12세부터 산스크리트어 학습
티베트어 · 빨리어 · 한문에도 능통
불교윤리와 생태학에도 깊은 조예

철저한 문헌학에 기초해 어떤 학자보다도 유식학을 학문적으로 해명해 왔던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1987년 이후, 불교의 철학 · 교학적 문제보다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윤리와 생태학적 문제로 연구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불교와 자연(Buddhism and Nature)〉(1991), 〈불교와 자연의 윤리(Buddhism and the Ethics of Nature)〉(2000) 등의 저서와 논문에서 그는 불교의 불살생과 채식주의 전통, 불교의 자연관과 환경론 등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했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재가불자로서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채식주의자인 그는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 모든 생명체를 인간과 동일한 생명으로 이해하는 '공동체적 윤리관'을 역설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炆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 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 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무엇이 너를 무겁게 하였느냐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⑧ 길을 빨리 걷게 한 희롱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는데 날은 저물어가고 다리는 아파왔다. 만공 스님이 시주 자루를 메고 무겁다고 끙끙대며 투덜거렸다. 만공 스님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자 경허 스님이 말했다.

"내 빨리 가는 방법을 한번 써 볼 터이니 자네 빨리 따라와 보게나."

얼마 후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한 촌락에 이르렀다.

동네 사람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다들 쉬고 있었다.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경허 스님의 눈에 띄었다.

빨리 가게 해 준다며 도망치게 해
목숨 위협 받자 고통 잊는 도리 보여

타심통 부리던 만공 스님에게는
"술법 부리면 믿지 못할 사람" 꾸중

경허 스님은 느닷없이 쫓아가 어린 개구쟁이 같이 처녀의 양쪽 귀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 광경을 본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저 중놈 잡아라"하고 외치며 쫓아왔다.

사태가 다급해지자 경허 스님은 동네를 가로질러 뛰었다. 만공 스님은 해괴한 짓을 저지르고 바람같이 도망치는 경허 스님의 뒤를 따라, 한참동안 정신없이 뛸 수밖에 없었다. 두 스님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산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동네 사람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고 점차 멀어져 갔다. 한참을 뛰다보니 뒤에 따라오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쫓아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경허 스님은 뛰던 걸음을 멈추고 나무 아래에 걸터앉았다. 경허 스님이 숨을 돌리며 만공 스님에게 물었다.

"어떠냐? 지금도 무겁느냐?"

그러자 만공 스님이 대답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허 스님이 말했다.

"옳거니, 네 말이 맞다. 무겁다는 생각이 없으니 무엇이 너를 무겁게 하겠느냐"

⑨ 도인이라도 술법을 행하면 믿지 말라

경허 스님이 천장암(天藏庵)에 주석할 때의 일이다. 만공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식(識)이 맑아지고, 타심통(他心通)이 열려 사람의 마음과 세상일을 보지 않고도 손바닥에 놓고 보듯 환하게 아는 경계에 이르렀다.

만공 스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순조로이 풀어주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경지에서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었다.

경허 스님이 이러한 것을 못하게 엄금했지만 급히 달려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만공 스님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고는 했다.

어느 날이었다. 경허 스님을 시봉하던 경환이라는 아이가 스님께 꾸지람을 듣고 밤중에 별안간 없어졌다. 경허 스님이 아무리 애타게 그 아이를 불러도 종적이 없었다.

경허 스님이 너무나 답답해 만공 스님에게 물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잘 안다니 경환이란 놈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알아보게나"하고 물었다.

만공 스님은 "지금 경환이가 있는 곳은 나무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 염려치 않아도 곧 들어올 것입니다"고 답했다.

경허 스님은 믿지 않았다. 스님은 "이 사람아, 이 밤중에 또 폭풍으로 바람까지 부는데 하필이면 왜 나무꼭대기에 있단 말인가? 그 참 괴이한 일이로다"고 의아해 했다.

그런데 밤이 지난 아침, 지대방 안에서 경환이가 자고 나오는 게 아닌가.

경허 스님은 경환이를 불러 "어제 저녁에 어디를 갔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시봉하던 아이는 "어제 저녁에 저는 스님을 약올리기 위해 마당 끝에 있는 괴목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찾느라 야단이었습니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경허 스님은 "그러느냐, 만공이 무엇을 알기는 잘 아는가보다"하고 생각했다.

스님은 만공 스님을 불러놓고는 "이 사람아, 서산 대사의 말씀인 즉 '도인에게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다 할지라도 술법(術法)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설사 자네가 살고 남도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일은 하지 말게"하고 엄히 타일렀다.

이에 만공 스님은 그 후로는 절대로 타심통으로 아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스님 스스로 어려운 곤경에 빠져도 자신의 신통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았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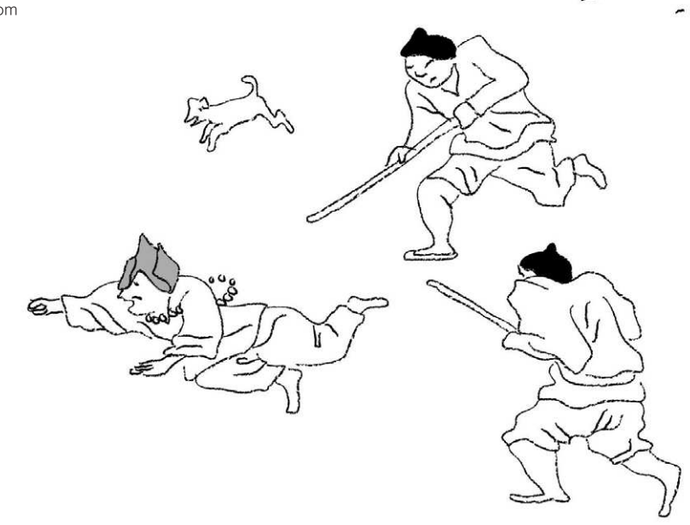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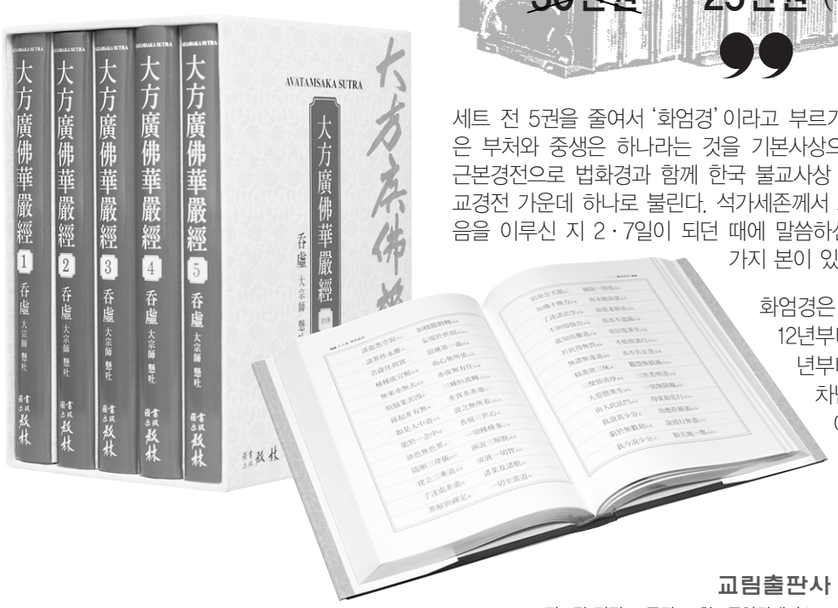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버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삶터를 꿈꿔

도서출판 보리 윤구병 대표

내일 모레, 2월 17일(음 1월 26일)은 법정어른스님 열반 2주기다. 스님 열반 2주기를 앞두고, 도서출판 보리 대표 윤구병尹九炳 선생(70)을 세 차례 만났다. 선생을 만나는 내내,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미당 서정주 선생 시, 송창식 씨 노래 〈푸르른 날은〉이 귓가에 맴돌았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눈이 내리면 어이 하리야/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야….

"제가 송광사에서 행자노릇을 잠깐 하다가 전생업장이 두터워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 말았어요. 제가요. 좀 미련했어요. 집에다가 '나는 머리 깎고 중이 되겠으니 어렵겠지만 애 데리고 혼자 살다가 뜻 맞는 남자가 있으면 재가하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저는 감쪽같이 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지에 송광사 우체국 소인이 찍힌 줄은 몰랐어요." 미욱한 나그네는 처음엔 전생업장이라는 말씀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고 알아들었다.

'상좌로 쓸 만하다' 던 윤 대표
〈무소유〉 추천사에 적기를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
나눔과 섬김 바탕은 무소유에"



윤구병 대표는 성철 스님의 서고를 보고 모두 공개를 하거나 아님 일찍 돌아가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해인사로 가려고 했어요. 성철 스님이 유식론 논쟁에서 이겨서 귀한 중국불교 책들을 얻어서 장경각에다 따로 모아두셨는데, 제게 보여주셨어요. 무식한 제가 보기에도 아주 귀한 책들이에요. 스님, 모두 공개를 하시지요. 복사도 하고 번역도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이 고개를 흔드세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님이 마음을 고치시든가 일찍 돌아가시든가. 그랬더니 스님이 '에취!' 하시든 기억이 나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해인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강원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참 맑음이 지배하는데, 감자가 썩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송광사로 갔어요. 워낙 촌놈이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굶주려봤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홀대하는 꼴을 못 봐요."

선생이 초대편집장으로 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한글쓰기와 가로쓰기를 한 월간잡지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 사장과 몇 사람이 함께 우체국 소인을 더듬어 찾아와 잠깐 나가서 이야기나 하자며 차에다 태웠다. "아, 내 업장이 이만큼 두텁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접었어요. 제가 절집에 들어갔으면 절집으로서도 참 난감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절집 여러 군데를 불싸 지르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선생은 1977년 행자생활을 할 때 들었던, 공부는 거문고 줄 고르듯이 너무 당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거문고 줄 다스리듯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신 법정 스님 말씀이 기억난다고 했다. 그때 법정 스님은 평생 상좌를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행자 생활하는 선생을 눈여겨보고는 "저만하면 상좌로 쓸 만하다"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뒷날, 다른 이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제가 워낙 자유로운 잡놈인데. 아마, 스님 얼굴에 똥칠하는 짓을 하고 다니다가 상좌노릇을 못하고 일찌감치 달아나 버렸을지도 몰라요.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무소유〉 개정판을 낼 때 법정 스님은 윤구병 선생 추천사를 받아오라고 말씀했다. 선생은 당신이 어찌 스님 같은 어른 책에 추천사를 쓰겠느냐며 당치도 않다고 펄쩍 뛰었다. "행자생활을 하던 제가 어찌 쓸 수 있느냐고 사양했어요. 그래도 법정 스님이 꼭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꼼짝도 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다섯 번 만인가에 써드렸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건만 마치 엊그제 겪은 일 인양 몹시 송구스러워 한다.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겠다."

윤구병 선생 추천사다.

선생은 1997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직지사 수련회에서 맑고 회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강연을 했다. "그때 끝내주는 제 출신 성분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투전판에 기웃거리느라고 논밭, 집 다 팔아먹고, 열다섯 살 먹은 어머니하고 열일곱 살 난 이모를 색주가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열아홉 살 때까지 색주가에서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열다섯 살에 장가를 드셨는데 누님 한 분만 있고 소생이 없으셨어요. 윤씨 집안 장남으로 제사상을 지킬 아들을 낳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스물아홉 살까지 딸 하나로 됐다고 버티다가, 처녀장가는 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 술집에 갔다가 어머니에게 '나를 따라나서겠느냐?' 해서 두 분이 만나 아들만 아홉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 이름을 첫째는 '일병', 둘째는 '이병' 조로록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병'이거든요. 하나가 더 태어났으면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을지 상상이 안 가요. 아버지는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모두 서울로 데려왔어요. 저희가 말로 태어났으면 제주도로 끌고 가셨을 분이에요. 그때 6·25가 터졌어요. 열다섯 살이 넘는 형 여섯이 6·25때 죽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제가 열두 살 때 돌아가시고, 칠병이 형은 고문 후유증으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자살을 했어요. 지금은 오롯이 형제만 남아 있는데, 전생과 현생에서 인연이 이렇게 얽혀져 있다고 고백하듯이 털어놓은 자리였어요. 강연이라기보다는." 사람은 귀하거나 천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저 하기 따라 귀하고 천해진다는 '일갈'이다.

선생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삶터를 일구어,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열심히 강연을 하고 책도 썼다. 그런데 선생은 정작 당신이 쓴 책이 하루속히 읽히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푸름이(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 책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머리글에서 '이 책이 빨리 낡아서 새 시대 젊은이들에게 쓸모가 없어지고, 세상이 좋아져서 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빛을 바래게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쓸데없는 글들을 많이 쓰느라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너무 게을리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글들이 유효해요. 30년 40년 전에 쓴 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결돼야 하거든요. 해결하려고 애써 실천을 했으면 그런 말들이 모두 허접스레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악! 법정 스님이 절판하라는 말씀을 남기신 까닭이, 어서어서 몸 놀리고 손발 놀려서 하루빨리 당신 말씀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으로 만들라는 '우레'가 아니었을까.

도법 스님이 평화순례를 마치고 났을 때, 선생은 도법 스님에게 삼배를 하라고 했다. "내가 짓궂잖아요. 툭툭 방바닥을 치면서 스님, 나한테 큰절 세 자리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해야 해?' 그래서 대웅전에 나무로 깎은 부처한테 절할 때 왜 절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절 했어? 그냥 해. 그랬지요. 도법 스님이 순진하잖아요. 절을 하더라고.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스님, 이제 내 절 받으시오. 아마, 내 절이 더 공손할 거요. 그러고는 내가 세 자리를 극진히 해 바쳤어요." 법당 부처에게 하는 절이 연습이라면 펄펄 살아 숨 쉬는 부처에게 하는 절은 실전이다.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저마다 지닌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재능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해 등 돌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위기가 나타나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몸 놀리고 손발 놀려서 우리 삶터를 더 건강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야 나아요."

저마다 지닌 기술·재능 서로 나눠
있을 것만 남은 세상을 만들어야
삶을 마무리할 때 물고기 밥이 되어 떠나
흙을 지키고 살리는 지렁이가 되고파

"수장, 수장해서 뭔가 했더니 재를 나무 둘레에다 뿌리는 것을 수장樹葬이라더군요. 저는 생선도 좋아하고 회도 잘 먹으니까 진짜 수장水葬이 되련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일렀어요. 나 죽으면 발에다 무거운 돌 달아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물속에 가라앉혀라. 그러면 온갖 물고기들이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걸 실천할 만큼 간뎅이가 단단한 이가 둘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을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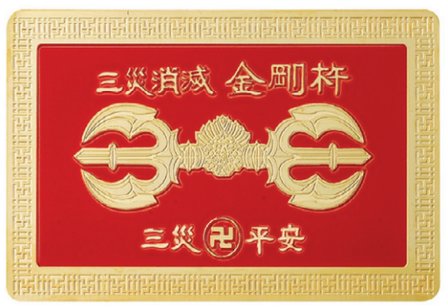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뭘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때쯤 되면 먼 산에 들어가서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법정 스님도 살만큼 살다가 코끼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흔적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싶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다. 입적하기 전에 제주도에 가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둘레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스님이 배를 타시겠다고 하면 못 타게 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오덕 선생님

"책을 보리에서 펴내라"스님 말씀에
"우린 살만하니 더 어려운 곳으로" 사양
내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에 맞춰
국민건강 위한 〈동의본초보감〉 발간예정



모 여 서은 사람만 아니라면 이 지구별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람으론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암수동체인 지렁이로 태어날 생각이에요. 멋지잖아요. 지렁이목도리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이가 '그러면 우리 밭에 와서 살라' 그래요. 열심히 오물을 뒤집어씌울 테니까." 땅을 짓밟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이 되기보다는, 땅을 되갈아 흙을 지키고 살리는 지렁이가 되고 싶단 말씀이다.

법정 스님이 류시화씨 편에 앞으로 당신 책을 도서출판 보리에서 펴내면 어떻겠느냐는 뜻을 넌지시 알렸다. 선생은 그 문제를 공익위원 회의에 부쳤다. 보리 살림을 이끄는 공익위원이 모두 일곱 사람이다. 중요한 경영 사안을 나눌 때도 격의 없이 우르르 결정을 내리기에, 공익위원 회의를 '우르르 시스템'이라고 부른단다. 그때 이야기를 20년이 넘게 보리와 함께한 우르르 위원인 김용란, 유문숙 님에게 들어본다. "그때는 노동자들이 꾸미는 잡지〈작은 책〉을 만드는 일과 세밀화 사업, 그리고 이오덕 선생님 제자들이 아이들과 교육현장에서 실천해서 맺은 열매들을 모아 책으로 엮다보니,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힘을 쏟자고 마음을 모으고, 우린 살만하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주면 좋겠다며 사양했어요." 세상을 향한 보리정신을 살펴서 당신 책으로 엮인 인연이 보다 아름답게 나누이길 바랐던 스님 제안에 걸맞은 곱다란 화답이다. 도움말을 해준 우르르 위원 두 사람은 집이 없다. "저희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일반노동자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말자고 결의했어요.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있었지요." 법정 스님 말씀대로 맑은 가난이다.

어린이책을 기획하는 기획실로 출발하여 '나무 한 그루 베어낼 만한 가치 있는 책을 만들자'는 이념으로 참교육과 우리말, 참삶을 다루는 도서출판 보리는 주식 98퍼센트가 세상을 맑히는 공익주식이다. 서로 종교가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어우렁더우렁 산살림, 들살림, 갯살림을 나누는 느슨한 공동체 변산공동체학교가 논 2만3000제곱미터(7000평), 밭 2만6000제곱미터(8000평)터를 잡고 살림을 펴는데 오래도록 지원하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돈을 댔다. 그리고 민족의학연구원(앞으로 '민의원'으로 적음) 재단법인 설립 자금도 대고,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서교동 5층짜리 태복빌딩도 조건 없이 민의원에 내줬다. 그리고 민의원 운영자금으로 오년 남짓 다달이 2500만원씩 내놓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잡지〈작은 책〉, 남녘과 북녘 어린이를 위한〈어깨동무〉를 지원한다. 변산공동체학교는 예닐곱 가구와 마흔 명 남짓한 학생들이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데, 학생들이 배우고 잠자고 먹는데 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민의원은, 음식과 약은 한 뿌리요 농사와 의료는 한 가지라는 이념으로 물 · 흙 · 곡식 · 사람을 아울러 온 목숨을 살리는 농부 마음으로, 한겨레 의료 역량을 모으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나눔과 비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유기농가를 살리는 '문턱없는밥집'을 운영한다. 이 밥집에선 점심 때 비빔밥을 파는데 밥값을 천원부터 형편껏 받는다. 어려운 사람은 헐하게 먹고 넉넉한 이들은 더 많이 내자는 마음씀이다. 또 자원과 환경을 살리는 '기분좋은가게'도 운영한다. 이곳에선 넥타이를 되살려 만든 치마나 원피스를 볼 수 있고, 청바지를 되살려 만든 '책싸개'를 만날 수 있다. '리폼'을 이곳에서는 순우리말로 '되살림'이라고 한다.

민의원에서는 고루 먹고 병 고치고 주물러 병 고치며 약 안 쓰고 병 고치는 책〈약손문고〉를 펴냈다. 그리고 한의학 전문가와 일반 사람들에게 건강을 살리는 지식과 슬기를 심어주려는 마음으로,〈동의보감〉에 실린 우리 땅에서 나오는 약재들을 모두 찾아 세밀화로 그리고,〈본초강목〉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의학 고전 원문과 번역을 함께 실은, 권당 900~1000쪽에 달하는〈동의본초보감〉시리즈 40권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출판 보리에서 4만 개가 넘는 낱말과 2400점이 넘는 세밀화를 넣은〈보리국어사전〉을 출간하는데 7년 동안 20억이 들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림된다. 이 사업에 드는 돈은 600억이나 된단다. 2009년 7월, 우리나라 자료로는 일곱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오른〈동의보감〉은 일본이나 중국, 유럽 사람들도 즐겨보는 책이다. 집도 사람이 살아야 생명력이 있듯이,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풀이 지닌 효능이 빛을 드러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온누리 사람 건강을 보듬는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 2013년〈동의보감〉발간 400주년에 맞춰 두 권을 먼저 펴내려고 하는데, 민의원에서는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어 보리에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보리도 출판계 불황으로 몹시 어려운 처지여서 살갑고 도타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린다. 민의원 누리집 주소는 www.kmif.org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봉투바람



동국대 선학과 교수

쉬운 일이나 좋은 기회가 있다 해도 힘을 들여야 한다는 말을 속담에서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한다. 세상에 쉬운 일이 많은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부단히 익히고 반복한 결과가 쉽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회도 또한 그렇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참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에겐 역경만 닥친다'고도 한다. 기회도 쉼 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순경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항상 헐떡거리기 일 수다. 속담이 주는 교훈은 실천을 강조한 가르침이다.

〈백유경(百喩經)〉에서도 아는 것 보다 실천해 몸에 체득돼야 함을 강조한 가르침이 있다. 어떤 장자의 아들이 여러 장사꾼과 함께 보물을 캐러 바다로 들어갔다. 장자의 아들은 평소 바다에 들어가 배를 부리는 방법을 잘 외우고 있었다. 만일 바다에 들어가 물이 돌거나 굽이치거나 물결이 거센 곳에서는 어떻게 배를 잡고 어떻게 머물러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나는 다 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의심 없이 믿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이 갑자기 병을 앓다 죽었다. 그래서 장자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일을 맡게 되었다. 물이 굽이쳐 돌며 급히 물살이 흐르는 곳에 배가 이르렀을 때 그는 외쳤다.

"배를 이렇게 잡고 항해해야 한다."

그러나 배는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배안의 모든 사람들은 익사하고 말았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참선하는 법이나 들숨과 날숨을 세는 법이나 또는 부정관(不淨觀)을 조금 익혀 비록 그 자구(字句)는 외우지만 이치는 알지 못하고, 사실은 갖가지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잘 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망령되이 선정의 방법을 가르치니 앞의 사람을 미혹케 하고 어지럽혀 마음을 잃게 한다.

〈백유경〉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세상에는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온다는 사실을 터득했음에도 쉽게 망각하고 마는 것은 무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의 우치한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함량이 모자라고 역량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무명의 소(沼)는 넓고 깊기 마련이다.

요사이 웬 봉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지 모르겠다. 봉투는 불만이 많을 듯하다. 봉투의 속성은 지고지순 하다고 본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해 그리움이 사무칠 때 절절한 사연을 담아 우체통에 넣었던 편지봉투가 아니던가. 타향살이에 심신이 지쳐 고향산천을 그리며 그곳 친지에게 안부를 물어 소식을 전하던 편지봉투이기도 하다. 전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병사들은 부모님께 위안의 사연을 담아 보내고, 부모님은 자식의 병영생활이 무탈하기를 기원하며 주고받았던 편지봉투이기도 하다.

그러한 봉투는 옛 모습은 찾을 길 없이 돈 봉투로 탈색이 되었다. 정치권에서 일기 시작한 돈 봉투 사연은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한 쪽은 주었다 하고 한 쪽은 받지 않았다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마침내 정치권의 돈 봉투는 거센 바람을 일으켜 입법부 수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

사무치는 그리움 전하던 편지봉투
정치 · 종교계 할 것 없이 변질
'초심으로 돌아가자' 구호 뒤엔
자신 돌아보는 자정 실천 따라야

에서 물러났다. 스포츠의 경우 공정한 경기에 매료돼 경기장에서 관중은 환호를 외친다. 이 세계에도 돈 봉투에 물들어 공정함은 상실되고 말았다. 종교계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며칠 전 연일 뉴스로 다루어진 본사 주지 선거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방영되는 것을 보고 누구든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이가 없었을 것이다.

범어로 종교를 Siddhānta 라고 한다. Siddh는 '완성하다'는 뜻으로 진리를 깨달은 최고의 경지를 종(宗)으로 표현한다. anta는 '끝', '종결'이라는 뜻으로 진리를 말로 표현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교(敎)라고 한다. 여기서 종교의 사명은 분명해진다. 진리를 깨달아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 사회에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철지난 구호에 그친다거나 공산의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알았으면 바로 실천하면 된다. 알기만 한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를〈백유경〉은 웅변하고 있다.

바람, 봄바람은 봄과 같이 올 때 대지에 환희가 넘치고 얼어붙은 땅에 만물이 소생하는 묘약이 될 수 있듯이 교단은 자정능력을 배가하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이 될 때만이 종교의 기능과 몫을 다 하리라고 본다.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보살의 그리움은 '맑고 향기롭게' 무소유로 거듭나

무소유와 종교상생의 아이콘 길상사(吉祥寺)

우리나라 제일 요정 대원각
길상화 보살 무소유 실천으로
부처님 도량 길상사로 탈바꿈
회주 법정 스님 법회때나 들르던 곳


길상사 회주였던 故 법정 스님


길상화 보살이 평생 백석 선생을 그리워하며 보냈던 대원각은 법정 스님을 통해 길상사가 되었다.

불교에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삼독(三毒)이라 한다. 그 가운데 탐욕이 제일 앞선 것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성냄과 어리석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몸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상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탐욕 때문에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탐욕 저변에는 분별심이 있다. 맛있다는 것, 고급이라는 것, 남보다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별은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그 중에서 남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탐욕은 남다르다. 그런 마음을 노려 적은 수량을 만들어 비싸게 파는 것이 일명 명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품 애착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을 불러도 산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기죽지 않으려고 사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혼자 돋보이기 위해 사야 한다.

부처님은 교단을 세우고 수행자들을 이끌 때 사의법(四依法)을 지키라 하였다. 식사는 걸식을 하고, 옷은 시신을 쌌던 분소의였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자야 했다. 다만 소 오줌을 발효시켜 만든 진기약만 가지도록 했다. 모두 탐욕을 경계한 무소유의 실천이었다. 그렇지만 부처님 사후 이 법은 유지되기 어려웠다. 결국 지키려는 보수와 바꾸려는 진보로 나누어졌다. 처음의 분열은 20부파가 생길 때까지 계속됐다. 그만큼 탐욕은 무섭다.

세간사에도 탐욕은 분쟁을 야기한다. 조상제사를 위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분쟁이 생겨 형제들의 왕래가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재벌가의 상속문제가 법정까지 비화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어느 시인이 표현했듯 성북동 비둘기들은 채석장 소리에 놀라 그곳을 떠나고, 그 공간에 큰집들이 들어섰다. 그런 집들 사이로 절이 아닌 듯 들어선 사찰이 있다. 얼마 전까지 법정이 회주로 있던 길상사이다. 이곳의 건물은 사찰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한옥풍이다. 심지어 음주가무가 질펀하게 열렸던 고급요정임을 생각할 때 부처님을 모신 공간이 됐다는 것이 어색할 정도이다.

이곳은 대원각이란 요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이권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곳이다. 이곳 주인은 김영한이었다. 뒤에 길상화(吉祥華)란 법명을 받았다. 1916년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가난한 탓에 15살에 시집갔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다. 살길이 막막했던 그녀는 1932년 조선 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됐다. 미모가 뛰어난 덕분에 금방 서울의 권번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생이었지만 삼천리문학에 글을 발표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글씨는 물론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흥사단에서 그녀의 재주를 눈여겨 본 신윤국이 동경 유학을 보냈다. 그 뒤 스승이 투옥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해서 함흥 감옥으로 찾아 갔다. 스승은 만나지 못했으나 평생의 사랑을 만났다. 함흥 영생여고보 교사들 회식 장소에 나갔다가 영어 교사 백석을 만나 것이다.

운명적인 만남은 달콤한 사랑을 남긴다. 그런데 달콤한 사랑일수록 오래가지 못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끝난다. 백석은 부모가 둘 사이를 반대하자 만주로 떠나자고 제안하였다. 그녀는 백석을 생각해 가지 않았다. 잠시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던 이별이 6·25사변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백석을 잊기 위해 혼자서 대원각을 냈다. 그렇게 시작한 요정은 날로 번창하여 우리나라 제일의 요정이 되었다. 그런 그녀를 대원각을 드나들던 남자들은 넌지시 자신의 마음을 전해보았지만 마음속엔 늘 백석뿐이었다. 1999년 83세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백석을 그리워하며 모든 삶을 보냈다.

죽음이 임박해지자 김영한은 자신이 운영하던 요정을 법정에게 맡겼다. 아무런 조건 없이 천억에 가까운 재산을 넘긴 것이다. 그녀는 천억이란 돈이 백석의 시(詩) 한줄 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이 정도면 무소유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닐까?

이런 거액을 받은 법정 역시 무소유의 수행자였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 흔한 사찰 주지를 지낸 적이 없다. 그는 1932년에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목포에서 성장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를 시작했다. 1953년 전남대 상과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가 들어오지 않았다. 진리의 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1954년 효봉을 만났다. 대학 3년 수료 후 1956년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는 부처님 법답게 살고 싶었다. 세간의 소유를 떠나 출세간에 왔는데 출세간에서 소유한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래서 주지직을 비롯해 이익에 탐하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렇지만 불교발전과 사회참여에 전념했다. 비구계를 받고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 스님과 역경사업을 시작한 이래 1970년대까지 그 일에 헌신했다. 세간에서 말하는 직책을 가져본 적도 있다.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역경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및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이다. 세칭 돈 되지 않는 자리였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지만 세상과의 소통은 지속했다. 4·19와 5·16을 겪으면서 독재화가 지속되자 여러 사회 인사들을 가까이 하면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바뀌지 않는 사회와 자신의 출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지어 20년을 홀로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속세를 멀리하자 자연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으로 느낀 자연에 대한 서정을 글로 세상과 소통했다. 1994년 순수 시민운동 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 같다.

그런 그에게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다. 1997년 대원각 주인이 무주상 보시를 한 것이다. 천억에 이르는 재물이었다. 마음의 갈등은 없었을까? 사람들의 이목이 성북동에 쏠렸다. 무소유에 익숙했던 스님은 보란 듯이 시주받은 대원각을 길상사로 탈바꿈 시키고 회주로 지냈다. 2003년 12월 그마저 던져버리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지냈다. 한 달에 한번 법회 때만 길상사를 들렀다.

2010년 3월 입적한 그는 생전 남긴 유언에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기를 요청했다. 제자들에겐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며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소유를 실천한 두 분이 떠나고 난 길상사에는 미소를 머금은 관세음보살상이 불자들을 반긴다. 가만히 보면 전통적인 관음의 상호가 아니다. 어딘지 모르게 천주교 성모상 분위기가 풍긴다. 이 관음상을 조각한 작가는 천주교 신자이다. 관음을 조성해 달라는 법정의 청을 듣고 많이 고민하였다. 그 고민을 들은 천주교 원로신부는 교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 흔쾌히 하라고 권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관음에 대해 잘 몰랐던 작가는 스님을 만나 머리에 쓰고 있는 관과 손에 들고 있는 병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올린 까닭을 물었다. 스님도 화관(花冠) 정병(淨甁) 그리고 구고(救苦)라고 답했다.

짧은 물음에 외마디 답이었다. 작가는 '꽃 관, 맑은 물, 세상고통을 구한다'는 세 마디 말을 듣는 순간 작품은 마음속에 만들어졌다. 다음은 좋은 돌을 구해 조성하는 일이었다. 마음에 느낌이 온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렇게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은 길상사 앞마당에서 불자들을 반기고 있다.

점안식 날 법정은 관세음보살과 성모마리아는 그 상징성이 같다는 말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작가는 인사에서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울타리를 허물면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종교의 가치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다. 신의 뜻으로 구원받던 무소유를 실천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던 간에. 길상사에 가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사랑, 무소유, 그리고 종교 간의 상생. 탐욕에 물든 우리의 정신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사찰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1)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쇳송,각단예불,의식
2)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욕, 천도재(49재),
각종의식
3)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체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ISO 제조업체등록, 공급자정등록 /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직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소원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우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멀가루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아침에 숙변이 고형상태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를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도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차갔던 공장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꾹먼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아래는 고기나 멀가루음식을 아무때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도 확 줄어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여와홍은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경원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3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영이 돌고 서지가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하지 정액이 없어 젊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성욕도 왕성하게 왕성해졌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카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차고 넘쳐서는 안되나니

귀부계영배(龜趺戒盈杯)


거북이 받침을 놓은 '귀부계영배'

조선후기 호남의 실학 4대가 중의 한 사람이자, 한국의 에디슨이라 칭송받는 규남(圭南) 하백원(河百源)은 1811년에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보다 51년 앞서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만들었고, 자명종(自鳴鐘)·계영배(戒盈盃)·항흡기(缸吸器, 물펌프) 같은 시대를 앞서는 물건들을 발명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춘추오패(春秋五霸) 중 한 사람인 제(齊)의 환공(桓公)이 군주의 올바른 처신을 위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며, 늘 곁에 놓아 마음을 다듬었던 유좌지기(宥坐之器)라 불렸던 그릇(欹器)을 계영배라 한다.

계영배는 사이펀(siphon)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잔속에 관을 만들어 그 관의 높이까지 액체를 채우면 새지 않으나, 관의 높이보다 높게 액체를 채우면 관 속과 물의 압력이 같아져서 수압차에 의해 액체가 흘러나와 잔 밑으로 내려가게 만든 잔이다.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한 술잔
한량없는 욕심을 버려야

계영배는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술잔'이라는 뜻으로, 과음(過飮)을 경계하기 위해, 술이 잔속에서 일정 높이 이상 차오르면, 술이 모두 새어나가도록 만든 잔으로 한량없는 욕심과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술을 경계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술을 마시는 경우, 불가에서는 반은 성죄(性罪)에 속하고 반은 차죄(遮罪)의 뜻에 해당한다해 반성반차(半性半遮)라 부르기도 한다. 또,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뜻으로 화문(禍門)이라고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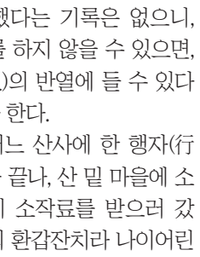
중국 후한(後漢)시대의 역경승이었던 안세고(安世高) 스님의 번역이라 알려진 〈분별선악소기경(分別善惡所起經)〉에는 술을 먹어서 생기는 36가지 허물이라 하여 음주삼십육실(飮酒三十六失)을 논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물을 잃고, 병을 앓고, 화를 내고, 남을 해치고, 지혜와 복덕이 줄고, 사업이 망하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비밀을 누설하고, 눈귀가 어둡고, 부모와 불법을 욕하고, 나쁜 친구와 사귀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친 짓을 하고, 산란하며, 실수를 연발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나온다.

그와는 반대로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소화신(小化身)이라 불리우는 진묵 대사(震默大師)는 곡차(穀茶)를 즐긴 기록이 많지만 실수했다는 기록은 없으니, 술을 먹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당당히 성인(聖人)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옛날 충청도 어느 산사에 한 행자(行者)가 가을추수가 끝나, 산 밑 마을에 소작농(小作農)에게 소작료를 받으러 갔다가, 마침 농부의 환갑잔치라 나이어린 기생을 불러다가 지화자를 부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를 흠뻑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곡차라서 한 잔 해도 괜찮다는 농부의 유혹에 휘말려, 행자는 달콤한 탁주를 연거푸 들이키다가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잠이 들었다가 어슴프레 취한 채 깨보니, 기생이 졸고 있는 모습에 성욕이 일어 덮쳤다. 정신이 들어 절로 돌아가려고 문지방을 나서는데, 섬돌아래 놀던 약병아리를 밟아 죽였다. 잠시 후에 족제비가 밤에 물어갈까 하여, 약병아리를 찾던 농부의 부인이 약병아리를 혹시 보지 못했느냐 묻자, 얼른 품속에 감추고는 못봤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됐다. 결국 이 행자는 한 잔 술 때문에 오계(五戒)를 모두 어기게 되었다.

술 한 잔 잘 못 먹는다는 것은 마치 눈 많이 쌓인 높은 산의 주먹 만한 눈 뭉치가 굴러 내려와 큰 눈덩이가 되어 마을을 덮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실로 경계할 일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불교음악·춤으로 한류열풍 앞장서다

인터뷰

세계 3대 인명 사전 등재된 법현 스님


법현 스님은 2009년 9월 30일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세계 각국을 돌며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고 있다. 사진은 고려 복식을 재현한 바라춤

유럽, 북·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에 불교예술의 총화인 영산재를 알리는 법현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한국음악과 교수)이 최근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법현 스님의 속명 'Kim Eung-ki(김응기)'는 ABI 미국인명정보(2012년), IBC 영국캠브리지국제인명센터(2011~2012년),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2012)에 기록됐다. 이 3대인명사전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거나 업적을 이룬 학자들이 주로 등재되는 곳으로 한국 스님이 3곳에 모두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현 스님은 "작년 7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영산회상-니르바나' 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세계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 같다"며 "한국의 여러 불교 종단을 대표해 이름을 올려 불교문화예술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스라엘서 '평화사절단' 역 톡톡히 해내

태고종 영산보존회(회장 일운)는 2011년 7월 10~14일 이스라엘 카미엘시(市)의 '카미엘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영산재를 선보였다. 카미엘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은 단일 무용행사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문화행사로 영산재 공연은 이스라엘TV를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생중계됐다.

영산보존회의 나흘간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3만 관객을 수용하는 카미엘 야외 대극장은 유료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전석이 모두 매진됐다. 故 파바로티, 故 마리아칼라스 등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도 대관하려면 몇 달을 대기해야했던 텔아비브 오페라하우스도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공연을 본 외신들은 "수행자의 나비춤이 서양인을 감동시켰다" "동양의 붓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염화미소를 건넸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법현 스님은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를 접한 서구인들도 '선(Zen)'이나 명상은 알지만 불교예술과 문화는 잘 모른다. 스님이 불교정신을 직접 춤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영산보존회는 종교 인종 국경을 뛰어넘는 평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팔레스타인에 5년간 납치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이스라엘 살리트 병장을 자국으로 귀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법현 스님은 "살리트 병장의 부모를 만나 귀환을 발원하는 영산재공연을 시연했다. 이를 본 이스라엘 국민들은 '한국의 승려들이 나서 평화를 강조하며 병사를 구하자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뭐하고 있냐'면서 살리트의 귀환을 촉구했다"며 "이후 3개월 만에 살리트 병장과 이스라엘에 수감중인 팔레스타인 1027명의 포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양국이 합의를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영산재 팀과 태고종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의 공연이 기폭제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공연 3만 관객 매회 만석
세계 50여 개국에서 호평 받아
영산재 시연해 이스라엘 병장 귀환
단순 포교 아닌 동양정신 담은 예술


고려·조선 복식을 재현한 바라춤 군무

불교음악과의 인연

강원도에서 태어난 법현 스님은 9세에 출가했다. 스님의 아버지와 4형제도 모두 출가했다. 스님들의 범패나 불교의식을 어릴적부터 보고 듣고 자란 법현 스님은 불교음악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졌다. 9세인 1974년 불교음악을 배우기 위해 범패의 최고승이라 불리던 송암 스님이 있는 서울 봉원사로 출가했다. 그곳에서 15년간 송암·일운·구해 스님에게 범패의 기초부터 고급까지 사사했다.

법현 스님은 "단계별 범패는 각배 영산수륙 등 5단계로 이뤄져있는데 영산재에만 373곡이 들어있다. 이 밖에 나비춤 바라춤 법고 춤 등 27가지의 모든 무용을 배웠다"며 "송암 스님은 항상 '실기를 배우면서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스님은 동국대와 원광대에서 불교음악 이론을 연구하고 1997년 최연소로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임용됐다.

법현 스님은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불교음악과 무용을 이론화 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불교음악 및 무용 관련 4권의 저서와 43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송암 스님의 범패와 법현 스님의 범패를 각각 18장, 15장으로 제작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해외박물관 200여 곳에 보냈다. 또 200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인 '각필악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다.

법현 스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KBS방송국 연출전문가인 김영령 교수와 김향금 창원대 무용과 교수와 함께 범패와 무용을 무대에 결합시키는 시도를 했다. 그 결과 2001년부터 국립극장에서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나타난 불교무용을 재연해 호평을 받았다. 이후 독일 덴마크 미국 중국 일본 등 50여 개국에 초청돼 불교문화공연을 주관하면서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법현 스님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불교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케이팝 열풍으로 한국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유태인, 가톨릭 신부들도 불교를 배우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무용 미술 단청과 같은 불교예술을 통해 한국의 정신을 알려야 한다. 단순한 포교활동이 아닌 동양의 정신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재 인간문화재 보유자 더 늘어야"

불교문화와 영산재 공연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고 있지만 법현 스님은 영산재 인간문화재 보유자가 1명뿐이라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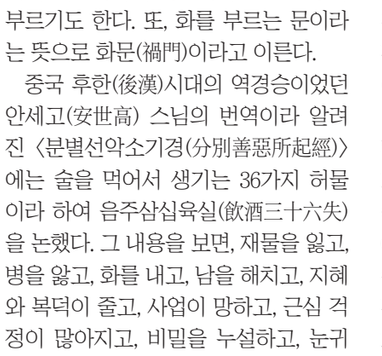
스님은 "현재 영산재 관련 중요무형문화재는 구해 스님 밖에 계시질 않다. 보유자 1명으로는 범패와 영산재를 10여 년 넘게 이수받으며 공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09명 스님이 군무형태로 등장하는 영산재를 지속적으로 이끌려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전수조교인 일운·기봉 스님의 보유자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또 "해외에서는 영산재 공연에 관심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후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선사 스님들의 유품을 보관하고, 불교음악·무용을 체계적으로 전승하는 기관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주프로그램 CD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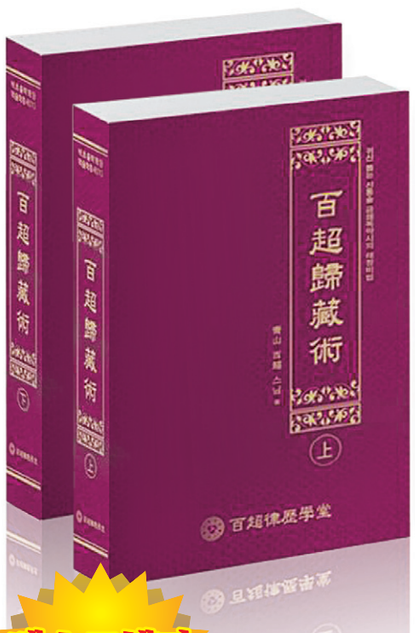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을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

명 리 보 감 역 학 연 구 소
☎ 031)493-3581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임현주

한국 전통 춤사위 벌여보세

양혜정 전통춤판
2월 26일 국립국악원서


양혜정 대표는 이번 공연에서 한영숙류 승무를 선보인다.

일본 발레학교 유학시절 한국 전통춤에 매료된 젊은 무용가가 각 유파(流波)별 전통춤의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운 과정과 깨달은 가르침을 춤사위로 풀어낸다.

양혜정 한국예술컴퍼니 춤매 대표(36)는 2월 26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양혜정의 전통춤판-모든 사물의 시초 남상(濫觴)' 공연을 펼친다.

공자의 제자 중 자로(子路)는 성질이 용맹하고 행동이 거칠어 무엇을 하든 남의 눈에 잘 띄었다. 어느 날 자로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자 공자는 말했다.

"원래 양쯔강은 민산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시작될 때의 물은 겨우 술잔을 띄울 만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로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 입었다. 공자는 매사는 시초가 중요하며 시초가 나쁘면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 한 것이다.

양 대표는 "'매사는 처음이 중요하고 모든 사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지닌 '남상(濫觴)'을 주제로 열정과 집념, 지적 호기심, 학구적인 열의를 오랜 일본유학생활에서 얻은 감수성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고자 했다"며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한줄기의 불빛을 따라 출구를 찾듯이 각 유파별 전통춤의 큰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예를 연마했다"고 말했다.

양혜정 대표는 일본 오사카와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각 유파의 스승들을 찾으며 춤을 배워 국내·외 콩쿠르에 참가해 '2006년 일본 도쿄 나가노 국제무용대회 특상' 등을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양 대표의 첫 개인 발표회다. 그는 각 유파별 레파토리 전통춤인 ▷한영숙류 승무 및 태평무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박병천류 진도북춤 등 4가지 작품을 3부에 걸쳐 선보인다.

제1부는 스승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해 몸으로 체득하는 '지킬 수(守)', 제2부는 원칙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체계화해 유파의 깊이를 차츰 깨달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깨트릴 파(破)' 3부는 한 유파를 통해 입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춤을 창조해 절차탁마하는 과정인 '떠날 리(離)'의 과정을 표현했다.

1부 공연에서는 이병옥 용인대 무용학과 교수가 해설과 함께 바라춤과 법고무를 선보인다. 양혜정 대표는 이정순 해울예술단장과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고 축생을 제도하는 법고무를 춘다. 인천시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우·성우 스님이 특별출연해 고통·번뇌·망상·집착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바라춤으로 표현한다.

1부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양혜정 대표가 추는 한영숙류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다. 한영숙류 승무는 남색치마에 흰색, 분홍색저고리 흰 장삼을 걸치고 머리에 흰 고깔과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매고 양손에는 북채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긴 염불, 반염불, 삼현타령, 느린 허튼타령, 중 허튼타령, 굿거리, 자진굿거리로 구성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을 잘 표현한 춤이다.

2부 공연에서는 양혜정 대표가 무속계 살풀이의 원조격인 김숙자 류 도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을 시연한다. 박병천류의 진도북춤과 한영숙류의 태평무를 비롯해 남성춤의 대표작인 사풍정감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3부는 양혜정 대표가 유파를 찾으며 체득한 춤을 자신만의 춤으로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여백으로 표현한다.

양혜정 대표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한국 전통춤의 우수성과 정체성, 문화 정서를 일본에 알리고 일본 무용을 한국에 알리는 양국 간 문화교류의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교창작연극 '이 뭣꼬!', 부산 공연

2월 25~26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연극 '이 뭣꼬!' 중에서

지난 해 10월 첫 선을 보인 불교창작연극 '이 뭣꼬!'가 부산에서 공연된다.

J&C코리아뮤지컬컴퍼니(대표 정광진)는 2월 25~2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 뭣꼬!'를 공연한다.

'이 뭣꼬!'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채 경쟁심리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승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에 신음하는 사회병리를 고발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불효자는 웁니다' '삼류배우' 등에 출연한 탤런트 강태기(61)씨가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 하는 주인공 정선우와 용맹정진하는 무명 스님역을 열연할 예정이다.

정광진 대표는 "삶의 허무 속에서 생과 사의 귀로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정선우의 눈과 마음을 비추어 비이성적인 현실과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반추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25~26일 오후 3·7시에 열린다. (051)867-8524 이나은 기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극락 전(前)



극락 문 앞이 어수선하다. 언제 십만 억의 불국토를 지나왔을까. 아득하다 못해 기억 속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지나 우리는 이제 극락 문 앞에 섰다. 눈보라치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발자국들을 스님이 쓸어내고 있다.

"어여 들어와!" 하지만 날리는 눈발처럼 극락 앞에 선 우리는 생각이 많다.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지. 극락이 눈앞인데도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지나 왔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많다.

"어여 들어와!" 누군가 늘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문 밖에 있다. 극락이 바로 앞인데…. 부처를 찾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 극락을 찾는 사람. 극락 문 앞이 어수선하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송계 나식 선사의 '사천왕을 송함[頌四天王]'

사천왕의 위엄에 눌려

塵墨劫前受佛記 (진묵겁전수불기) 진묵겁 전에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耳邊眼裏惹光明 (이변안리야광명) 귓가 눈 속에서는 광명을 뿜어내네.
神通妙力難思議 (신통묘력난사의) 신통과 미묘한 힘 생각키 어려워라
天地中虛現大形 (천지중허현대형) 천지 허공에 큰 모양 나타내네.

조선 송계라식(松桂懶湜; 1685~1766) 스님이 사천왕을 송한 시이다. 사천왕은 사찰의 일주문에서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에 서있거나 그림으로 그려진 네 분의 괴상하면서도 정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서우면서도 괴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기구에서는 사천왕이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음을, 승구에서는 뚝 불거져 나온 부릅뜬 눈과 큼직한 귀 등에서 광명을 뿜어 내는듯한 모습을 표현했다. 전구에서는 선악을 구별해 상벌을 내리는 동방의 지국천왕, 달변과 위엄으로 나쁜 것들을 물리치거나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도 도심을 일으키게 하는 서방의 광목천왕, 자신의 위덕으로 만물이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남방의 증장천왕,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를 서원하는 북방의 다문천왕의 서원의 힘과 신통력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찬탄했다. 결구에서는 삿된 것을 파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불법에 귀의한 이들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방위에서 몸을 나타내는 것을 송했다.

어떤 스님이 우스갯소리로 요즘 스님들이 병도 많고 탈도 많이 나는 것은 사천왕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몇 걸음 걷기가 귀찮아서 차를 타고 뒤로 난 찻길로 경내까지 쑥 들어가기 일쑤다. 이 때문에 사천왕문을 통과하는 일이 거의 드물다. 사천왕문을 통과하면 모든 삿된 것이 사천왕의 위엄에 눌려 두려워 떨어져 나가 청정해지는데 이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늘 상 청정치 못해 아프다는 현실 세태를 그럴싸하게 꼬집은 이야기다.

수행은 편리가 아니다. 신심도 편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찰을 찾는 것이 뒷문으로나 다니는 떳떳하지 못한 일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이제부터 걸어서 천왕문을 통과하는 신심과 예의를 보이면 어떨까?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얀마
▣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대중의 멘토로 활동 중이다.

"스님도 그건 하기 싫은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즉문즉설 법륜 스님이 전하는 행복메시지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음
박승순 그림
지식채널
1만3000원

"결과를 위해 지금 힘겨움과 싸우는 것도, 나중에 한 좋은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지금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전부 자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가 곧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겁니다. 설령 안 좋은 결과가 예측되더다도 미리 알아버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계산하지 마세요. 헤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당신과 만나서 그동안 즐거웠다. 덕분에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배웠어'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결국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힘, 그것이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사랑을 어디까지 지속해야 성공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고 좋으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한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해' 라고 장사꾼처럼 계산하고 대가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계산을 하시 때문에 실패가 따르지, 사랑 그 자체에는 실패가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는 사람은 내 사랑을 받는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내 자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전부 성공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축복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부모한테 뭔가 기대하는게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그것까지 다 얻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반대한다면, 안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이 가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부모님도 설득해주면 좋겠다고요? 스님도 그건 하기 싫은데요. 그게 인생이에요. 결국 내 결혼이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그냥 내가 결혼하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민이 많다. 청춘에게 고뇌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어느 철학자의 정의 때문은 아니다. 88만원 세대, 시급 4500원으로 규정되는 이 세대의 청춘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절규하고 있다.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취업의 문 앞에서, 도무지 누가 붙을지 알 수 없는 로또 당첨보다 더 낮아보이는 시험 앞에서, 연애도 결혼도 내게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라는 서글픈 사랑 앞에서 청춘들은 실망과 좌절로 고개를 숙인다.

누구도 답을 주지 않고 미래는 점점 멀어져만 간다. 불안 · 초조함을 누를 길 없는 나날의 연속이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혼자만 억울할 뿐이다. 도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가 속 시원히 말해줄 사람은 없을까?

실천하는 종교인이자 즉문즉설(則問則說)을 통해 남녀노소를 초월해 인생의 멘토로 활동 중인 법륜 스님이 20~30대 청춘들을 위해 행복메시지 〈방황해도 괜찮아〉를 내놓았다.

스님을 만난 청춘들은 하나같이 "스님, 너무 괴로워요"라고 말한다. 시험 · 취업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직장 · 사회라는 조직생활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결혼이라는 현실 때문에 겪는 갈등과 고민을 호소한다.

시험 · 취업 · 사랑 · 결혼 등 청춘 고민
법륜 스님이 던지는 행복 메시지
"방황해도 · 실패해도 · 틀려도 괜찮아
툭 털고 일어서 다시하면 돼"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 청춘은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스님은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한다. 다만 그 선택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서를 단다.

법륜 스님은 고뇌하는 청춘을 위해 달콤한 위안이나 의례적인 격려를 건네지 않는다. 친절한 조언자보다는 새벽바람처럼 살을 에는 듯한 차디 찬 의견을 직설적으로 던져 놓는다. 앞뒤 재는 것도 없다. '쿨' 하게 답한다.

4년째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수험생의 고민을 듣자마자 스님이 답을 내놓았다.

"올해까지만 하고 딱 그만두세요."

스님의 이 말은 혹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따라붙는 스님의 찬찬한 설명을 듣다보면 어느새 고개는 절로 끄덕여 지고 가슴은 뜨겁게 뭉클해진다.

프랑스를 유럽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었던 나폴레옹. 작은 키에 지중해의 작은 섬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나폴레옹이었지만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고민 앞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청춘에게 법륜 스님이 주는 말은 한가지이다.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몰라서 틀리면 고치면 되고, 물어서 배우면 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넘어졌구나!' 하고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실패도 없고 방황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틀리고 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연습이다.

지금의 이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내일을 만들어 준다. 실패하고 방황할 때 연습이 많아져서 좋다고 생각하는 긍정의 힘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입	민족사
3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4	마음수업	이광정	휴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7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8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9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10	스님은 중매쟁이	혜철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38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답



금강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이수덕 역주
운주사
9000원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불설대승금강경론〉은 〈금강경〉과 관련된 논서이다.

저자 이수덕은 참여불교 재가연대 공동대표로,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으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능엄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불설대승금강경론〉을 만났다.

책은 〈금강경〉과 달리 수보리가 아닌,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과 문답하고 있다. 책은 문수보살이 말세에 입문하는 중생들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방편을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경명을 〈금강경〉이라 한 이유에 대해 '금강' 은 자성(自性), '경' 은 자심(自心)에 비유한 것이며 자기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보면 자기 몸 안에 경이 있는 것이라는 답이 있다.

또, 4구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도를 닦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눈 것이 4구게라는 답을 적고 있다. 즉 몸을 비움, 마음을 비움, 자성을 비움, 법을 비움이 그것으로 이 순서에 따라 수행하고 증득하면 성문4과와 부처의 길로 들어간다고 함으로써 4구게가 단순히 불법의 이치를 설명한 게송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차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육바라밀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는지, 어떤 복을 닦아야 극락에 태어나는지 등 38개의 주제에 대해 간결한 해답을 적고 있다.

저자는 "책은 대승의 금강반야를 밝히는 경전이면서도 초기불교의 법문을 아우르면서 실제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함허 · 감산이 본 원각경



원각경이가해
함허득통 해 · 감산덕청 직해
황정원 역주
운주사
1만8000원

〈원각경〉은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 경전이다. 〈화엄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중국 · 한국에서는 〈능엄경〉과 함께 〈원각경〉을 마음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교과서로 높이 평가해왔다. 한국 전통강원의 교과과정인 사교(四敎)에도 〈능엄경〉과 〈원각경〉이 들어 있다.

책은 〈원각경〉 해설서로 정평이 난 함허득통 선사의 〈원각경해〉와 감산덕청 선사가 해설한 〈원각경직해〉를 경문과 함께 번역한 것이다.

함허득통은 지공 나옹 무학의 법계를 이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 고승이다. 스님은 유학자들의 배불론에 맞서 호법론을 펼친 선승이었다.

감산덕청은 명말 4대 고승 가운데 1인으로 추앙되는 스님으로 선교융합과 선정쌍수, 삼교일치를 주창한 고승이다.

함허 선사의 〈원각경해〉는 한국에서 〈원각경〉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주석서로 손꼽힌다.

감산선사의 〈원각경직해〉는 그 서문에서 천태지자 대사가 경의 요지를 다섯 가지로 요약한 오중현의(五重玄義) 방식으로 경의 대의를 총괄한 것이다. 또 경문의 해설에 있어서도 천태 교학과 선종의 직절함을 잘 융합해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감산의 서문을 앞에 실었다. 전체 12장으로 이뤄진 경문을 번역한 다음, 경문에 따른 함허와 감산의 주석을 병행해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 경문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두 선사의 견해를 비교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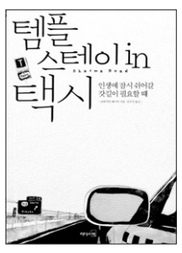
다라니 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법공양시 특별 할인!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我空)' 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사주대학 상,하
석삼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만에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분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체와 의식 이분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약藥 초草 차茶 (藥을 茶처럼)
소나물 넝쿨
자귀나무
소나무 넝쿨, 자귀나무 藥茶의 효능
양지가 잘 들고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며 약성이 다양하고 효과가 빠르다.
관절염, 근육통, 류머티스 관절염, 풍습병, 어혈, 편두통, 당뇨 혈당저하 중풍예방(피를 맑게 함), 고혈압, 신경통, 각종 암이나 종양치료에도 쓰일만큼 효능이 뛰어나다.
남성의 양기 부족, 전립선염, 여성의 냉, 대하증, 기침, 가래에도 효능이 좋다. 수도승들이 즐겨 마시던 차이기도 하며 시험,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효능을 발휘한다.
복 용 법
• 물처럼 자주 마신다. (커피 음료수 대신 꾸준히 마신다)
• 가려야 할 음식이 없다.
• 차게 드셔도 되고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상 담 환 영
주문 및 문의 : 055)271-9141
직통전화 : 010-9468-9141 / 010-3456-8851
계 좌 : 농협 352-0165-8680-53 (예금주 신선연)

택시운전사 도道를 말하다

브라이언 헤이콕의 도로 위 단상



템플스테이 in택시
브라이언 헤이콕 지음
김수진 옮김
리더스북 펴냄
1만4000원

택시를 타면 질문을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시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 책은 묻는다.

〈템플스테이 in 택시〉의 저자 브라이언 헤이콕은 美 텍사스주에서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였다. 메사추세츠주립대를 졸업하고 비영리환경단체 이콜로지 액션 오브 오스틴에서 활동했던 그였지만 파산하게 됐고,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을 하게 됐다. 그런 그가 택시와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템플스테이를 말하는 까닭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의 택시에는 숭산 스님의 〈선의 나침반〉이 늘 비치돼 있다.

저자는 승객을 태워 목적지를 묻고나면 잠깐 동안 최상의 경로를 생각해 본 후 곧 운전을 시작한다. 저자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에 비유한다. 그리고 선의 목표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실에 만족하라는 가르침도 저자는 여법하게 실천하고 있다.

"시선을 높은 곳에 맞추라고 말하지만 그건 맞지 않다. 만일 시선을 높은 곳에 고정한다면 바로 지금 내딛고 있는 발검음에 초점을 두지 못할 것 아닌가. 시선을 길에 두라."

저자는 실직과 파산이라는 힘든 일을 겪고 핍폐해진 삶의 의미를 가져다줄 무언가를 갈구했다. 그러다 우연히 불교를 만났다. 짧은 강의였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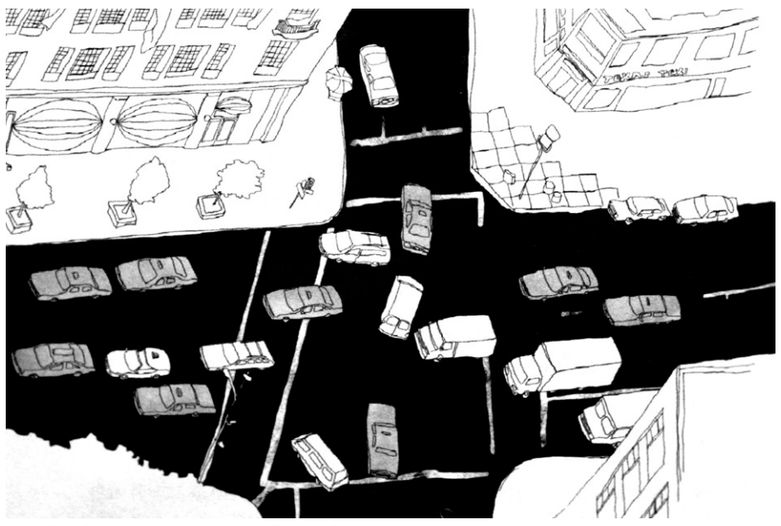
저자는 "시작은 그저 우연이었고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불교를 선택한 것은 내게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 선택이 내 삶을 치유하고 풍요롭게 해줬다"고 말한다.

불교를 만나기 전 택시운전은 생계수단에 불과했다. 매일매일 러시아워 속에서 택시를 운전해야 하는 고단함, 손님을 기다리는 지루한 일상. 저자의 하루는 매일이 그렇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불교를 만나고 저자의 삶은 크게 변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택시운전이 인생이고, 인생이 택시운전이었다.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늘 자신을 되돌아본 그에게 핸들은 목탁과 같았다. 날마다 만나는 승객들은 선지식이요, 그들을 태워다주는 곳마다 도량이었다.

저자는 한 흑인 여성을 삶의 고통을 모아놓은 곳 가운데 하나인 병원에 데려다주며 부처의 사문유관을 떠올린다. 그리고 흰색 리무진에 골프 가방을 싣는 젊은 남자들을 목격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한다. 그리고 말한다.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고 원하는 무언가가 보이면 그저 가리키기만 해도 가질 수 있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은 공허와 슬픔이라는 시련으로 변했다. 결국 약물과다복용으로 변기에 앉으려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엘비스가 이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없었다면 대체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 희망이 있겠느냐"고.


택시운전을 하는 브라이언 헤이콕은 인생은 택시운전과 같다고 말한다.

저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주변을 살핀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한지, 글을 읽는 당신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는 "인생은 엄청나게 좋을 때도 있고 참담할 만큼 안 좋을 때도 있으며 그 중간일 때도 많다…. 클럽하우스에서 멋진 저녁식사를 하는 이들의 삶이 영원히 고통 없진 않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아픔을 겪을 것이고 그러고나면 자신의 본성에 대해 배우고 인생의 슬픔을 초월하는 법을 알아갈 것이다. 부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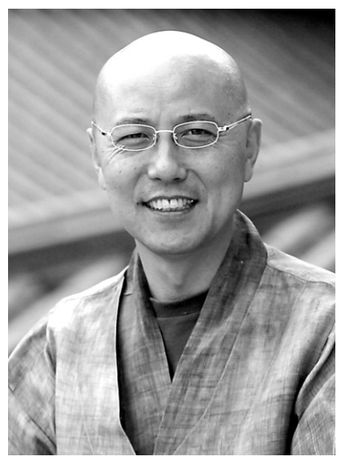
책의 다른 한켠에서는 운전과 마음공부에 대해 말한다. 주의를 집중해 운전하는 첫단계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며 라디오와 핸드폰 등을 예로 든다. 그 해결책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도록 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이키 광고에서 말했듯이 "그냥 해보라(Just do it)"고.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중매쟁이 스님의 이야기



옥천 대성사 혜철 스님은 '중매쟁이 스님'으로 불린다.

출가자로서 수행과는 거리가 멀고, 자칫 비아냥으로 들릴 말이지만 스님은 아랑곳 않는다. 중매를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수년째 해오고 있다. 스님의 꿋꿋하고 남다른 수행은 870여 쌍의 부부인연을 만들어 냈다. 이쯤 하면 '중매의 달인'이다.

〈스님의 중매쟁이〉는 저자 혜철 스님이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속세에서의 삶과 출가 과정, 출가 후의 다양한 활동과 인연들, 중매쟁이가 된 사연과 일화,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등을 진솔하게 써내려간 자전 에세이이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적고 있다.

아버지는 스님이셨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가 스님이신 게 너무나 싫었다. 아니, 부끄러웠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번엔 어머니가 스님이 되셨다.

나는 스님이 되기 싫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두었다.

그러나 운명처럼 나도 스님이 되었다.

그렇게 내가 받았던 아픔을 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운명처럼 스님이 되었다.

스님은 나의 운명이다!

저자는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열어 '선남선녀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저자는 짝 맺어주기에 열중인 자신을 이렇게 변호한다.

"인연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행복한 삶으로의 지름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밝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중매를 통한 짝 맺어주기는 절망하고 마음고생 하는 이들과 그 부모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보살심의 발로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조동섭 기자



스님은 중매쟁이
혜철 저
운주사 펴냄
1만 2000원

무소유의 시대에 완전한 소유를 말하는 법

지리산 수행자의 마른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에 번개 쳤다
홍일 지음
자연과 인문 펴냄
1만3000원

"어찌하면 완전한 소유가 되냐고 물어온다. 양탈 짓는 마음을 내려 놓으라고 했다. 마음 그릇에 담긴 욕심과 근심을 쏟아버리고 미소만 가득 채워 놓으면 완전한 소유가 된다고 했다."

〈마른 똥막대기에 번개 쳤다〉는 지리산 깊은 산골 청허산방에서 산차를 만들며 자유로운 바람처럼 살고 있는 홍일 스님이 쓴 책이다. 스님은 무소유를 부르짖는 세상에 완전한 소유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다 될 수도 없고/ 다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잃을 수도 없는 것이고/ 될 만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 걱정이랴"라고 적는다.

내 집 한 채 갖고 살기도 팍팍한 세상, 스님은 마음에 해우소 한 채씩 지어놓을 것을 권유한다. 가질 것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내 맘대로 되지 ㅇ낳는 일들이나를 괴롭히거든 마음 속 해우소로 가란다.

거기에 푹 눌러 앉아 다스리고 다스리다 보면 세상 먼지 얼룩이 빠져 뽀얀 빛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힘이 생겨난단다.

스님은 "세상의 주인은 없다. 모두가 주인이다"라고 강조한다. 몸과 마음의 자유부터 챙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스리고 부릴 줄 안 다음 완전한 소유를 꿈꾸라고 말한다. 그러면 천하가 모두 내 것이라는 말도 한다.

불안한 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고독을 권한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고독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란다. 고독을 즐기다 보면 고고(孤孤)한 독(毒)이 쌓인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중독이 되면 곤란하니 해독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독을 빼기 위해서는 고독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약이란다.

저자는 솔직하다. 유쾌하다. 한톨의 가식도 없이 맨몸의 살아있는 고독을 보여준다. 갑갑하고 불안한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따뜻하게 살살 데워주는 저자의 말은 염치없는 인간들의 욕망을 꼬집어 비튼다.

저자는 유별나다. 폼 잡는 경전이나 종교의 엄숙주의를 버리고 쿨하고 개념 있게 사는 법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며 우리 시대의 삶의 플랜을 제시해 준다.

책 커버에는 "똥 냄새 작렬하는 세상 지랄발광하는 인간들에게 지리산 수행자가 내리치는 마른 똥막대기의 통쾌한 맛"이라고 적고 있다.

"내 마음의 해우소는 제 기능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 볼 일이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의 해우소!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완전소유에 대한 해답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부처님 가르침따라 내 아이 키우기

전생 · 윤회 바로 알면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

전생(前生)은 있을까? 달라이 라마와 임상심리학자 등은 전생이 있다고 말한다. 성철 스님은 "정신과학 분야의 발달로 영혼이 있다는 것이, 윤회가 있다는 것이, 인과가 있다는 분명히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전생과 윤회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면 불교를 안 믿어야한다"고 말했다.

책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는 오산원당초등학교 교감인 저자가 우리 아이들이 갖고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그것을 계발시켜 주라고 적은 육아 참고서이다. 작은 느티나무 씨앗 하나가 집채만 하게 성장할 DNA를 갖고 있듯이, 씨앗 하나에 우주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잠재된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모두 천재성을 갖고 있으며, 아이의 전생의DNA를 찾고 싶다면 아이의 평소 생활을 관찰하라고 조언한다. 깨어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아이를 관찰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명이다. 아이의 능력을 찾았거든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며, 아이에게 행복을 찾아줄 것을 말하고 있다.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책의 사이사이에는 부처님과 큰 스님의 법문이 있어 보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
민병직 지음
도피안사 펴냄
1만 3000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흥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삼국유사'에는 민족의 DNA가 담겼다

1. '흥법'의 함의

불교 또는 불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붓다 입멸 후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人]에 의지하지 말고 법(法)에 의지할 것이며, 밖으로 드러난 말[語]에 의지하지 말고 그 말에 담긴 뜻[義]에 의지할 것이며, 언어를 매개로 한 상대적 인식[識]에 의지하지 말고 통찰의 직관지[智]에 의지할 것이며, 그 뜻이 애매하거나 부실한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경(了義經)에 의지하라." 이 '네 가지 의지해야 할[四依] 법문'은 이후 경전 해석의 근간이 됐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즉 법에 의지한다면 셀 수 없는 법문 중 무엇을 법이라 할 것인가? 뜻에 의지한다면 붓다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담긴 별도의 것인가? 요의(구극적 진리)와 불요의(방편적 진리)의 변별 기준은 무엇인가?

불교 전통에서는 불설(혹은 불교)과 불법(혹은 聖教, 阿含)을 구분해 왔다. 불설 또는 불교가 붓다의 말씀이라면 붓다가 직접 설한 것만이 불설인가? 아니면 전승된 모든 불설을 곧 붓다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전 가운데 붓다의 참된 가르침은 어느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는가? 〈대반열반경〉에서 설해진 '네 가지 위대한 교설'에서는 "경에 포함돼 있고 율을 드러내면 불설이다"고 했다. 이것은 이후 사의(四依)설과 결부되면서 "경에 포함돼 있고 율을 드러내며, 법성(法性)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불설이다"로 바뀌었다. 나아가 경설의 요의인 '법성'만이 강조되기도 했다. 경부(經部)의 세친을 통렬히 비판했던 유부(有部)의 중현(衆賢)에게 있어 요의설과 불요의설의 판단기준은 '법성'이었다. 법성은 '모든 존재의 진실성[諸法眞實性相]'이자 올바른 이치에 의해 입증된 진실이었으며 그것은 아비달마였다. 그리고 대승의 불설론 역시 유부 불설론의 환골탈태와 다름 없었다.

전통불교서는 불설과 불법 구분했지만
대승불교서는 법성 위배되지 않음 불설

〈삼국유사〉에서는 '불교'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불법(佛法)' '교법(教法)' '대교(大教)' '법륜(法輪)' '석사(釋祀)' '석풍(釋風)' '석씨(釋氏)' 등을 혼용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은 모두 '흥법'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흥법'은 겨우 7조목만을 묶었지만 〈삼국유사〉 5권 9편 중 대단히 중요한 편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흥법'편 이외 편명에 불교와 관련되지 않은 편목은 없다. 이 서책에서 불교 기사가 없는 편목은 없다. 그러나 '흥법'편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불교 관련 정보가 여타 사서에 견주어 집중돼 있으며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일연은 '불법을 일으킨다[興法]'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편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순도와 난타, 아도와 염촉과 원종을 기리는 찬(讚)시에 투영된 그의 인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연은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불교 전래와 수용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아쉽게도 '유통'편 일부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어서 해동의 불교사를 온전히 재구하기 어렵다. 반면 '흥법'편은 삼국의 불교 전래와 수용 및 삼국 불교의 특징이 투영돼 있어 이땅의 초기 불교사의 지형도를 어느 정도나마 그려볼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 왕실의 적극적 불교 수용과 지원과 달리 신라는 전법승들에 의해 맨땅에서 시작됐다. 이차돈의 '순교'와 법흥왕의 '사신(捨身)'은 흥법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진리를 위해 자신을 버린 이들이다. 일연은 이들을 '원종의 흥법'과 '염촉의 멸신'으로 표현했다. 그는 신라의 흥법 뿐만 아니라 백제의 법왕이 살생을 금하는 교지를 내리며 흥법을 도모한 사례를 적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의 고승 보덕이 좌도(左道, 道教)의 융성을 경계하며 흥법을 위한 수차례의 주청과 완산주로의 방장(암자) 이동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2. '흥법'편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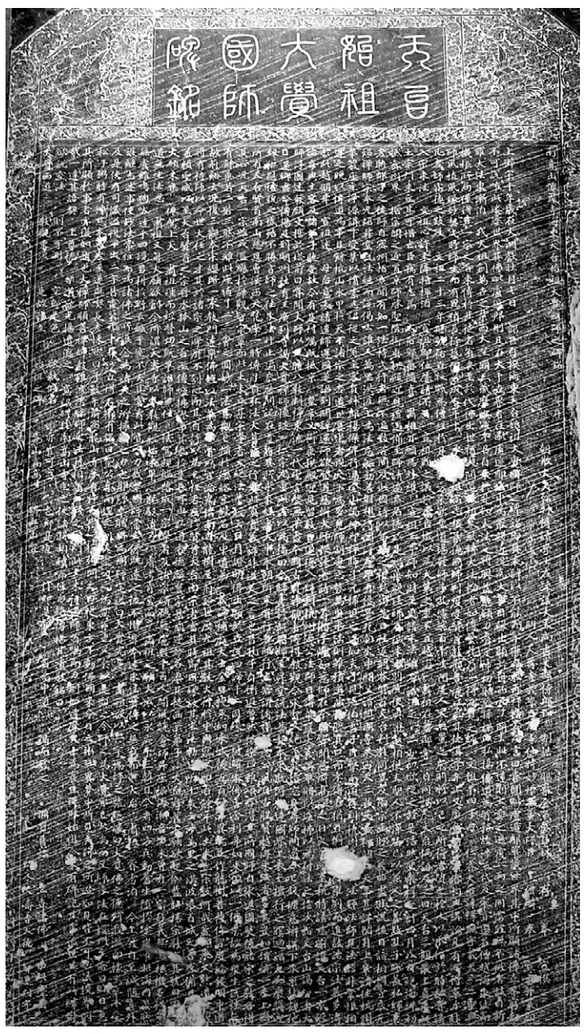
〈삼국유사〉는 5권 9편 138조목으로 된 민족의 경전이다. 일연은 아홉의 편목을 시설하면서 중국의 삼대 고승전의 체재를 원용해 창발적으로 변용했다. 또 각훈의 〈해동고승전〉의 체재와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체재를 적용해 독자적으로 응용했다. 또 종래의 여러 '유사(遺事)'류의 사서들로부터 '유사'라는 제명을 따오면서도 새로운 '유사'의 형식을 창안해 이후 '유사'류 체재의 모범을 확립했다. 최근에 간행된 고려의 빠진 이야기들을 담은 〈고려유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빠진 이야기를 모은 〈조선유사〉도 모두 〈삼국유사〉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판본은 대개 두 책(혹은 세 책)으로 분책돼 유통됐다. 상책은 권1~2까지를 묶었고, 하책은 권3~5까지를 묶었다. 그런데 하책의 첫 편목인 '흥법'은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으로 이어지는 아홉 편명 가운데 이 서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왕력'(권1)이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와 가야 그리고 후고구려와 후백제에 대한 간략한 연표를 기술한 것이라면, '기이'(권1~2)는 고조선 이래 후삼국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흥법'(권3)이 삼국의 불교 전래와 수용 및 번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면, '탑상'(권3)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불탑과 불상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의해'(권4)가 신라 고승들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전기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신주'(권5)는 신라 밀교승들의 신이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감통'(권5)이 지극하면 통하는 신앙의 가피와 영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면, '피은'(권5)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피한 숨은 일사(逸士)의 살림살이를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의 '효선'(권5)은 부모에 대한 효행이 불교적 선행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노모를 모시는 자신의 심정을 실어 보여주고 있다.

'흥법'편 〈삼국유사〉 정체성 가장 잘 표현
삼국 국왕의 불교수용 과정 등 담고 있어

'흥법'편이 이 서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먼저 저자 일연의 신분이 불승(佛僧)이라는 점, 이 서책이 종래의 일반사 중심의 사서인 〈삼국사기〉와 달리 불교사 중심의 사서라는 점, 이 편목이 '본기'와 다른 '기이'에 대응하는 본기의 첫 편이자 삼국 국왕들의 불교 수용과정을 담아냄으로써 불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서 '흥법'편은 남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을 일으킨다[興法]'는 것은 불교의 연기·무자성·공성·자비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이다. 소박한 업설을 원용해 대중들에게 다가왔던 불교는 점차 무상·고·무아·열반 등 불교의 본의(本義)를 전하면서 이 땅의 중심부에 정착해 갔다.

일연은 〈삼국유사〉라는 이름 아래 우리 조상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을 담아내려고 했다. 그는 종래의 사서가 이 땅 사람들의 맛과 멋과 한 그리고 그들의 펄펄 살아 뛰는 온기를 배제하고 지나치게 건조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성이 있었다. 그것은 '세 나라의 빠진 이야기', '세 나라의 잃어버린 이야기'라는 제명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면 무엇이 빠지고 잃어버린 이야기일까? 일연은 그것을 불교적 우주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갈파했다. 해서 그는 이 땅에서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아뢰야식을 읽어내려고 했다. 일연은 그들의 의식의 씨앗 속에서 어떤 싹들이 발아했는가를 소상히 관찰하고자 헌신했다. 결국 그는 전란 이후 몽골이 간섭하는 시기에 살면서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삼국 사람들의 종자의식을 탐색해 이 땅에 다시 현행시키는데 성공했다.



불교 전래 후 산스크리트어 등의 영향이 금석문에도 남아 있다.

3. 한국불교의 토착화 과정

불교의 전래는 이땅과 사람들을 크게 변화시켰다. 불교적 우주관과 세계관 및 인간관과 자연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적 하늘관념이 변화했다. 일연은 이 땅의 하느님[桓因]을 33천인 선견천의 선견성을 비롯한 사방의 32천을 다스리는 제석(帝釋)으로 비정해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중(護法衆)으로 자리매김시켰다. 그 위에 불교의 언어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붓다가 사용했던 하이브리드(혼성) 산스크리트(범어)와 속어인 마가다어와 쁘라끄리띠어 등 인도·유러피안 언어가 이 땅 곳곳에 스며들었다. 현존하는 금석문 등에서 당시 통용됐던 불교 용어들의 다양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두 흐름을 나타내는 소승과 대승을 필두로 각종 다라니와 문두루 등 불교문화의 용어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삼국유사〉에는 불교 전래 이후 이 땅에 자리 잡은 여러 개념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 동아시아에는 '삭발'의 개념이 없었다. 유교 〈효경〉의 "신체와 머리카락 및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는 가르침의 강력한 영향에 의해 한족(漢族)에게는 삭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머리카락의 일부를 자르고 묶는 변발 등은 이루어졌지만 온전히 자르는 '삭발(削髮)'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교가 수용되면서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도 삭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삼국유사〉의 아도(阿道) 혹은 아두(阿頭) 또는 사미(沙彌) 등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른 구릉 같은 머리를 가진 이'를 통칭하는 보통명사이다. 불교 전래 초기에는 무수한 아도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 〈삼국사기〉 이차돈의 순교 대목에서 "이른바 승려가 머리를 빡빡 깎고 요상한 옷을 입고 논의하는 말들은 기이하고 위태로워 상도(常道)에 어긋납니다"라는 신하들의 표현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신하들이 말한 '요상한 옷'에 보이는 것처럼 승복은 복식(服飾)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에는 좌임(左衽)과 우임(右衽)이 혼용돼 있다. 때문에 종래 고구려의 여맴새[衽形]가 북방계 호복계통의 좌임이었다가 이후 중국 한복 계통의 영향을 받아 우임으로 됐다는 이 여성의 주장과 우리 복식문화의 원류가 스키타이계 복식문화라는 김문자의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임(衽)'은 깃이나 옷자락을 여밈을 나타낸다. 불교의 승복도 오른쪽을 여미는 우임형이다. 불경 속의 '편단우견(偏袒右肩)은 '왼쪽 어깨에 법의를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표현이다. 즉 자진해 시중을 들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의 영향을 받기 전의 신라 고유 복식은 경주 백률사(栢栗寺) 석당기(石幢記)에 양각된 이차돈 순교 당시의 의복이 좋은 사례가 된다. 이후 복식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승복(僧服)의 여밈새와 품새 및 소매와 댕기 등은 오늘날의 한복(韓服)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불교 전래 전 동아시아에 '삭발' 개념 없어
승복 한복에도 영향, 육식 관념도 바꿔

불교의 전래는 육식(肉食)에 대한 반성이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워주었다. 인도의 불교 교단에서 처음부터 식육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사건)를 해소시키기 위해 계목을 제정하는[隨犯隨制] 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존 남전의 〈범망경〉 소계(小戒) 중에는 불살생계는 보이지만 불식육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육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붓다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었다. 즉 1) 자기 눈으로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不故見-不見爲我故殺], 2) 자기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고[不故聞-不聞爲我故殺], 3) 자기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지 않은[不故疑-不疑爲我故殺] '세 가지 청정한 고기[三種淨肉]'는 먹어도 무방하다고 설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수행자가 자기를 위해서 먹을 때만 용납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행한 백제 법왕과 신라 법흥왕의 살생 금령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내린 교지였다. 한국불교는 토착화 과정에서 불교의 지혜를 발휘해 의식주 뿐만 아니라 우주관과 세계관 및 인간관과 자연관 그리고 내세관과 수행관 등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추명사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8-24 (지하철 5호선 화곡역 7번출구) 휴대폰 010-9217-2237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 잡보장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염불 • 역학

승려가 1:1 개인지도
속성완성
천도재 49재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011-716-3811

조계종 도선국사 창건지 6.25까지 삼대보궁 중 건재한 소백산 지장보궁을 28년전 복원 노승이 쉬고자 본 종 비구니 스님 도반과 둘이서 참선과 기도로 4년, 평생을 맡아 운영할 비구니 스님을 찾고 있음. 그리고 40~50대 공양주도 속히 구함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010-4735-3232
범 송

3,000억 대 불사를 이끌어갈 재력이 있는 불교신도를 찾습니다

010-6450-3588
허윤석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60세 전후)
010-9506-570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기장 일광, 세룡암)
010-3553-09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지역)
011-770-5313

극락사 사찰 운영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노스님 시봉하실분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미국 LA에서 부전 하실 스님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2012년 임진년의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진학및 성적운, 이성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적중률 90%가 넘는 효타비결서(신수비결)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해결하세요.

효타비결서(신수비결: 정가 1만원)

전국유명 서점 도서출판 청연

삼 혼 칠 백 기 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기도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불교의식(전통소리 안정사) ◆ 사물 ◆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작법무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연수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2563-5550

한글 팔만대장경 시주하실 분이나 파실분

덕산 스님 합장
011-9228-6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60세 이상 가능)
010-3746-8887

행자 (출가자) 모집

출가 하여 자기완성과 더불어 중생제도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출가자 행자 교육 후 사미계 수계 ▷ 본 총림 승가교육기관 교육
▷ 교육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총림 및 소속 각 사찰 배속
▷ 자세한 것은 본산 중앙협의회에 문의 ▷ 기타 종단 등록 및 사찰 등록 환영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 중앙불교대학원
문의처 : 본산중앙협의회 서울 (02) 496-3951-3
총 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영평사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구합니다

010-4174-74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1-764-3661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3년 동안 숙성한 진짜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초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 기간 토굴에서 참선을 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목과 어깨가 뻐근함, 일어 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제반증상과 경년기 장애등
– 병원에서 진단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가 아프다고 느끼는 분
– 알레르기성 체질(아토피, 비염)이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
– 잦은 과음으로 인한 숙취, 약물중독 만성피로, 수족냉증, 정력증강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중시세의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 5만원 (2병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부처골 풍경소리
cafe.daum.net/jijangsw
지장선원 www.jijangsw.com
※ 보급처 : 부처골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 3/10(토), 3/11(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053) 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등록가입 안내

불교문화회관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설립운영하실 분
설립운영하고 계신 분
등록 가입 받습니다
한국불교문화원 연합회
010-6838-8040
법 광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ttp://cafe.daum.net/cheonbu6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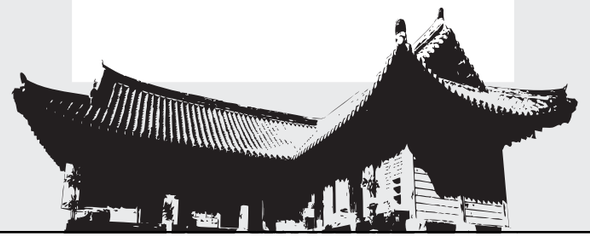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사암
● 주 지 : 오영숙 (자연)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
토월복합상가 623호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www.kyksb.co.kr

승복·전통복식 32년

김윤경승복·우리 옷

● 32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겨울신상품 특가세일



— 목화솜면누비 —
적삼 200,000원
동방 250,000원
※손누비 특별주문 받습니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불자정보 26 | 875호 | 전면광고

2012년 2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1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7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경기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44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종교관련시설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1-372-77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 2차선 도로변 • 대지: 1천평
- 법당: 목조 40평(삼존불)
- 요사 : 목조 25평, 창고 1동
- 정원 : 정원수 많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907번지
- 대지 190평
- 법당 28평, 요사채 24평
- 가액: 2억 1천만원

010-2707-131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교원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불자님께
- 전주 시내 중심
- 원룸 빌라 고급음식점 밀집지역
- 1층 25평 내 - 법당, 방1, 부엌, 욕실, 도시가스, 살림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50만원
- 철학하시는 분 환영

063)246-848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역 지하철 도보 3분거리)
- 7층 건물 3층. 지하주차장 有
- 총평수 83평, 법당 약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 지장, 삼존불 칠성, 신중, 영가단
- 방3개, 주방, 거실, 실내 화장실 도시가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찰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 옥탑, 목탑1,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8660-5810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32평 시설완벽
- 법당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5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2563-555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 평수: 총 40평, 방3개, 공양간
- 집기일체 완비,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010-4527-0662
051)721-300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 평수 : 40평
- 방3개, 공양간,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4527-0662
051)721-300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 평수: 총 40평, 방3개, 공양간
- 집기일체 완비, 몸만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010-4527-0662
051)721-3002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시내중심가 • 평수 30평
- 방2개, 공양간, 화장실, 세면장등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02)2247-2354
010-2081-2354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5분거리
- 종교부지 300평, 국유지600평
- 법당 25평, 요사31평, 산신각
- 문화재급약사석불
- 가액: 1억 8천만원

011-677-852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사용평수 50평
- 삼존불, 지장보살, 인등, 소불
- 주차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3500만원

010-9350-898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3층건물의 3층, 평수 35평
- 옥탑방 포함, 옥상 사용가
- 시장입구
- 버스정류장 앞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5607-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 사용, 연 35만원
- 건물 : 1층 독채 약 28평 개인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010-7295-1259

포교원안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포교원안내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494-40호
- 용호시장 우리은행 뒤
- 평수 2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시설: 삼존불, 소불 지장보살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2914-3534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읍 남부리 소재
- 평수 : 독채 75평 중, 1층요사채 2층 법당
- 건평 45평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구조: 삼존불외 신신 및 각종 신불일체
- 1층 방 3개 주방 욕실 화장실 사내화장실 별도, 소각장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세40만원 전세 가능합니다

010-4576-2281
052)291-337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5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6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2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55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1 ,방4 ,화장실2(실내외 화장실 각1개)
- 창고1,큰 주방 ,거실,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현대식 시설,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지하철 4호선 서동역도보 2분
- 법당 35평, 요사채 70평
- 공양간 30평, 주택밀집지역
- 시장, 교통최적지, 생활보장
- 부동산사절직거래(취득세없음)
- 가액: 5억 (은해융자가능)

010-3867-4747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무익한 천 마디의 말보다는 들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한 마디가 더 유익하다. - 법구경 -

875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 평수 135평, 건평 95평
- 뒤 그린밸트와 앞 43번국도에서 보임
- 2층 목조법당
- 가액: 8억 5천만원

010-3117-6601

사 찰 안 내

- 도심속 아담한 마당있는 5층사찰
- 위치: 안산
- 요사채 방4개, 실내화장실2개
- 주지실, 세면장화장실 딸린 별도
- 엘리베이트 옆 , 남녀 화장실
- 마당에 조립식 법당 약 15평
- 가액: 3억 3천 (융자1억 포함)
- 주인직접 거래
- 꼭 필요한분만 전화주세요

010-9767-4119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전북 인산시 왕궁면 등용리 132-1 북심사
- 창건주 스님이 돌아가시어 사찰을 책임있게 스님의 원력유지를 받들어 운영할 스님을 찾습니다 혹은 양도를 원하시면 양도해드림

063)832-0763 /010-3905-8764
010-9303-7556 / 휴대폰이 안되는 지역임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봉덕동 (남구청4거리 근교)
- 3층 40평(엘레베이터)
- 법당,삼존불,공양간,방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저렴,답사후상의

010-8181-5011

암 자 안 내

시골집 수리하여 관음지장 부처님 모셔져 있습니다.
- 위치 : 안성시 원곡면
- 평택에서 10분, 안성에서 10분 공도에서 5분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無
- 전기료 월 2만원

010-9327-578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 대지 36평
- 2층 건물 뉴타운지역
- 1층요사채 30평, 방3개, 화장실2
- 2층법당 18평, 주지실 4평
- 가액: 3억 3천만원
- 비구, 비구니스님 환영, 현재운영중

010-4940-0195
010-8995-0192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임야(급)안내

- 위치: 행정수도 인접
- 공주시 유규읍(54,876㎡) 유구IC 10분
- 용도: 사찰자리최고
- 정남향 명당터
- 포장도로접, 전면개울흐름
- 가액: 3억 6천만원

주인직 010-4174-2042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명상 8주 프로그램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잭 콘필드의 명상 레슨 ⑥ – 사랑의 명상

사랑의 명상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법에 대해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믿습니다. 나는 진정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상이 성장한다고 여깁니다. 만약 한 사람이 피폐해지면 온 세상도 그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타인을 축복하고 사랑이 담긴 생각과 기원을 전하는 행위는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명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수만 번 기쁨을 느끼기도 수만 번의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흐느껴 울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멋진 경험도 있습니다. 사랑의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주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덟 살 소녀가 희귀한 혈관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액 기증자를 찾다가 마침내 여섯 살 남동생만이 누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의사와 어머니가 소년에게 자신의 혈액을 누나에게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2~3일이 지난 뒤 어머니에게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병원에 갔고 의사는 소년의 혈액이 누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두 사람의 침대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수혈을 마치고 누나가 깨어난 것을 본 소년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죽게 되나요?" 소년은 자기 혈액의 일부만 누나에게 주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누나를 위해 자신이 죽어도 좋을지를 생각하는데 2~3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명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마저 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해 전 샌프란시스코의 한 종합병원에서의 어떤 의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환자 250명 가운데 절반은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집단으로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그런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데서 사랑은 시작
사랑명상 하면 사랑의 마음 커져

두 집단은 임의로 나뉘어졌고 연구대상이 된 환자들은 이 연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가 끝나고 통계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도를 받는 집단에 무작위로 선별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 5일 정도 일찍 퇴원했고, 더 적게 감염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명상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통찰 명상을 보완하는 명상입니다. 스스로를 이완시키기 위한 명상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명상 중에 생긴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명상을 시작하기 전이나 마친 후에 해도 좋습니다.

이 명상이 인위적이거나 기계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에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말이나 구절을 찾아내서 연습해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사랑의 명상을 하면 마음에 보다 강렬한 사랑이 생겨나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밭에 사랑을 심고 가꾸면서 규칙적으로 양분을 주면 사랑이 커지면서 자랄 것입니다.

사랑의 명상을 하려면 먼저 사랑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남을 미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타인의 그러한 점을 사랑하기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갈등과 슬픔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연민과 사랑으로 자신의 슬픔을 수용합니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유도문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사랑의 명상은 본질적으로 통찰 명상을 보완하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사랑의 명상을 하면 친절하고 다정한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가슴에 집중하십시오. 가슴으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가슴 한가운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사랑의 명상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어떤 점을 미워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랑의 느낌,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각을 키워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슴이 친절과 평화로 가득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존재 또한 그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갈등과 슬픔에 연민을 느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두 나름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과 연민으로 이 슬픔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한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랑받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 자신과 이 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으십시오. 모든 육체적 경험, 모든 감정, 모든 기분과 생각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당신의 가슴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슬픔과 갈등을 느끼고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해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들이 사랑과 평화로 행복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더 넓게 열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이 나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더 넓어져서 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곳이 사랑의 바다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방보다 더 커진 것을 상상하고 느껴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구가 작은 공처럼 당신 가슴에 안겨 있습니다. 큰 바다와 넓은 대륙, 커다란 고래와 작은 물고기들, 새와 곤충, 풀과 나무, 정글과 사막, 동물과 사람들,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를 가슴에 품습니다. 사랑과 연민으로 지구를 껴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기, 즐거워하는 사람, 슬픔에 괴로워하는 사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 모든 존재가 사랑과 연민의 힘으로 마음이 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과 선함과 사랑으로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과 모든 존재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김철회 회장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교육일정

◆ 기 간 : 매주 목요일 (2개월 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선착순 접수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 직접 상담 결정
◆ 개강일자 : 2012년 2월 16일 (목) 오후 7시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진도식 교육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韓國說法硏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금강경 강의

홍법스님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로 그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개달은 저의 눈높이 만큼 금강경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00~12:00 1회
오후 19:00~21:00 2회
준비품 : 금강경 책자와 필기구
대 상 : 누구나 공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동참금 : 월 5만
* 설법 내용으로도 좋습니다.

2. 氣 명상 수련반 모집
3. 매일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
4. 빙의 현상, 현대 불치, 난치병 치료
5. 자기 원불과 기도방법 알려 드립니다.
6. 생활, 인생상담 및 제반사항 상담
7.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춤, 오공양 작법, 태평소 대행

부산 진구 부암3동 458-141
참회 관음기도도량 홍법사
향림 홍법 합장
문의 : 010-2570-8512

창 종 5 주 년 기념 대법회 공고

본 종단에서는 창종 5주년 맞아 충남 금산에서 결식노인 및 불우 중증장애인 돕기, 국태민안 및 경제 살리기 영산대재를 불기 2556년(서기 2012년)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불교계의 모든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참 신도님 조상 무료천도) 동참하시는 모든 종단 대덕스님과 사찰의 주지스님께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버스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으며 참가 신도님들께는 본 종단의 선물도 증정하겠습니다.

행사의 준비 및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문의하셔서 상의 바랍니다.

(동참금은 결식노인 및 장애인의 무료급식을 위해 쓰겠습니다)

불기 2556년 2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합장
공익법인 함께 잘사는 장애인 운동본부 대표 김성술

직통 HP 010-2383-5533

2012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5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5시30분까지)
◎일시 및 기간 : 2012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팩스 768-8413

'현우경' 이야기 (7)

금 공양 올린 뱀

악착같은 집착으로 뱀으로 태어났으나

바라나라라는 나라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으로 나라에 소문에 자자했다. 그 남자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그것은 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는 금을 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맛있는 음식을 사먹거나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오로지 금을 사는 데만 썼다. 그는 금을 사서 병에 담아 자신의 집안 땅 속 깊숙이 묻어 두었다. 그렇게 금만 모은 병이 7개가 될 때에 그는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다.

금에 대한 남자의 집착은 죽어서도 계속됐다. 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는 금병을 지키는 뱀으로 다시 태어났다.

뱀은 사람들이 모두 나고 죽고 집이 세워지고 허물어질 때 까지 수만 년을 금병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은 문득 자신이 왜 자꾸 뱀의 몸으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자꾸 뱀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내가 너무 금을 좋아해 뱀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만일 내가 이 금들을 모두 보시한다면 나도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뱀은 집을 나와 숲속으로 향했다. 뱀은 숲속에 숨어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한 나그네가 뱀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뱀은 나그네를 불러 세웠다.

"이보게, 여기를 좀 보시게."

나그네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그네는 커다란 뱀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치지 않을 터이니 대신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게나."

뱀은 숲속을 빠져나와 금병을 숨겨둔 곳으로 나그네를 안내했다.

"지금 이 땅속에는 금들이 가득하다네.



삽화 · 강병호

나는 이 금을 스님들께 보시하고 다음 생에는 다른 몸으로 태어나고 싶네. 자네는 나를 대신해 이 금을 스님들께 공양으로 올려주게. 그리고 만일 스님들이 이 금으로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베푼다면 나를 찾아와 그곳으로 데려다 주게."

나그네는 뱀에게 부탁을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뒤, 금을 들고 길을 떠났다. 나그네는 스님을 찾아가 뱀이 준 금을 공양으로 올렸다.

"숲속에서 만난 뱀이 스님께 이 금을 공양으로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디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십시오."

스님은 금을 받아 음식을 준비하고 공양 베푸는 날을 나그네에게 알렸다. 나그네는 뱀을 찾아갔다. 뱀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나그네를 따라 절로 향했다. 나그네와 뱀은 절로 향하던 중,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 사람은 나그네를 보고 반갑게 안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십니까?"

그런데 나그네는 이상하게도 남자의 인사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뱀은 이상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남자는 나그네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건넸지만 나그네는 계속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른체 했다.

뱀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저리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군.'

뱀은 나그네를 불러 세우고 말했다.

"당신은 예의를 그리도 모르는가. 다른 이의 호의를 무시하다니….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줘서 내가 자네에게 큰 빚을 졌으니, 이번에는 그냥 눈감아 주겠지만 앞으로 다른 이의 호의를 절대 무시하지 말게."

나그네는 뱀의 말에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뱀을 스님들에게 데려갔다. 뱀은 스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스님들이 공양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자신이 보시한 금으로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나눠먹는 모습을 보자 뱀은 환희심에 가득 찼다. 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스님들에게 공양으로 올렸다. 결국 뱀은 복을 지어 도리천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의 뱀이 지금의 샤리푸트라니라. 그리고 나그네는 나였다. 예전에 나는 뱀의 꾸지람을 듣고 많이 부끄러웠다. 이후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겠노라고 서원을 세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니 모두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칼라지붕공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顯考學生府君 神位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875호 현대불교
2012년 2월 15일(음 1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정신세계를 모르면 앞으로 살기가 점점 더 급박해집니다

마음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문) 사실 어떤 때는 보면 종교인보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 바르게 잘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마음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답)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예요. 육신이 무효라고요. 송장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과 그 자기 마음, 이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 놓고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폭이 되죠, 자기가 알기를.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영화배우들이 감독에 의해서 모든 거를 소임을 맡아 가지고 영화 탤런트가 돼야 되는데, 감독을 쑥 빼 버리고 자기 자유껏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감독이라는 자체의 참자기가 있고 지금 물질세계에 현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납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겠죠? 정신세계를 모르면 지금 현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살기가 점점 급박해져요.

예를 들어 지금 과학이 발전이 돼서 로케트가 올라가고 컴퓨터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도, 비행기가 간다 이러면 컴퓨터에 의해서 나온 대로 이게 조정을 해야 하지만,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죽거린다면 그건 첨단의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중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계가 만약에 버스라면 버스 속에 다 타고 여러분이 다녀도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 권리가.

그런 거와 같이 자기가 정신계에 집중을 안 하고 모른다면 물질계에도 발전이 못돼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테두리가 있어서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즉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테두리에 덮여 있는 뚜껑이 덮여 있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런데 글로 써 놓는 거는 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뚜껑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 자유권의 과학이요. 이 모두를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서 앞으로 드문드문 그런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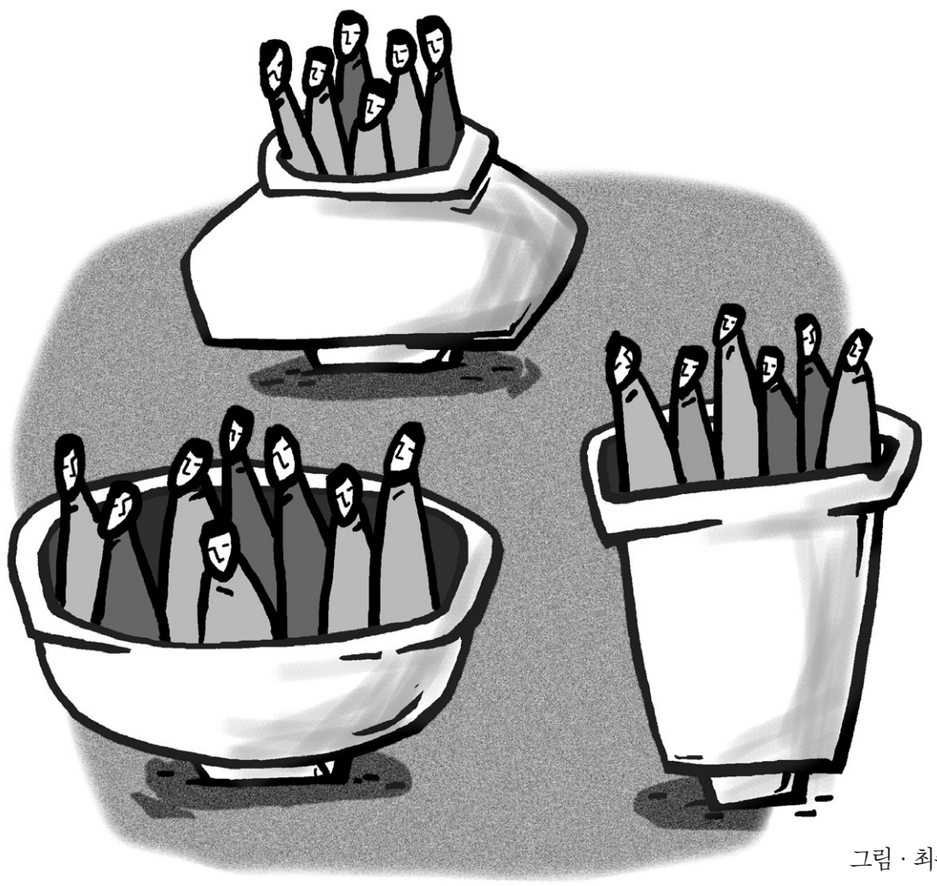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전에 내가 한 스무 살 가까웠을 때 그 접시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접시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그 마음으로서 그대로 움죽거리는구나 하는 거를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만 하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저 우주 세계를 가려도 한 찰나예요. 또 바로 앞을 내다보는 거나 저 우주 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같아요. 맞먹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의 모든 거를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거, 어디서 온 거,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신족통, 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 바로 그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게 이 진리이니까요.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천차만별의, 모두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넝마나 무쇠나 모이는 데가 아니죠? 또 무쇠전에 금이 갈 리 없죠. 넝마전에 금이 갈 리 없고 깡통 공장에 금이 갈 리 없고,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모두 차원에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차원대로에 모두 살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가 같이 모이지 말라 그래도 같이 모여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죠. 누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가르치지 않아도 금반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아주 차원대로 그냥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고야, 사대 성인들도 다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이랬거든요. 너부터 모른다면 이 우주의 섭류를 다 모르느니라. 네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으로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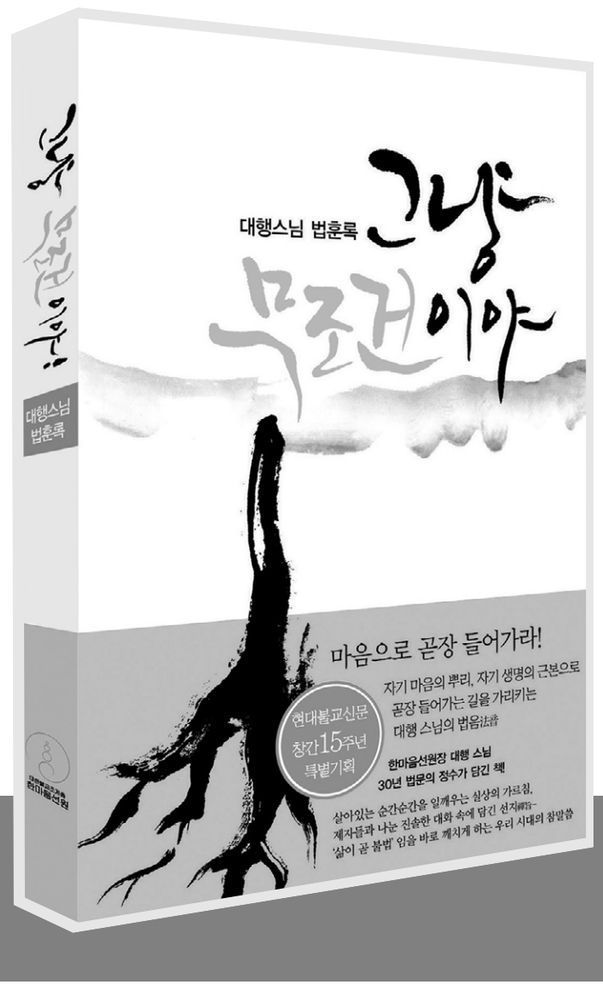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다 시험을 봐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조금조금 아르바이트도 하며 지내지만 안정된 직장이 없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니 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답)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살던 그 모두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모두가 입력이 돼서 그 입력된 것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명이니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한탄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공,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꾸자꾸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마음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든 일체가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 바로 컴퓨터라면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거기서 입력이 돼서 나왔다고 믿고 다시 거기다 일임해서 맡겨 놓고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의 마음을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 또는 부드러운 말로써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모든 걸 맡겨 놓고 간다면, 바로 그게 입력이 되니까 자꾸 되돌아 나와서 지금 현실에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모든 것은 일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났기 때문이에요

☞ 29면에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자니 운명이니, 나는 왜 이렇게 안되나,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러한 모든 게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지기다 하는 것은 남의 속을 아는 것, 마음을 아는 거. 일체 만물, 꽃 한 송이라도, 풀 한 포기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 연결. 팩스는 내 몸뚱이가 아닌 마음 자체에 모습 없는 모습이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그런 능력. 일체 모든 소리를 전부,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통신기.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바로 천체망원경.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전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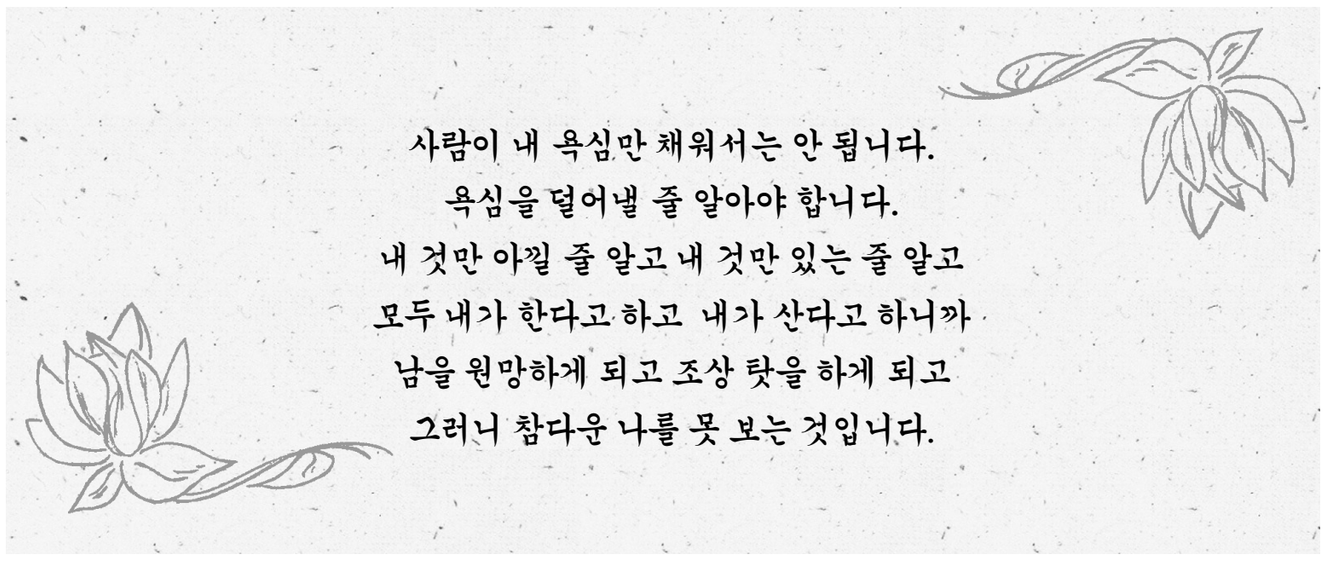
여러분의 몸은 오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오븐 속에 물건을 만들어 먹고 싶은 것을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기구가 그대로 그 재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면 '주인공, 당신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또는 가난하면 '당신만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또는 모든 가정의 화목도 '당신만이 화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고 그 일체를 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체를 다 거기다 놓는다면 자기 한마음으로써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대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발견한다면, 전 우주의 근본도 여러분의 주인공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모든 일체의 만물과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만 발견한다면, 거기서 생물학 천문학 지리학 또는 의학 문학, 모든 것이 일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거기서 병난 거니깐 네가 낫게도 할 수도 있지 않으냐. 낫게 하라!'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여러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병난 거니까 거기서 고쳐야죠. 병원에서 30%를 고쳐 준다 한다면 여러분이 70%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삽니다. 왜냐. 병이 나도 걱정을 안 하니까. 의사는 거기 있으니까. 몸속에 수만 가지의 생명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콩팥이 아프면 콩팥 공장에서 낫게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또 뇌에서 병난 거는 뇌에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이 다 낫게 하고 또는 어떠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다고. 너는 알잖아.' 하고서, 그렇게 서로 상응하면서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한마음으로서 돌아가니까, 모든 일체를 다 거기서 하니까, 가정도 화목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는 싸움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항상 편안하게 살게 되고 그러니 병이 나도 걱정 없고, 또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무한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자유스럽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문) 조그만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자기를 믿고 한 번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도 부탁하기에 딱해서 해 줬는데 사업은 망하고 친구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집안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애들 교육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친구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이럴 땐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가 내 중심에서,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에 이게 적합지 않다면 적합지 않은 걸로 밀고 나가고 적합하다면 적합한 걸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적합지 않다 하면 건너질 말아라 이겁니다. 뛰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분수에 맞게, 욕심 부리지 말고. 언제나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기의 분수에 넘친다면 언제나 해로움을 당해요. 개천을 건너뛸 때도 내가 건너 뛸만 해야 건너뛰는 거지, 건너뛰지 못할 때 턱 건너다가는 한쪽 다리가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 이 모습의 꺼풀을 쓰고 한 일생이, 그렇게 짧은 한 기간이 처참하더라는 얘깁니다. 모두들 '야, 일생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며 사시는데 그것보다 더 아프고 쓰리고 이어가는, 살을 칼로 짝짝 이어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사는 일생도 있으니 말입니다.

부처님 법이 어디 우릴 떠나서 있겠습니까? 밥을 떠 놓고 떡을 해 놓고 빌었던들 어찌 그 참다운 참 한마음의 한 점의 광대한 그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죽 한 그릇을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아마 그 죽 한 그릇은 되남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저 정성껏 시주를 하시라고도 하고 또 열심히 이 도리를 배우라고도 하고 그럽니까, 이러겠지만 사람이 내 욕심만 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덜어라 이겁니다. 내 것만 아낄 줄 알고 내 것만 있는 줄 알고 모두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산다고 하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고 또 조상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니 참다운 나를 못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일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 나로부터, 이 세상에 어떠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강도가 들어서 칼로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고 물품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건 내 탓이지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그 사정을 모르기에 그렇지 그 사정은 사정대로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값싼 사랑, 애정 이런 데서 자비라는 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답게 죽고 사는, 또 아주 쓰라리고 아프고, 따뜻하고 좋고, 이런 걸 한데 합친 그것을, 바로 균등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이 우주의 근본 한 점의 바로 그 원리를 아주 값비싼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려걸랑 몽땅 다 주십시오. 하나하나 내 거 네 거, 이러면은 다 얻질 못합니다. 몽땅 다 주신다면 몽땅 다 서로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몽땅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몽땅 다 나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가, 내가 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내가 될 수도 있어야 이 우주의 섭류의 근본을 알아서 우리는 서로 무주상 보시를, 진짜 물질 아닌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 다섯 가지의 그 오신통을 그대로 부리면서 참다운 대장부로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길잡이가 돼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주춧돌로 삼고 거름으로 삼아서 현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익을 취하십시다.

선업을 쌓으면 나쁜 과보 면할 수 있는지요

문)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보로 인해 팔자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부터 선업을 많이 쌓는다면 그 선업으로 인해 나쁜 과보를 면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이 즉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니라. 그래서 공즉시색이 전부 공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 탈 때 프로펠러 돌아가죠? 거기에 먼지 앉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쉬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기에는 먼지 앉을 바도 없고 병이 붙을 바도 없고 업보가 붙을 바도 없고 뭐, 또 그 악업 선업이 거기 붙을 바도 없습니다, 공해서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면, 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주인공을 모른다면, 그 마음 도리를 모른다면 팔자 운명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거고, 모든 것을 거기에 놓고 다시 입력을 한다면 팔자 운명이, 입력됐던 그 과거가 다 무너지고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맡겨 놓는, 그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작업만 하시라 이겁니다. 그럼 과거가 전부 소멸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세상에, 이 길을 가르쳐 주신 당신에게 무엇으로 갚으오리까?"하는데요, 나는 나 믿으라고 안 그럽니다. 나를 따르되 너를 믿어라. 너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 믿을 데가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현실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현실이 없는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없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태초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러니 그 업보 타령 하지 마시고 병고 타령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 볼 때 실험이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할 때 체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사는 데에 그렇게 평안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변소에 가도 거기 주인공이 있을 것이요, 강당에 가도 거기 있을 것이요, 내 안방에 들어가도 거기 있을 것이요. 야,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 먼 데로 내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해 주시오. 나를 병고 낫게 해 주시오.' 그러고 저 멀리 보고선 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깝게 두고. '야, 영원한 친구야. 내가 이렇게 아프면 너 심부름을 어떻게 할까?' 아, 이런다면 다리가 아팠다가도 그냥 걷고 가게 된단 말입니다.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 나쁘게 하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하고 갑니다.

그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믿지 못한다면 그만둬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이 불교이며 끝간데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절의 울긋불긋한 분위기에 거부감이…

문) 절에 가면 울긋불긋한 분위기가 현대 젊은이들의 감각에 다소 미신적인 듯하고 거부감이 좀 있는 듯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다가서려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울긋불긋하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색신을 말해요. 우리 지금 세상 모두, 늙고 젊고 애기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것을 전부 돌아가면서, 또 나무는 나무대로 꽃이 피고 또 물은 물대로 흐르고, 모든 것이 사계절이 있어서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추수도 해 들이고 이러는 거를 전체 한데 모아서 이것을 울긋불긋이라고 할 수도 있죠, 뜻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한다면 마구니 소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구니도 수용할 수 있어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구니라고 피하고 나쁘다고 피하고 좋다고 갖고 이런다면 이 진리를 탐구할 수가 없어요.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불자 세상보기

임진년 중국 단상斷想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팍스 시니카

새해 들어 팍스 시니카(Pax Sinica)란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대칭어이다. 과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겠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G2, 즉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빠른 산업발전과 군사력 신장을 통해 새로운 패권국가(覇權國家)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에만 몰두하다 경제가 거덜난 EU와 월가의 탐욕으로 침체한 경제를 아직도 안고 허덕이는 미국 때문에 세계는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제 경제든 군사든 지구촌의 풍향은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물어봐야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태평양 건너 미국만 바라보고 산 우리로서는 이제 새삼 중국의 패권시대에 대비해야 할 국가적 전략도 필요하게 됐다.

왕도와 패도

패권이란 힘으로써 사람이나 국가를 복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전국시대의 맹자(孟子)다. 맹자는 "무력으로 인정(仁政)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覇者)다.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덕으로 인정(仁政)을 실천하는 자는 왕자(王者)다. 왕자는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탕임금은 70리로서 왕자가 됐고 문왕은 100리로서 왕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맹자의 이 말에서 이른바 왕도(王道)와 패도(覇道)란 말이 생겼다. 왕도란 이덕복인(以德服人), 즉 덕으로써 사람을 복속 시키는 것이고, 패도란 이력복인(以力服人) 즉 힘으로써 억지로 사람을 복속시키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속시키면 그것은 마음으로 열복하여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심복이요, 힘으로 사람을 복속시키면 마지 못해 따르는 것이니 이것은 일종의 가복(假服)이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했다. 그리고 이후 유교의 이상정치는 왕도에 있었다.

그런데 중국 역사상 맹자가 말한대로 탕임금이나 문왕이후 왕도정치를 제대로 실행한 제왕은 없다. 전국시대는 물론 진, 한, 당, 송, 명, 청에 이르기까지 역대 제왕들은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또 그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중국과 이웃한 약소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패도정치로 일관했던 것이다. 무력으로 상대방 나라들을 제압하는 패도정치는 필연적으로 기미(羈縻)정책을 수반했다. '기'는 말의 굴레이고 '미'는 소의 고삐다. 교묘한 명분을 내세워 이웃 소국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고삐를 매어서 자기들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미정책이었다. 중국 역대 제왕들은 다른 민족에 대하여 이러한 통제정책을 썼던 것이다. 그들의 너그러운 듯한 미소 속에는 언제나 '기미'의 무서운 속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대국 중국 역시 그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이제이와 도광양회

그런데 패권주의란 말은 모택동 중국에서 처음 사용됐다. 60년대말부터 모택동은 미국과 구소련이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려한다는 뜻에서 양국을 패권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런 말로 미, 소를 맹공한 중국이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패권국가란 말을 듣게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모택동은 미, 소를 패권주의자들로 몰면서 자신은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을 썼다.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을 견제케 하고 또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을 역시 견제케 하면서 중국은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애서 다치지 않고 균형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후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묘한 4자성어를 통하여 대내외정책의 방향을 나타냈다. 도광양회(韜光養晦)는 칼집에다 칼날의 빛을 감추고 은밀히 어둠속에서 힘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 세계는 중국의 속내를 잘 몰랐다. 덩샤오핑은 또 주변국을 중국의 세력범위 안에 묶어두고 통제하는 기미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도광양회를 외교노선으로 삼았다고도 한다. 실로 무서운 패도(覇道)이다. 장쩌민은 해야할 일은 꼭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 또 지금의 후진타오는 평화로운 가운데 일어선다는 화평굴기(和平堀起)다. 그리고 화해(和諧)사회 건설이다.

대국굴기와 패권주의

2012년 중국은 대변란이 없는 한 시진핑(習近平)의 시대를 열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시진핑은 10월에 제18대 당대회를 거쳐 총서기에 오르고, 2013년 3월 국가 주석에 취임 할 것이다. 1953년생인 시진핑은 2008년부터 국가 부주석, 2010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맡고 있다. 그는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시중쉰(習仲勳)의 아들로 제5세대 지도자가 된다. 시진핑은 "일반 대중은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할 만큼 자유주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9년 티벳트 반정부 시위때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불거지자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서양 사람들이 간섭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릴만큼 과감하고 직선적이다. 젊고 패기있는 그의 이런 면모로 보아 시진핑 시대는 중국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등 국력과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보아 앞으로 중국은 그들이 흔히 쓰는 대국굴기(大國堀起)로 나아 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큰 나라로 우뚝선다는 것은 지난날 역사로 보아 패권주의로 나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패권은 힘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권력이다.

모든 권력은 총구(銃口)로부터 나온다고 한 공산중국 제1세대 지도자 모택동의 말을 상기하면, 중국 공산주의에서 덕치의 왕도(王道)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FTA를 합의 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저들의 패권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떠한 방법이든 양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에 있다고 믿는다. 다행이 한중 양국은 정치제도는 서로 다르더라도 종교문화적 측면에서는 불교를 통하여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66년부터 76년 모택동이 죽기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 기간에 있어 그때 홍위병들은 자기들 조상 공자를 비판하고 그 문화를 때려부셨지만 불교의 자비신앙에 대해서는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그래서 관음성지나 그 도량은 훼손을 면했다. 자리이타는 대승의 근본으로 자비행에 든다. 양국이 장차 이와 같은 자리이타의 대승정신으로 정치 경제 면에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는다면 한·중은 다같이 우열(優劣)없는 평등관계에서 가장 성실하고 내실 있는 동반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자리이타, 이것이 화두다.

社說

조계종, 더 많은 약자 보듬길

조계종이 우리 시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 남다른 아픔을 겪으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교계 수장으로는 최초로 지난주 구속된 용산참사 관계자들의 사면을 촉구한데 이어, 화쟁위원회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관련 구속인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9일 용산참사 대책위(공동대표 조희주)를 찾아 용산참사 유가족 10여 명을 만났다. 스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특별사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최근 청와대에 용산사태 관계자들의 특별 사면을 요청해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구속된 8명의 철거민들에게 위로 편지와 영치금 및 108염주 등을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용산참사의 1차적 원인이 세입자의 권리와 철거민에 대한 사전대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큰 이상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철거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고공크레인 농성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시위 현장을 찾아 화쟁의 논리로 해법을 찾고자 했던 화쟁위원회가 최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쟁위는 성명서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대승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을 질타했다. 그리고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적자 부담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경영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노동자 가장들이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 한진중공업 농성과 연관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이 재판 중이다. 화쟁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사법적 조처만을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용산참사는 견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총무원장스님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용산참사 사면 요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보수·진보의 대립에서 오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 잠시 중지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 스님과 화쟁위원회가 사면과 사법처리 중단을 요청한 것은 범법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면, 법치국가에서의 온정주의, 여론몰이를 통한 포퓰리즘이 아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포석을 깔고 한 행동도 아니다. 대정부 메시지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룬다는 공생의 법문이다. 우리 사회 공생을 위한 문수보살의 지혜인 것이다. 또, 현장을 찾아 그들을 만난 것은 보현보살의 보현행이다.

이런 움직임에 연관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불교사회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고, 아름다운 동행은 모금 확대를 통한 대사회 지원활동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불자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 나눔의 행보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사부대중 칼럼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하자



정운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법회를 시작으로 오래전부터 학생들을 만나왔고, 대학이나 사찰 불교대학을 통해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늘 학생들에게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다. 잠시나마 강단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잊을 때가 많다. 근래 느끼는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만 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상대를 비방하고 집단적으로 마녀사냥을 통해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한다. 이런 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기심을 줄이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천수경〉첫머리에 등장하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구업(口業)을 청정히 하는 의미이지만, 단순히 이 뜻만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훌륭하십니다"라는 찬탄과 감사함도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도 '매사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는 긍정적 삶의 선택이요, 양태이다.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추고, 식물도 보살펴준 만큼 성장한다. 작은 미물도 감사와 사랑에 반응하는데, 감정이 풍부한 인간에게 감사하고 사랑만큼 훌륭한 보약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누구나 고독한 존재로서 인간의 따스함에 목말라하면서도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떨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두자.

먼저,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타인도 나만큼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이 세상은 중중무진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 사물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상대방은 두 배로 보답할 것이요, 서로 좋은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상대방을 위한 감사와 배려는 곧 나를 위한 것이요, 자신부터 행복하게 해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궁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各各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 眞性 임동균 著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2012년도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법인 지부 160종단 연대결성 워크샵

■ 일시 : 2012년 3월 2일(금요일)14:00 ~ 18:00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대회의실

■ 주관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종교세계신문사, 사단법인 국제불교조계종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회, 사단법인 한국불교화쟁회, 사단법인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

증명대법사단

단 장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대법사 본법인 국제문화원원장 혜암

대법사 한국불교달마선종 종정 법일

대법사 중앙선학원 중앙원장 성해

대법사 한국불교여래종 조실 인왕

회장단

회 장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상임부회장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청해
수석부회장 대한불교불교종 총무원장 화담
특임부회장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사회복지재단장 한국불교대관음사 회주 우학
집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총재 무공
국제승가외교대사 대중불교조계종 이사장 향덕
중앙종회의장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부회장 대한불교지장선종 종정 혜봉
부회장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부회장 대안불교조계종 종정 지월
부회장 대한불교선불종 종정 명조
부회장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부회장 한국불교약불종 종정 불광
부회장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부회장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부회장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부회장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정보화기획단장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재정위원장 생활불교조계종 종정 도선

원로회의

의 장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의 원 한국불교화쟁회 종정 정암
의 원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의 원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의 원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의 원 본법인전통문화진흥원 원장 담월
의 원 진언불교 종정 도성
의 원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의 원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의 원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의 원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의 원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동산

전통문화위원회

전통문화위원장 달마선원진흥원 이사장 청광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 대한불교팔만종 이사장 운월

대외협력위원장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법인종단운영기획실장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호법위원장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의식봉행위원장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문화행정위원장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불교용품사업위원장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인권환경위원장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법규위원장 금강불교조계종 종정 활안
교육위원장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안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해승 대표변호사 이장수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현 대표변호사 나도연
사무총장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총재단

총 재 본법인상임이사 각성

상임부총재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수석부총재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특임부총재 대한불교해탈종 종정 대광
부총재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부총재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부총재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부총재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부총재 환국선원 회주 도일
부총재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부총재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압
부총재 한국불교법인선원 이사장 도운
부총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부총재 본법인대강백 설법원장 보안
부총재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부총재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부총재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비구니진흥회

비구니진흥회장 용화세계미륵종 회장 월단

부회장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부회장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부회장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부회장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전문직능위원회

위원장 (주)화광산업 (재)고려대장경진흥원 이사장 장수

위 원 동아석건(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위 원 (주)태인목재 한국고건축 예술문화진흥원 원장 태인
위 원 (주)경방원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위 원 (주)성종사 한국범종연구진흥원 원장 광식
위 원 한국불교미술원 한국불교미술원 원장 정규진

법인종단 전국지부 위원회

위 원 장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위원 무궁화 무한월드 이사장 애무린
위원 일관도광명문화재단 이사장 광명
위원 범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위원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위원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위원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
위원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위원 달마선원진흥원 총무원장 청광
위원 환단도 이사장 태대
위원 백산소도문화재단 이사장 월광
위원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위원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위원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아산
위원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위원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암
위원 대한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위원 대한불교위양종 종정 위산
위원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위원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위원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위원 한국불교조계종중앙본부 이사장 월정
위원 대불교조계종 종정 청해
위원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위원 해탈종문화재단 회장 동환
위원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위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위원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위원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위원 육영수박정희추모제례진흥회재단 종정 대광
위원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위원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위원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위원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태오
위원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위원 현대불교미륵종 종정 원공
위원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위원 한국불교내외종 총무원장 청담
위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선원 원장 법기
위원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위원 한국불교미타종 이상장 원상
위원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위원 법신불교정법종 종정 법통
위원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위원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위원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위원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위원 세계선불교조동종 종정 공산
위원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위원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현불
위원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이사장 월성
위원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 이사장 선학
위원 삼신신앙봉천재단 문화재단 재단장 진순
위원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위원 한국불교천불종 종정 혜담
위원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위원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위원 한국생활불교조계종 회장 지암
위원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위원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이사장 혜일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기획실장 양범수 / 사무총장 대명 / 상임이사 원당 /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 회장 지암 / 총재 각성 / 단장 벽운

우 :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019호
전화 02-2198-5022(대) 2198-5023~4 팩스 02-2198-5025 H.P 010-4167-3666
E-mail:jonggyo119@hanmail.net http://www.kntga.or.kr